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호불홍법은 불교언론의 의무
대중교화 콘텐츠 개발해야"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00호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6월 14일) · 주간



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감정의 골 깊어진 조계종 · 선학원

종단 법인 등록을 놓고 갈등 중인 조계종과 선학원의 감정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선학원은 이사진과 감사 전원의 제적원이라는 강수를 뒀고, 조계종은 비판 성명서와 호법부 등원이라는 맞불을 놨다.

선학원 이사회는 6월 30일 조계종 총무부에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13명의 제적원을 제출했다. 제적원 제출 사유는 '조계종의 종헌 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 으로 기재됐다.

제출 직후 선학원은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제적원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학원은 성명서에서 "조계종은 100년 역사의 선학원을 온전히 지키며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법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까지 하려한다"며 "종단이 그간의 합의 정신을 깨뜨리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선학원을 압박하고 임원진에 대한 징계를 운운한다면 선학원은 더 이상 조계종에 몸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학원은 조계종의 정관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2002년 합의사항이 파기됨에 따라 정관을 이사회 결의에 의거 합의 이전 정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에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이 법인법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보이콧했다"고 비판했다.

정만 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선학원 이사회가 종헌 종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종지 종풍을 봉대할 수 없다면 그들이 떠나야지 선학원을 탈종시키려 한다"고 힐난했다.

조계종 총무부는 선학원 임원이 제출한 제적원은 현재 처리를 보류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계종 종헌 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는 이유를 근거로 호법부 조사를 의뢰했다. 호법부는 7월 3일 제적원을 제출한 전원에게 '1차 등원통지서' 를 발송했다.

갈등이 극단으로 가는 상황을 보이자 종정 진제 스님의 시중 발표도 전망되고 있다. 총무부장 정만 스님과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3일 진제 스님을 예방했고, 이 자리에서 정만 스님이 선학원 문제를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진제 스님은 '종헌 종법을 동의하지 않는다' 는 제적원 제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정 스님의 시중은 오는 7월 10일 원로회의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혜사와 간월암을 놓고 선학원과 갈등 중인 덕숭총림 수덕사는 이사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학원 이사진들이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에 제적원을 제출하고 있다.

선학원
임원진 제적원 제출
정관 복원 不可 통보

조계종
"법인 사유화 의도"
제적원 처리 보류
호법부 등원 공고해

수덕사 선학원대책위원회는 7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인 관리 및 지원법제정은 역대 선사들이 설립한 법인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삼보정재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이사진의 제적원 제출은 법인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몰염치한 탐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조계종단에 △종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선학원 이사진 전원을 종헌 · 종법에 의거해 엄단할 것과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는 다수의 선학원 소속 스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 지령 1000호… '천불결사' 다시 시작



현대불교신문 천불모시고 천불전 짓네 현대불교신문이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발행한 후 20년만이다. 작게는 개인의 깨달음에서부터 크게는 사부대중의 염원인 정토구현을 위해 한 호 한 호 부처님 말씀을 담아왔다. 불법이 담겼으니 한 호 한 호가 불탑을 세우고,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은 불사일 것이다. 사진은 1813년 초의선사의 스승이었던 완호대사가 중건한 대흥사 천불전에 모신 천불이다. 천불전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는 의미의 전각이다. 이제 현대불교신문이 천불을 모시고 천불전 한 채를 짓는다. 글 · 사진= 박재완 기자

"'초의시고' 초의 生前에 제작"

박동춘 소장, '초의시고 下' 공개… "1851년 출고 추정"

그동안 '일지암 시고'
입적 후 발간으로 알려졌으나
하권 발견 제작연대 상향
10월 10일까지 '다산' 展서 공개

초의 선사(1786~1866)의 입적 후 후대 그의 시를 모은 것으로 알려진 〈초의시고〉(草衣詩藁)가 초의 선사 생전에 제작됐음이 밝혀졌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실학박물관이 개최하는 '다산학단' 특별전에서 초의 선사의 〈초의시고〉 하권을 공개했다.

그동안 〈초의시고〉는 1875년 신헌구가 쓴 발문이 있는 '일지암시고' 영인본이 유일했다. 발문을 기초로 초의시고는 초의선사 입적 후



후학들이 시를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초의시고 하권에는 1851년 윤치호의 시문 발문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초의 스님이 발문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박동춘 소장은 "이번에 발견된 초의시고는 일지암시고를 제작할 때 함께 만든 부장본"이라며 "여기에 있는 발문을 미뤄볼 때 초의선사 생전인 1851년에 출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초의시고〉는 부장본으로 초의선사가 각 시에 남긴 주석 등이 있어 더 가치가 높다. 〈초의시고〉 본문에는 초의 스님의 차에 대한 사상을 비롯해 정약용, 김정희 등 당대 유명인사와 주고 받은 시문이 수록돼있다.박동춘 소장은 "영인본보다 형태가 분명하며, '유금강산기' 등에는 초의 스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남긴 주석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배지의 제자들-다산학단' 특별전은 남양주 실학박물관에서 10월 10일까지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지령 1천호 특집- 48면 발행

A	종합 · 불자들 · 지역	2·3·4·18
	대담 · 향적 스님에게 듣는 선시 이야기	5
	특집 · 결사, 세상을 바꾸는 힘	6·7·8·9
	특집 · 한국 속 세계불교	13·14
	'현대불교' 가 걸어온 길	10
	지령 1000호 축하 메시지	12
B	특집 · 길을 묻는 이에게	1~8
C	특집 ·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1~8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령 1000호를 맞았습니다. 성원해주신 독자 제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편집중국 사정으로 이번호부터 발행일이 매주 목요일로 변경됩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 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향적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일면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조계종 종헌 개정안 통과될 수 있을까

원로회의 오는 10일 46차 회의

조계종 원로회의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6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9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종헌개정안 3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종헌 제130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의되는 안건이어서 이번 원로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앙종회는 지난 6월 25일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종헌개정안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비구니 스님의 호계 · 법계위원 진출을 허용됐으며,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이 법계 종사, 승납 35년, 연령 55세 이상 비구로 상향됐다.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법계 중덕 · 정덕, 승납 15년, 연령 35세으로 변경됐다. 또한 위원회 안에서 호선하고 있는 초심호계원장과 법규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교육원 제2기 수행연수

7월 1~2일 산하 시설장 대상

진각종 교육원(교육원장 경당)은 7월 1, 2일 양일간 진각문화전승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장을 대상으로 '진기 68년 제2기 수행연수'를 열었다.

종단 산하 복지관 20여 시설장들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안산심인당 주교 보성정사의 지도로 '자애명상', 교육원장 경당 정사의 '수행법 강의 및 실습', 도안심인당 주교 도향 정사의 '자기발견의 시간', 명선심인당 교화스승 심정도 전수의 '다도 및 다례의 시간', 경전심인당 주교 법정 정사의 '희사법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살면서 종교를 잘 활용하면 삶에 보탬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이라며 "진각종 산하시설 시설장인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진각종을 제대로 배워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교육원은 7월 1~2일 산하 시설장을 대상으로 제2기 수행 연수를 개최했다.

불교기록유산 디지털로 만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아카이브 시스템 공개

대장경 · 한국불교전서 등 '한눈에' 아직 초기단계… 2026년까지 진행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7월 2일 공개한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메인 화면.

대장경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모든 전적들을 디지털화한 아카이브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공개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7월 2일 동국대충무로영상센터 227호 강의실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웹서비스 시스템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을 공개했다.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은 2012년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진행 동국대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026년까지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초기사업에 속한다.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통합 검색은 아카이브 자료를 한글과 한자의 구분없이 검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의 성격도 자동 분류해 보다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세검색과 연계검색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 국내학술지논문, 단행본 등 전문자료를 비롯해 네이버의 관련 뉴스까지 연동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각 자료는 원문 이미지도 제공된다.

이번에 공개된 ABC 웹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통합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신집성문헌 등의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먼저 통합대장경은 월정사 인경본을 저본으로 하여 〈도행반야경〉 등 54종의 경전이 통합돼 구죽됐다. 고려대장경 원문이미지 54종, 580권, 14,964장, 한자 텍스트 4,726,465자와 한글대장경 번역문 14,669,931자가 문단과 경전과 권 별 형태로 제공된다.

통합대장경 서비스는 고려대장경 인경본 이미지와 원본텍스트, 한글대장경을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불교학술원은 향후 연구소 측과 고려대장경 인경본 이미지를 중심으로 원문텍스트와 번역문을 추가 서비스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인에 의해서 편찬된 불교관련 저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번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 등 128종, 292권, 1만779단, 336만730자의 한자 원문텍스트와 이미지 5134건이 구축됐다. 한국불교전서 서비스는 먼저 한국불교전서의 원문 텍스트의 검색과 열람이 제공되며 원전 이미지 및 번역문은 순차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신집성문헌은 ABC사업단 내 집성팀이 국내외 사찰, 기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새롭게 모은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고서 6만4034장을 비롯해 총 8만4132장, 텍스트는 한자원문 852만7928자 한글 번역문 1466만9931자 등 총 2275만7126자, 목록 및 해제는 해제 54건, 목록 1470건 총 1524건이 제공된다.

원문 이미지는 동화사 등 10개소의 목록 1470건, 고서 이미지 6만4034컷, 원문 텍스트 〈회현기〉, 40권, 2168쪽, 44만733자 등이 제공된다.

신집성문헌의 인터넷 서비스는 집성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획득한 원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먼저 제공되며, 순차적으로 이와 관련한 텍스트와 번역문이 공개된다.

이날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은 "이번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한국불교가 갈무리해 온 기록문화를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사의 현장"이라며 "ABC사업을 통해 한국불교 면면의 지혜가 우리 사회에 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올 8.15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열리나

민추본, 北에 가능성 타진… 만해축전 방한은 어려워

8 · 15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개성에서 봉행될지도 모르겠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지난 6월 29일 역사상 최초로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재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한데 이어 광복절 남북합동법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대사 추계제향을 위한 9월 방북은 추후 남북관계 정세를 고려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8월 11일 열리는 만해축전에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불련에서 축하전문은 보내주기로 했다.

민추본은 7월 3일 서울 인사동에서 방북결과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조선불교연맹과 남북합동법회 실무접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개성 영통사, 관음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만해 스님 열반 다례재에서 8 · 15 합동법회를 제안한 민추본은 "북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조불련측 반응을 확인했다며 합동법회 성사 가능성을 밝게 내다봤다.

정부의 협조도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추본은 "이번 다례재 역시 정부와의 소통에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었다"며 8월 교황 방한으로 정부가 평화적 남북관계 분위기 형성을 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냐는 뜻을 비쳤다.

민추본이 창립되면서 진행되기 시작한 남북불교도공동 동시법회는 매년 남과 북에서 합동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2003년에는 조불련 대표단이 봉은사를 방문했고 2009년에는 조계종에서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해 공동법회를 진행했다.

한편 민추본은 만해 스님 다례재 봉행을 원만히 마친 것에 대해 "남북이 새로운 사업을 함께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민족 역사에 기여한 스님들에 대한 발굴조사 및 재평가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후쿠시마 피폭 심각… "원전 사양 사업"

조계종 환경위, 3일 탈핵 한일 공동 세미나

"일본 내 갑상선암 발병률이 100만명당 1명인데 반해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 주민 37만명 중 소아 갑상선암 환자는 50명이나 된다. 일본 정부는 일반인에게 허용된 방사능 피폭 한계치를 1mSv에서 20mSv까지 높였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민들의 자살률 역시 높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일 불교 국제세미나'에서 오코우치 히데히토 스님은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위험한 상황을 전했다. 오코우치 스님은 20년 넘게 활동해온 탈핵운동가이며 자신의 사찰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활동을 추진해왔다.

탈핵 세미나는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가 일본 불교계와 공조해 7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여한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탈핵 활동에 주력해온 단체다.

앞서 김익중 교수(동국대 교수, 조계종 환경위원)는 "지난 25년간 원전 개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한국, 중국 등이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왔지만 유럽 등 선진국이 원전을 줄여왔기 때문"이라며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없이 사는 것은 가능하다"며 "전기수요관리를 통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세계 3위의 일인당 전기 수요국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건물 열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줄이는 등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계가 탈원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보다 전기 수요관리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 역시 지적했다.

최원형 불교생태연구소장도 "원자력발전에서 오는 에너지는 인류 전체를 공멸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불자들은 자신들이 쓴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명의 존재를 파괴하는지 제대로 알고 생명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스님 어학 교육, 우리가 돕겠습니다"

조계종 교육원·동국대 3일 업무 협약… 자문위원 위촉도

조계종 스님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조계종 교육원과 종립대학 동국대가 손을 잡았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동국대 서울캠퍼스 국제어학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는 7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 정도 스님은 "오랜시간 준비 끝에 동국대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종단 스님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육원과 동국대 국제어학원, 파라미타칼리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학 내 개설된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어학강좌를 수강하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 자문위원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다. 자문위원은 국제불교학교 학사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이날 자문위원으로는 조계종 교육위원장 종호스님(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국제어학원 장환영 교수, 파나한 교수, 원충희 국제처 국제교류팀장과 파라미타칼리지 류란, 조웬델 교수와 이진영 학사운영실장 등 7명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과 동국대는 7월 3일 종단 스님들의 어학 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황경태 동대 국제어학원장과 교육부장 정도스님, 박상신 파라미타칼리지학장.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 의장 덕화
수석부의장 법달
차석부의장 지족

중앙종회 의장 혜공
수석부의장 지홍
차석부의장 자운

총무원 원장 도산
부원장 호명
총무부장 재홍
교무부장 상진
문사부장 성인
규정부장 지담
홍보부장 혜철
전법사부장 도정
사서실장 현광

호법원 부원장 상묵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만해 스님의 유훈 잊지 않겠습니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기념 행사 ‘다채’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을 맞아 남북 불교도가 하나돼 추모 다례재를 개최하는 등 스님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봉행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불자50여명(남측30명, 북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재’를 열었다.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은 봉행사에서 “만해 스님이 활발히 왕래한 남북의 길이 다시 이어져 복원되길 바란다” 면서 “만해 스님의 정신과 업적을 남북이 함께 조명하고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리규룡 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자주 정신으로 일관한 스님의 한생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전체 불교도들은 만해스님의 정신으로 이 땅에 지상정토를 하루 빨리 이루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재)선학원(이사장 법진)과 국가보훈처는 6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70주기 추모제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만해 스님은 66년의 짧은 삶을 살면서 선지(禪指)를 깨달은 선사로서 방대한 경전을 정리한 교학자로서 죽는 날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로서 누구보다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면서 “스님은 중생들에게 진리의 바른 삶을 열어주는 보살로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싣고 해방과 독립이라는 정토의 언덕을 향해 고해를 건너는 나룻배로서 한 평생을 살았던 우리의 스승이었다”고 찬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직접 작사하고 김시율 국악인이 작곡한 창작 추모곡 ‘님이시여’가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님이시여’는 정준태 극단 떼이루 대표가 노래했고 관현악단의 반주와 솔중창단, 앙상블 시나위, 아산 영산 합창단 등의 협연으로 진행됐다.

민추본 · 조불련 신계사서
사상 최초 합동 추모다례

선학원, 열반 70주년 추모제
창작 추모곡 ‘님이시여’ 발표
심우장 시대 조명 학술세미나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6월 29일 오후 2시 신계사 대웅전에서 불자 50여명(남측30명, 북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조계종 제공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6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기념 추모제에서 만해 스님 영정에 헌향하고 있다.


선학원이 주최한 추모제에서는 법진 스님이 직접 작사하고 김시율 국악인이 작곡한 창작 추모곡 ‘님이시여’가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이에 앞서 만해 스님의 마지막 거처인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는 열반 7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제가 열렸으며 하루 전인 6월 28일에는 추모예술제가 진행됐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심우장에 머물던 시기를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도 열렸다.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이 6월 28일 동방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세미나서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만해 만년의 심우장 시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며 학계의 연구활동을 당부했다.

백 교수는 “심우장은 민족자존의 역사적 공간으로 심우장 시대의 핵심은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플 수밖에 없는 만해의 ‘동체대비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또 “만해 스님은 시 장르로는 해소되지 않는 독립정신 고취와 사회계몽 발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소설로도 사상을 펴냈다”며 “심우장 시대 문학활동은 일제 저항의식과 독립운동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나란다 축제, 조계종단 행사로 승격

포교원 · 은정진흥원 요강 발표… 31일까지 접수

국내 최대 불교 교리 경시대회인 ‘나란다 축제’가 조계종의 종단 행사로 진화한다. 또한 올해는 경찰대 학생들과 일반인 및 외국인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며,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회향한마당도 마련된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제6회 나란다축제’ 모집 요강을 7월 2일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나란다 축제’는 9월 20 · 21 · 24일 3일간 서울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군법당 등지에서 개최된다.

‘제 6회 나란다축제’는 기존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 등에 ‘회향한마당’과 ‘나란다 댄스경연대회’ 등이 추가 개설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찰대 학생들이 사관생도(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삼사관학교) 부문에 참가하게 된다.

올해 나란다축제에는 중 · 고등부와 일반부의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불교교리 경시대회’ 중 · 고등부는 학교, 사찰 등 단체별 예선 통과자가 참여한 결선이 펼쳐진다. 결선은 9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에서 경시대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 · 중 · 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초 · 중등부 200만원, 고등부 300만원)이 수여된다.

일반부는 팀별 참가자격 제한을 풀고, 개인별 참가로 전환된다. 참가기준이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확대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상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외국인들의 참여도 대폭 확대돼 외국인 부문 퀴즈대회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확대 실시된다.

신설된 회향한마당에서는 초등부, 일반부, 외국인, 댄스경연대회 등 부분별 진행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공연, 참가자 전원이 함께 어우러져 연출하는 대동한마당이 펼쳐진다.

9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 체육관에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가 진행된다. 초등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예선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관생도 · 경찰대생 부문은 9월 2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당 사관학교와 경찰대 법당에서 진행되며,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생 등 1천1백여명이 참가한다. 부문별 참가접수는 7월 7일부터 31일 까지이다. www.buddhism.or.kr / www.eunjung.or.kr 이나은 기자

백악관 셰프·뉴요커, 사찰음식에 빠지다

샘 카스 사찰음식 체험 · 뉴욕서는 ‘사찰음식의 날’ 호평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샘 카스 백악관 셰프부터 세계 경제 중심지 뉴욕의 뉴요커까지 한국 사찰음식 매력에 흠뻑 빠졌다.

7월 2일 서울 진관사를 찾은 샘 카스 셰프는 사찰의 여름별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샘 카스 셰프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진관사 계호 스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별식인 콩국수와 오이물김치를 만들며, 생소한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진관사 사찰음식 기본 상차림의 주메뉴인 버섯강정, 된장빡빡이장, 시래기찌개 등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사찰음식을 맛보고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사찰음식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뉴욕 일원에서 뉴욕 한국문화원,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제3회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을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샘 카스 백악관 셰프는 7월 2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샘 카스 셰프는 직접 사찰음식을 만든 후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사찰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달라이라마 방한 재추진된다

30일 추진위 사무실 현판식… 2016년 가을 목표

7월 5일 조계사서 추진회 발대식
1년간 여론수렴 후 정부 공식 요청

“미움과 분노가 팽창 돼 있는 지금 이 곳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방한한다면 이 시대 최고의 불사가 될 것입니다.”

한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세계적 스승 달라이라마가 이번에는 방한할 수 있을까.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위원장 금강)가 서울 경운동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6월 30일 발족했다. 7월 5일에는 조계사에서 추진회 발대식과 선포식도 열렸다.

추진회는 미황사 금강 스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집행위원장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준비위원에는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마가 스님(동국대 정각원), 목종 스님(부산 대광명사), 일진 스님(청도 운문사), 정목 스님(서울 정각사), 남카 스님(티벳하우스코리아) 등 22명으로 참여한다.

뒤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진회는 2016년 가을을 목표로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사회적 대립과 분열을 겪는 한국 사회에 생명존중과 평화적 공존 메시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회는 이를 위해 지역법회와 1천만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론결집 후 정부 측에 의견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달라이라마는 한국 입국 허가만 난다면 우선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는 6월 30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회 위원장 금강 스님은 “이전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막힌 면이 많았다”며 국민 다수의 의견이 여론으로 수렴된다면 방한 성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년동안 장기 계획을 갖고 충분하게 준비해 접근한다면 어떻게든 방한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비쳤다.

추진위는 우선적으로 생명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지역 순회 대법회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후 9월 말까지 추진일정 및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 정식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이라마 방한은 2016년 9~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7월안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홍보 동영상, 초청 취지문, 서명지를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 원 로 원 : 성민, 혜일, 춘담, 혜정, 일봉, 혜경, 천불, 백공, 혜원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총무부장 : 천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광덕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국제포교원장 : 중산청목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노사나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서산
규정국장 : 영암,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법산
감찰2국장 : 수산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장 : 지성

총무 : 정해
부회장 : 해월, 혜산, 월산
재무 : 도은, 향인
교무 : 현타,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보현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덕산, 혜승
복지 : 본각, 화광
감찰 : 금산, 보현
불화 : 혜담, 인산, 진화
의식 : 련성, 지해, 수옥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남종무원장 : 혜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종무원장 : 도명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 중산청목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집기자 : 이기영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설주성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총무계장 : 조일
기획실장 :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일 주 문



대승기신론 고운사 특강

각성 스님은 8월 18~22일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대승기신론 특강을 개최한다. (054)833-2324



조계사 생명살림기도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8월 17일 평창 월정사에서 하안거 해제 기념 생명살림기도를 진행한다.



취담당 일현 스님 23주기 다례재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7월 12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취담당 일현 스님 23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한다.



동대부고 개교기념 초청 강연

서울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6월 30일 동국대 사범대 부고 개교기념 합동법회에서 '자비 정신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무영암 점안 개원법회

무영암 주지 성팔 스님은 6월 30일 부처님 점안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053)982-2204



산청 보림선원 철야정진

전근홍 보림선원 선원장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 일주일간 산청 보림선원에서 철야정진을 실시한다.(055)972-9555

'무주상보시' 익명의 스님, 동국대 2억 기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몸소 실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신 노스님 한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노스님 한분이 조용히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아 2억원을 기부했다.

노 스님은 총장실로 안내해드리겠다는 학교 측의 요청과 한잔의 차도 거절하고 기금부서 한쪽의 회의 테이블에 앉자마자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부처님의 학교가 맞지요"라며, 품에서 1억 7천만원과 3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꺼내 전달하고는 사라졌다.

절도 없고 법명도 없다며 한사코 본인을 밝히길 꺼리신 스님은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한 여타 대학과 달리, 경주에 캠퍼스를 설립한 동국대의 발전과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써 달라"고 말했다.

기부자에 대한 감사 선물과 기념 사진 촬영도 일체 거절하신 스님은 "내가 누군지 알리고 싶지 않다"며 "가지고 있는 글씨와 액자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에 기증하러 다시 오겠다"는 말씀만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스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발길 머무는 곳 희망 노래 전해"

최초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서부전선 1군단 벽제 병원 부임
군장병 심리상담 등 감성포교
"군대는 평화지키기 방편" 강조

"이렇게 군승으로 장병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인연입니다. 인연따라 발길 닿는 곳에서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네요."

1968년 군승제도 실시 이후 최초의 여성 군종장교이자, 비구니 군승으로 임관한 명법 스님은 아직 군복보다 장삼이 편하다며 맑은 웃음을 보였다.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명법 스님은 이날 최초라는 명예에 맞는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 1군단 산하 벽제군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인 명법 스님은 "부상당해 아픈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특히 수행자의 마음으로 군대내 총격사건 등의 참사를 예방하는 상담 등에 주력한다.

학생군사학교에서 전방부대를 지원했던 스님은 여성으로서 특별한 대우받기를 거부했다. 학생군사학교에서는 수류탄 투척을 비롯해 다양한 군사훈련을 모두 수료했다.

"사실 수류탄 투척 등을 비롯해 여성의 몸으로 소화하기 힘든 여러 훈련과 과정이 있었어요. 부족한 제가 졸업한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군포교에 임하게 된 것이 인연 같습니다. 힘든 과정인 만큼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님은 군대의 존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군종장교들이 성직자, 수행자임에도 군대에 있는 것은 옛 의승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창과 칼을 들었던 이치와도 같다고 했다.

"무기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다른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군대의 존재, 무기를 쓰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장병들이에 이런 점을 전하고 싶어요."

스님은 끝으로 다른 비구니 스님들이 보내준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주변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주어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임관신고식에는 신임 군승 47기(군종 72기) 13명이 참여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관을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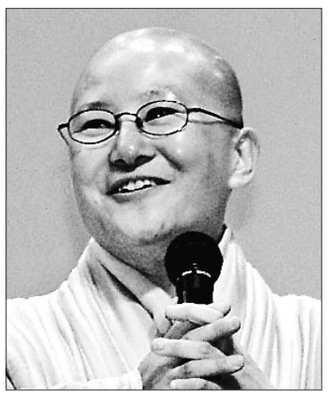
자승 스님은 "군포교 최전선에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달라"며 "본인의 임관으로 군포교 전기가 마련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승후보생으로 32명의 스님들이 지원하는 등 불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임관한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외에도 민간성직자로 군법당에서 2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종단에서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사는 육바라밀 온전히 실천하는 길"

지구촌공생회 신임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성 관음사 주지 탄하 스님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스님은 10년 넘게 재직해온 의성군노인복지관장직을 지난 달 내려놓았다. 8월부터는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케냐 지부장으로 터전을 옮긴다.

"2년 전 혼자 아프리카로 배낭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현지인들과 교감하면서 제가 막연히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더군요. 이곳에 와서 나를 좀 더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어린이들 중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교육이 미래 아이들의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이어지면서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죠.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은 거죠."

스님은 앞으로 교육지원, 농장지역, 식수지원 등 지역개발사업의 총괄운영을 맡게 된다. 지구촌공생회가 케냐에 건립한 학교는 3곳. 올해 한 곳이 더 개교할 예정이고 교육운영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7천평 정도의 농장에 채소와 곡물을 키우는 지역주민 일자리 사업도 돌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을 양도할 계획이다.

라오스, 몽골, 네팔 등 지구촌공생회가 세계 각지에 둔 지부는 6곳. 스님이 지부장으로 있는 곳은 케냐가 유일하다. 6년 전부터 지구촌공생회 후원자로 활동해오다 해외봉사 자원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중생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보현십원을 가장 좋아했다는 탄하 스님. 그 중에서도 좋은 일 은 널리 나누겠다는 열 번째 보개회향(普皆廻向)이 마음에 남는다. 이기주의 대신 이타주의를 실천해 완벽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보현보살의 원이 그대로 스님의 다짐이 됐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이유도 그것이었다. 봉사야말로 육바라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길인 듯 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말씀이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서 사회에 실천해야지요. 수배 스님들 역시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면 해요. 아직 수행도 설익었는데 바깥으로 나다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번잡한 곳에 있어도 자기 수행은 어디서나 된다 생각해요. 은사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에 있든 화두는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스님이 케냐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의성군불자회원 180명이 10만원씩 1800만원의 후원 기금을 마련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봉은사, 북한어린이 영양 지원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7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지원하는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지정기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영양결핍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북녘의 아이들에게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데 사용 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대흥사 천운 스님 4주기 다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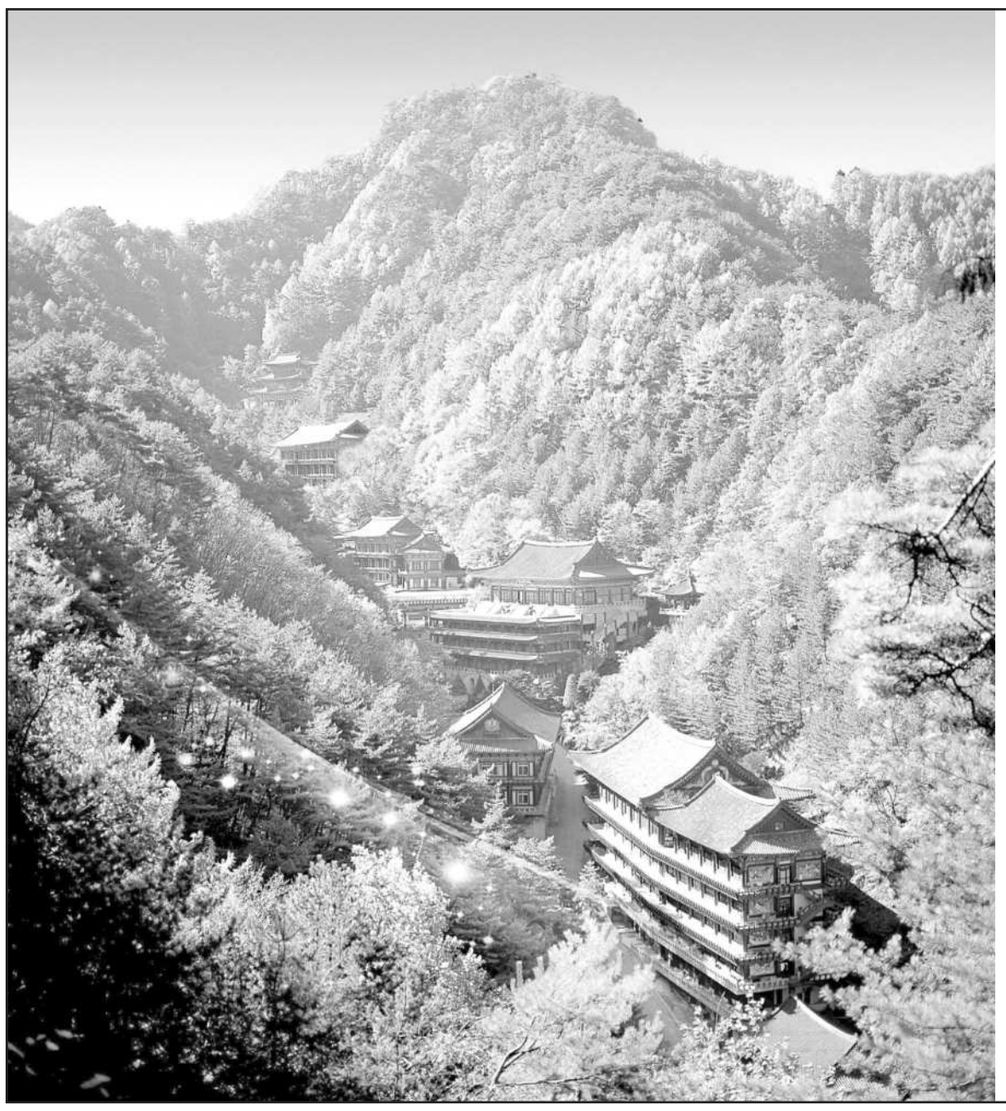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의 4주기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을 6월 28일 봉행했다. 이번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어산장 동주 원명 스님, 암도 스님,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그리고 호남지역 각 교구 주지스님들과 대흥사 각 말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혜숙 기자**

금강대, 제4기 해외봉사단 파견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7월 1~13일 12박 13일간 몽골로 제4기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제4기 해외봉사단은 총 30명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한다.

봉사단은 몽골현지에서 교육봉사(위생교육, 예체능교육, 언어교육 등), 노력봉사(환경미화, 벽화작업, 시설보수 등), 문화교류(현지 생활체험 및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 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 실장 박 덕 수

총무원
총 무 원 장 변춘광
총 무 부 장 김 월 도
교 무 부 장 방 경 혜
교 육 부 장 정 장 호
재 무 부 장 정 월 중
사 회 부 장 지 설 혜
규 정 부 장 조 용 문

원로원
원 로 원 장 전 운 덕

감사원
감 사 원 장 김 용 암
감 사 위 원 엄 행 주

종의회
종 의 회 의 장 이 문 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 김형구

참 의 원 장 김 학 송
금강대학교 총장 정 병 조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禪도 詩도 깨달음 전제… 게송은 선시의 백미

대담– 선시 해설집 펴낸 향적 스님에게 듣는 禪詩 이야기

선시를 문예적으로 쉽게 해설한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조계종출판사)〉가 출간됐다. 올해 상반기 불교계 베스트셀러인 이 책의 저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이다. 향적 스님을 만나 선시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왜 다시 선시가 주목을 받는지 들어봤다.

향적 스님은 "선시야말로 주제와 형식 양면에서 격의 위의(威儀)를 두루 갖춘 문학 작품"이라고 말했다. 향적 스님은 선시가 이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시는 속도 경쟁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의 마음 속 서정의 결을 곱게 한다"고 평가했다.

詩 '말씀의 사원', 禪詩 '정신적 사리'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를 어떤 연유로 쓰셨나요? 그리고 선시의 근원에 대해서도…

– 시인도, 선원장도 아닌 까닭에 감히 선시 해설집을 써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자 서문에 밝혔다시피 선시(禪詩)의 사전적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詩)는 말씀 언(言)과 절 사(寺)가 합쳐진 회의문자입니다. 비록 시를 '말씀의 창고'로 해석하는 게 정설이라고는 하나 제게는 '말씀의 사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선사(禪師)들의 정신적 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시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선사들의 남긴 깨달음의 일편을 만나고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시 해설서를 쓰게 됐습니다.

기실, 선시는 현대에 와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선시의 어원은 가타(gata)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됩니다. 가타는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운문체 글을 일컫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가타는 송(頌)이나 찬(讚)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범어불전에 실린 운문들이 중국에서 한역되면서 한시적인 형식을 띠게 된 것이죠. 간단히 말해 선시는 선불교와 시가 아름답게 조우한 운문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선시가 부흥한 것은 달마 대사가 중국에 건너오면서부터인가요. 아니면 선시의 미학이 최고조에 달한 당대인가요?

– 선(禪)은 우주 본질을 파악해 참 자아를 깨닫는 불교수행법입니다. 선이 하나의 종파로 확립된 것이 달마(達磨)대사가 중국에 건너오면서부터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시가 부흥한 것은 당대(唐代)입니다. 선의 가르침을 문학적으로 기호화한 것이 바로 선시인데요. 표의문자인 한자를 쓰는 중국은 예부터 시문학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시가(詩歌)의 전통에 선불교의 가르침이 더해지면서 선종과 시문학이 상호 길항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산시(寒山詩), 시선(詩仙) 이백, 시불(詩佛) 왕유의 작품을 보면 선불교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육조, 신수, 백장, 마조, 임제, 조주 선사 같은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선풍을 드날렸고요. 그들이 남긴 오도송과 게송들은 모두 선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가리켜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선은 언어문자에 의한 표현을 거부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으로 전하는 선과 문자예술인 시가 조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과 시가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구축한 것은 중국 남송의 엄우(嚴羽)입니다. 엄우는 '창랑시화(滄浪詩話)'라는 글에서 '선과 시가 모두 오묘한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고 평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조지훈 시인은 선과 시의 관계를 '부조화의 조화, 비논리의 논리, 무목적의 합목적'으로 정의했고요. 선과 시는 본질적으로 정신적 원천을 좇는다는 점에서 상통합니다.

지난해 스님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축사에서 바쇼의 하이쿠를 인용했습니다. 하이쿠도 즐겨 읽는지요?

– '오월 장맛비/ 모아서 거세도다./ 모가미가와 강'이라는 하이쿠였죠. 장맛비가 거세면 그 크고 작은 지류의 물이 모여 노도처럼 굽이쳐 강으로 흘러가듯이, 한일 양국의 불교계도 불법(佛法) 홍포(弘布)를 위해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선시 어원은 가타… 唐代에 부흥
"선시는 격의 · 위의 갖춘 문학작품
현대인의 마음결을 곱게 한다"

중국, 한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어서 정형시가 발전했어요. 대부분의 선시가 4언 5구 혹은 7언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도 송(頌)이 발전하면서 정착된 것입니다.

한국선시, 활구선 측면에서 뛰어나

스님의 책을 보면 76편의 선시 중 중국 시는 고작 3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앞서 당대에 선시문학이 최고 중흥기를 맞았다고 했죠. 그런 까닭에 한국의 선시는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선시가 중국 선시의 아류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선시는 중국 선시에 비해 활구선(活句禪)이라는 측면에서 더 뛰어난 점도 있습니다.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지은 〈수심결(修心訣)〉과 혜심 스님이 지은 〈무의자집(無衣子集)〉은 선시를 발흥하게 합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매월당(梅月堂), 청허당(淸虛堂), 서산대사(西山大師), 청매(靑梅) 인오(印悟) 선사로 이어지는 선풍(禪風)은 가히 일미(一味)입니다.

우리 선시에도 좋은 작품이 많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국 시를 많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를 쓰면서 참조한 책이 있는지요?

– 좋은 선시를 발췌하기 위해서 한국 · 중국 선사들이 남긴 선어록들과 석지현 스님의 〈선시 감상사전(민족사)〉을 참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휴 스님이 선사들의 열반송을 해설한 〈죽어서 시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우리출판사)〉와 떠나기 좋은 날이 따로 있느냐(랜덤하우스코리아)〉를 수시로 읽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정휴 스님의 두 책은 생멸이 없는 삶을 살고 간 선사들의 입적 모습이 바로 언어이기 전에 한 편의 시이고 진리의 원음(原音)임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 서문에 밝혔다시피 서구 문인들의 시집, 희곡집, 평론집과 서구 철학자들의 사상서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시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근대적인 교육체계에서 성장한 독자들에게 선시에는 철학적인 담론이 함유돼 있음을 상기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시는 그냥 써진 대로 읽는 글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어조로 특정한 사물에 대해 특정한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시 언어가 아니라 비유 언어인 것입니다. 실례로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전법게를 들 수 있습니다.

선시들 중 유독 사랑하는 작품이 있나요?

– 책에 소개된 선시들은 선불교사(禪佛敎史)를 이끈 기라성 같은 선사들의 작품들인데 어떻게 감히 제가 우열을 가릴 수 있겠어요. 다만, 최근에는 진각혜심(眞覺慧諶) 스님의 '북두칠성으로 은하수 길어다 차를 달이는 밤(斗酌星河煮夜茶) 차 끓는 연기가 달의 계수나무를 감싸네(茶煙冷鎖月中桂)'라는 선시 구절을 즐겨 읊조립니다. 이 선시 구절은 은하수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제가 수행하고 있는 지족암의 한여름 밤 장관과 절묘하게 일치해서 절로 읊조리게 됩니다.

오현 스님 · 고은, 선시 현대화 기여

스님의 책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독자들에게 선시를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시를 문학의 장르로 정의한다면 사회와 소통하는 창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석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좋은 지적인데요. 사견이지만 저는 선시가 화석화됐다는 의견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선시의 현대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시인으로 오현스님과 고은 시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현 스님의 '아지랑이'는 반야사상(般若思想)을 짧고도 응축된 현대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문의마을에 가서'는 자유시임에도 불구하고 승려출신답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가르침을 도저하게 승화했고요.

저는 시인이나 작가가 아니어서 선시를 현대적인 시각에 해설하는 작업에 멈췄지만, 수행에 관심 있고 재기 있는 문인들이 선(禪)적인 에스프리가 담긴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길 바랍니다.

향적 스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향적 스님이 꿈에서 지었다는 선시가 떠올랐다. 향적 스님은 그토록 선시를 즐겨 읽음에도 선시를 지은 적이 없다. 딱 한 번 선시를 지은 적이 있으나 꿈속에서였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에 남은 것은 '극미법수(極微法首)'라는 구절뿐이었다. 지극히 적은 것이 법의 최정상이라는 뜻이다. 기실 향적 스님이 지은 선시 구절은 유한한 까닭에 영원성을 희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비의(悲意)와 선시의 요체를 두루 담고 있는 게 아닐까.

대담 및 정리=유응오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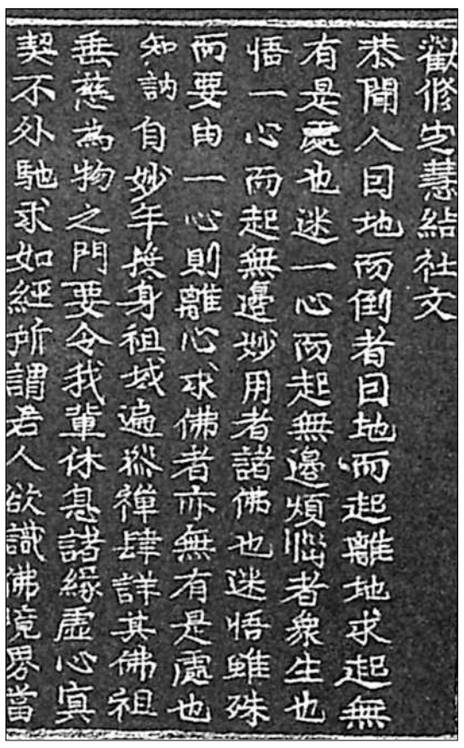


선시 해설집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를 펴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과 유응오 소설가가 선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향적 스님은
가야산 해인사에 출가하여 교(敎)를 배우고 선(禪)을 참구했다. 월간지 〈해인(海印)〉을 창간하고, 초대 편집장을 지낸 후 프랑스로 건너가 가톨릭 수도원 삐에르-끼-비에서 불교와의 수행 방법을 비교하고 돌아왔다. 그 뒤, 해인사 성보박물관 초대 관장을 맡아 박물관을 개관하고,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사장을 역임하며 불법 홍포를 위해 노력했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소임을 맡고 있으며 가야산 해인사 지족암에 주석하고 있다.

유응오 소설가는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불교계 언론 〈주간불교〉와 〈불교투데이〉 편집장을 지냈다. 2001년 〈불교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에 당선했고,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서 당선해 등단했다.
주요 저서로는 〈10.27법난의 진실(화남출판사)〉, 〈이번 생은 망했다(샘터)〉, 〈벽안출가(샘터)〉, 〈불교, 영화와 만나다(조계종출판사)〉가 있다.









보조 지눌국사의 '권수정혜결사문'〈사진 왼쪽〉과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열린 법회.〈사진 가운데〉 2004년부터 도법 스님이 진행한 생명평화탁발순례.〈사진 오른쪽〉 변화의 원력으로 맺어진 결사의 단면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같은 결사의 바탕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국사회 바꿀 '원력의 공동체' 필요하다

이 시대 왜 결사인가

1,000일, 1,0000일. 불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정진 기간이다. 1000일은 햇수만 3년이고 10000일은 27년에 이른다. 이 같이 긴 시간을 정진하는 것은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 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숫자 1000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법수(法數)이기도 하다.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보살피는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대표적으로 조성되는 관음상이기 때문이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손은 자비를 상징하고 눈은 지혜를 상징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관세음보살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재가 결사 법림의 이제열 법사는 저서 〈법수로 배우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에 대해 "우주에 꽉찬 손이며 꽉 찬 눈이다"이라며 "중생심이 있다면 중생을 낱낱이 꿰뚫어보고 제도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도 내 마음에 나타난다"고 밝힌바 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자비심을 내는 것,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금(古今)을 막론한 불자들이 가져야 할 원력이다. 이 같은 변화의 원력에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가 결사(結社)다.

결사, 변화로 나서기 위한 동력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가산불교대사림〉이 정의한 결사는 '뜻을 같이 하는 승속(僧俗)의 도반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결집체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불교신앙운동의 한 형태'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부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하기 위한 정진을 이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어낸 열반의 길은 자기 개혁의 정신이자 자비와 지혜의 활로였다. 부처님이 보여준 개혁은 제도와 기구를 바꾸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에 기인한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정신적인 혁신을 부처님은 평생을 걸쳐 설해온 것이다.

또한 불교 역사 안에서 고비 고비마다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겼고 그 때마다 부처님이 닦아 놓은 길을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결사다.

여산 혜원(慧遠, 334~416)이 동림사에서 123명의 승속들과 함께 서방정토 왕생을 서원하면서 염불수행을 했던 백련결사를 시초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결사가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통일 신라기의 염불 만일결사가 결사운동의 시원이며, 고려 시대에는 진억 스님의 수정사 결사, 보조 지눌국사의 정혜결사, 요세 스님의 만덕산 백련결사가 대표적인 결사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고려시대의 주요 결사운동은 단순히 신앙 실천 공동체를 넘어 사회 개혁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이전 결사운동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명맥과 정신은 이어졌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는 경허 · 효봉 · 구산 스님 등이 보조 지눌국사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 받아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청담 · 성철 스님 등이 주축이 된 1947년 봉암사 결사는 현재 조계종의 기틀이 됐다.

현대 신행 · 교단 개혁의 중심체

결사 정신은 현대 사회의 불교 신행뿐만 아니라 교단 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 현재에도 적지 않은 신행 결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유서가 깊은 염불 결사는 지금도 그 명맥을 굳건히 지키는 중이다. 그중 동산반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염불만일회의 경우 1998년 건봉사에서 결성한 이래 2025년 12월21일까지 1만일 간 매일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서원을 실천하면서 대표적 신행공동체로 발돋움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한 결사도 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결사 트렌드다.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종교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 추구하는 신앙 결집체
1천일 · 1만일까지 시기 다양
사회 개혁적 성격도 내포해
신라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대중과 함께 하는 결사 필요

결성된 생명평화결사는 '스스로가 생명평화의 등불임을 자각하자'는 범종교인들의 모임이다.

지난 2001년 2월 '좌우익 희생자와 뭇 생명의 해원 상생을 위한 범종교계 100일기도'를 계기로 설립된 생명평화결사는 그동안 생명평화 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생명평화학교 운영, 생명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서약운동을 위한 '생명평화탁발순례' 등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종교간 갈등 해소 등을 발원해 왔다.

특히 지난 2004년 3월 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진행된 생명평화탁발 전국 순례는 지방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역과 지역, 진보와 보수, 남과 북, 인간과 자연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 대화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이해와 존중, 배려의 풍토를 조성하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는 종단 차원의 대형 결사로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행정부 중심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결사 전통을 계승하는 작업들이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수행결사 △문화결사 △생명결사 △나눔결사 △평화결사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을 통해 결사 동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경우 최근 정진단 위치를 이동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참회 기도를 함께 병행 중이다.

결사, 어떻게 해야 하나

2600년의 장구한 불교 역사 안에서 나타난 결사운동은 현대 사회에 와서 더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사람들은 기존 사회 가치관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됐다. 문제를 감지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될지 생각해보게 됐다. 또한 원인과 결과를 따짐에 있어 딱 하나 원인을 짚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요건들이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게 됐다. 문제를 보는 연기적 관점을 사람들이 지니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문제점을 함께 찾고 해결해나갈 결사 운동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결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까. 불교계 인사들은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결사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결사 운동가였다. 기존 지배계급인 브라만을 부정했고, 중도의 길을 갔다"면서 "불교는 항상 현장에 있었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이래 수 많은 결사가 있었지만 근본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 '부처님처럼 살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현대의 결사도 이 같은 범주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과거에 결사라고 하는 것은 내적 응집력이 강했다.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결사체를 형성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결사는 가치의 확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다. 느슨한 원심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감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결사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결사운동은 탈권력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결사 방향은 권력이 없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참여 속의 개혁'이 초래할 정치화의 길과는 반대로 결사는 탈권력의 길을 걸어갔다"면서 "조직적 결사가 아닌 결사 정신이 살아 있는 결사를 해야 한다. '홀로 결사'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결사는 원력의 공동체다. 하나의 목표로 부단히 정진하는 힘을 가진 것이 불교의 결사다. 현대 사회에서의 결사는 부처님 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고 들었다.〈중략〉 무릇 부처님과 조사들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익히는 사람은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지혜로서 말씀대로 수행하면 그것은 스스로 불법의 도를 이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보조 지눌국사의 '권수정혜결사문' 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의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 인 성 초
통리원장 회 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7 전화 02)913-0751~4, 팩스 02)913-0755 | www.jingak.or.kr

‘수행 원력·개혁 의지’ 양 날개로 시대 변화 주도

역사 속 결사 어떻게 진행돼 왔나

결사(結社)는 동북아 불교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앙 공동체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결사의 범위는 신앙 공동체라는 관념적인 개념부터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도 결사는 변화를 위한 다짐이 담겨 있는 운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결사 운동은 어떻게 비롯됐을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동진시대 혜원(慧遠. 334~416)이 여산 동림사에서 맺은 백련결사를 최초의 결사 운동으로 본다.

동진 시기 불교계는 승단의 계율 문란과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권승들의 준동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승단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고, 이는 결사라는 형태로 이어졌다.

백련결사는 402년 혜원이 유유민 등 당시 지식인을 포함한 출재가 123명으로 시작한 결사로 이들은 무량수불(無量壽佛)앞에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염불 수행을 했다. 염불 수행을 근간으로 하지만 그 배경은 참다운 불교정신의 회복에 있었다.

이러한 결사는 중국 · 한국 · 일본 등 동북아 대승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됐으며, 새로운 수행공동체로서 정착됐다.

염불만일회로 결사 전통 시작

한국의 결사는 통일 신라기를 전후로 나타난다. 가장 유명한 것이 758년(경덕왕 17년) 발징 화상이 고성 건봉사에서 맺은 염불 만일결사다. 일설에 따르면 발징 화상은 염불 수행 29년만이 786년(원성왕 2년) 31명이 인로왕보살의 인도로 모두 육신등공(肉身騰空)해 왕생했다고 한다. 이 염불만일결사는 한국 결사운동의 효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후 8세기 무렵에는 오대산에서 국가와 관련한 화엄사(華嚴社) 등의 결사가 조직되기도 했다. 9세기 초에는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에서 순교한 이차돈을 추모하기 위한 결사가 이뤄졌다. 9세기 말엽에는 〈화엄경〉의 사경과 의상, 지엄 스님 등 화엄 조사를 추모하기 위한 화엄 결사가 유행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집권 이전에 교종 계통의 수정사(水精社) 등의 결사가 있었다. 수정사는 1129년(인종 7년)에 법상종의 진억 스님이 주도한 결사로 참법과 아미타 신앙을 표방했다. 고려는 불교국가였던 만큼 수정사는 왕실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개혁적 결사의 시원 정혜 · 백련결사

12세기 이후의 결사운동은 화엄종 등 여러 종파에서 다양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당시 불교계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결사는 개혁적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조 지눌 국사(知訥, 1158~1210)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천태종 요세 스님(了世, 1163~1245)의 백련결사(白蓮結社)이다. 지눌 국사가 개창한 정혜결사는 뒤에 수선사(修禪寺)로 사액됐다.

두 결사는 기존의 개경 중심의 불교계의 타락상과 모순에 대한 비판 운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 지식층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방불교적인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중앙 문벌 귀족을 대신해 이들 지방 지식층이 새로운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中 동진 혜원의 동림사 백련결사가 결사운동 시초… 동북아 불교 영향

통일 신라 이후 결사운동 활성화 염불만일회 · 화엄 결사 등 나타나 지눌 정혜결사 · 요세 백련결사부터 불교개혁운동 차원으로 승화돼

경허 · 구산 스님 등 결사 정신 이어 지금도 자성 · 쇄신 결사 등 진행 중

지눌 국사는 1188년 지금의 팔공산 거조사에 머물면서 정혜사(定慧社)를 조직하고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했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독자적인 사상을 확립하고 불교 쇄신운동에 나섰다.

지눌 국사가 선언한 ‘권수정혜결사문’은 지금도 되새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른바 결사의 ‘기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개경 보제사의 담선법회에서 도반 10여 명과 약속하기를 법회가 끝나면 마땅히 명리(名利)를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함께 결사하여, 언제나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가지런히 함에 힘쓰고, 예불하고 경을 읽으며 노동하고 운력하는 데 이르기까지 각기 소임을 나눠 일을 하자. 인연에 따라 심성을 수양해 (眞人)의 높은 수행을 따른다면 어찌 상쾌하지 않겠는가.”



송광사 승보전에 그려진 벽화. 보조 지눌국사가 정혜결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강진 백련사 전경. 고려시대 요세 스님의 백련결사가 이뤄진 곳이다.


2011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참회의 절을 올리고 있는 당시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 이는 자성과 쇄신결사로 이어졌다.

요세 스님의 백련결사는 처음에는 지눌 국사와 같이 수선(修禪)을 통해 불교계의 현실지향적 태도를 비판하는 신앙결사에 뜻을 뒀다. 하지만 교화 대상인 중생이 업장이 두텁고 근기가 낮아 수선만으로는 업장을 녹일 수 없다고 보고 정토사상으로의 전향을 결심했다.

요세 스님은 결사의 실천 방법으로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강조했고, 농민, 천민층을 포함한 피지배층의 호응은 매우 높았다. 요세는 날마다 염불했고, 입적할 무렵에는 원효의 징성게(澄性偈)를 쉬지 않고 외웠다고 전해진다. 특히 입적 당시 제자 천인과 나눈 대화는 요세 스님의 정토사상이 가지는 성격을 알 수 있게 한다.

“제자 천인이 ‘세상을 떠날 때 정(定)에 든 마음이 극락정토인데 다시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고 묻자, 요세는 ‘나는 가지도 않아도 가는 것이고, 저들은 오지 않아도 오는 것이다. 서로 감응하니 제법의 실상은 마음 밖에 있지 않다’ 라고 답했다”

〈백련사원묘국사비명 中〉

혼란의 시기, 결사를 주목하다

불교를 숭앙했던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시대에는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다 보니 결사운동의 동력도 함께 축소됐다. 물론 함허 득통, 석실 명안, 연담 유일 등에 의해 결사가 구성되고 향도, 계 등의 결사적 신앙체도 결성된 바 있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결사운동은 그 사상성이나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이전 시대의 결사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다만 이런 결사는 조선시대 불교를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조선이 몰락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결사운동에 불이 붙는다. 경허의 결사운동의 경우 지눌의 정혜결사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한편으로 창조적 변용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경 스님(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은 ‘지눌 정혜결사의 근현대적 계승 고찰’의 논문에서 효봉 스님과 구산 스님의 정혜결사 계승의 면모를 살폈다.

이를 통해 보경 스님은 “효봉의 정혜결사는 광복 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현대 정혜결사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면서 “효봉의 제자인 구산도 한국불교 정체성과 바른 승풍을 확립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이었다”고 평가했다.

근현대 결사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봉암사 결사다. 봉암사 결사는 1947년 10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봉암사에서 50여 명의 승려가 전개한 수행결사를 말한다. 법당과 전각에서 칠성탱화와 산신탱화를 뜯어내고 목(木)발우도 부처님 법에 맞지 않다며 부쉈다. 신도들에 대한 천도재도 지내지 않았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울력을 시행했으며 포살을 정례화했다. 이렇게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진행됐던 이 결사는 현 조계종단 재건의 밑거름이 됐다. 봉암사 결사 정신은 성철 스님의 법문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가 신심으로 부처님 법을 바로 지키고 부처님 법을 바로 펴서 신도들을 교화하면 이들이 모두 신심을 내 우리 스님들이 잘 안 살래야 잘 안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으나 궂으나 할 것 없이 이해를 완전히 떠나서 신심으로 부처님만 바로 믿고 살자 이것입니다.”

〈수다라 10집에 수록된 성철 스님 법어 中〉

최근에 와서는 조계종 종단 차원의 자성과 쇄신 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자성과 쇄신 결사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적폐와 부정적 관행, 외부 의존 등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을 통해 60여 년 전 ‘봉암사 결사’ 이후 한국불교사에 남을만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과 ‘붓다로 살자’ 결사 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를 마치고 진영 논리를 넘어서기 위한 ‘대한민국 야단법석’을 기획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혜원의 백련결사에서 봉암사 결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결사들은 대부분 무엇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이를 공감하는 대중들이 동참 · 실천하는 데 있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자는 일종의 자정 운동이 역사 안에서 결사가 보여준 의미이다. 이러한 노력과 동력들을 계승해야 하는 것이 후학들이 해야하는 일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현대불교 지령 1000호 기념 축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현대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모두들 저마다 자신의 능력을 다양한 자리에서 발휘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자신의 몫을 다하고자 할 때 가정이, 사회가 더 나아가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대불교신문은 20여년 긴 시간 동안 한국불교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본 종은 일붕 스님께서 정혜겸수 이사무애의 대승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위국애민하는 호국불교 이념을 구현하시고자 부종수교의 일념으로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을 개종하시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일붕스님께서는 한국불교을 세계화하고 세계불교를 한국화 하시겠다는 대원력을 세우시고 세계불교도들을 삼보에 귀의 단결하게 하여 세계평화와 세계인류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구제를 위하여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사상을 실천하고자하는 전불심등의 일념으로 일붕선교종을 지주종단으로 하여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여 세계만방의 불교도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환대속에 세계불교 초대법왕으로 봉대 받으심으로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천하셨던 것이다.
이러한 본 종의 활동과 존자님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다해주신 현대불교신문은 범 종단지로서 한국불교 외호의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로도 본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두루 살피어 불국토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부처님전에 기원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

이 사 장 경원
부이사장 일명
상임이사 혜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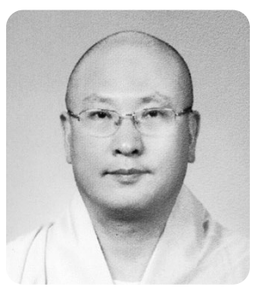
중앙종회의장 법선 / 호계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해 / 포교원장 현암
감사원장 석성 / 총무부원장 용운
중앙종회부의장 고봉

총무부장 승원 / 교무부장 경담
재무부장 일명 / 홍보부장 해동
총무국장 원공

교구종무원장
강원 보해 / 경기남부 대각
경기북부 도허 / 경남 승원
경북 법경 / 대구 고봉
대전 경담 / 부산 령산
울산 도현 / 전북 지명
제주 제법 / 충남 호원

현대불교 지령 1000호 기념 축사

1994년 창간부터 오늘까지 불교계의 근본문제로부터 발전지향적인 문제를 격동과 영욕의 세월 속에 숨 가쁘게 펼쳐진 1000호의 발행을 이룰 때까지 예리한 시각과 통찰력으로 포착해냄으로써 시대적 변화를 증언하고, 훗날 역사의 준엄한 연속성을 깨우치게 될 귀중한 자료로써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대불교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현대불교 창간 때부터 현대불교의 참신하고 진취적인 면이 있어 영구회원으로서 계속 구독해오고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 기념으로 발행하신 전국 전통사찰 안내지도를 소장하고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의 밀레니엄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훌륭한 길라잡이로서 희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오래도록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1000호까지 발행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대불교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전화 02)991-8175, 8904 / 전송 02)991-8176

나와 세상의 행복 발원하는 '결사정진'

불교계 결사 현장

사부대중이 모여 기도정진을 약속하고 개인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다양한 결사모임들이 있다. 이들은 과거 승가 중심의 결사에서 벗어나 사부대중이 주축돼 기도 정진을 약속하고 10000일, 1000일, 100일 혹은 10년 등 각각 기간을 정해 입재와 회향을 반복하며 기도를 점검한다. 결사자들은 정진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보현행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가 하면 사회의 변화까지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불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계 결사 모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만일을 목표로 108배와 명상 등을 하는 정토회 천일결사, 10년을 목표로 다라니경 독송을 하는 덕양선원, 염불선 천일결사를 다짐하는 금강정진회 등 교계 결사 단체 현황을 정리했다.

신성민 · 정혜숙 · 배현진 기자



정토회는 올 3월 23일 8차 천일결사에 들어갔고 지난 6월 29일 8-2차 기도에 입재했다.


동산반야회의 염불결사는 1998년 8월 5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결성식을 갖고 정진을 시작했다.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수행까지'는 2006년 염불선 천일수행 결사에 입재해 매달 1회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일산 덕양선원은 4월 18일 대비주 수행 기도 입재로 2차 10년 결사에 돌입했다.

사회변화 이끄는 정토회 '천일 결사'

1993년 10000일을 목표로 시작된 정토회 천일결사는 정토회를 이끄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만일을 천일로 나뉘고 또 이를 백일로 나뉘어 입재와 회향을 동시에 하며 결사를 다짐한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토회 천일결사는 현재 8차에 접어들었으며 2022년 12월 회향한다.

천일결사에 입문한 이들을 정토행자라 하는데 정토행자는 매일 아침 참회문 독송-108배 기도-10분 명상-경전 읽기를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선행 1000원 이상의 보시를 통해 세상의 나눔을 실천한다. 또 이 기도를 하는 정토행자는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세상에 회향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에 정토행자들은 100일마다 한번씩 모여 수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100일을 약속한다.

정토회는 올 3월 23일 8차 천일결사에 들어갔고 지난 6월 29일 8-2차 기도에 입재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국내외 정토회 회원 3703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신규 입재자는 773명이었다. 참석자들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명심문을 다짐하며 100일의 기도를 약속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아침 기도로 행복을 점검하자.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기도하면 된다. 보시와 봉사도 잊으면 안된다. 쓰고 남은 돈을 보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보시하자. 봉사 역시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 틈을 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자. 내일도 안 죽고 살아있으면 계속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이자"고 강조했다.

결사정신으로 뭉쳐진 정토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일주일만에 76만명 서명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00만명 서명 이후 지지부진하던 서명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끊임없는 정진 '염불만일회'

전국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는 승가와 재가가 함께 기도 정진해 성불하고자 하는 평생불교 염불모임이다. 염불결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정토화, 바른 염불수행의 자세, 끊임없는 정진 등이다. 염불이야말로 지금껏 선지식이 권해왔던, 깨달음으로 가는 쉬운 길이라고 말하며 쉽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온 염불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동산반야회 염불결사는 1998년 8월 5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서 결성식을 갖고 시작됐다. 회향은 2025년 12월 21일이다. 장장 27년 5개월간의 대장정이다.

염불정진은 1일 1만번 나무아미타불 정근 정진기도와, 대북과 징이 함께 하는 장엄염불 및 48대원 염불 등으로 이루어진다. 1만송 염불은 7차례로 나눠 매회 약 80분간 진행된다. 염불신행발표, 행선염불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안동일 염불만일회 회장은 "부처님을 생각하며 하는 염송은 곧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실천"이라며 "염불만일회는 불자들의 상생, 소통, 만남의 장인 동시에 깨달음과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말했다. 염불만일회원인 민병홍 씨는 "시시각각 나무아미타불을 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듯하다"며 신심이 돈독해짐을 고백했다.

매년 2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이번 8월 2일~3일 열리는 17차 염불대회는 치악산 자연학습원과 구룡사에서 개최된다.

일상 수행 실천 '정토사 만일염불회'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믿고, 실천해 정토세상을 구현하자'는 모토로 출발한 성남 정토사 만일염불회는 2000년 6월 결성됐다. 2027년 10월22일 회향을 목표로 하는 성남 정토사는 1만일 염불결사로 21세기 올바른 불교신앙과 새로운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상 속 바른 신행을 강조한다. 매일 1000번 나무아미타불 염송, 108배, 100원 이상 보시하기 등을 실천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일상 수행으로 부처님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10년 대비주 수행 '덕양선원'

일산 덕양선원(원장 법상)은 4월 18일 대비주 수행 기도 입재로 2차 10년 결사에 돌입했다. 지난 2004년 입재해 4월 6일 10년 회향을 마치고 12일 만에 다시 2차 10년 결사에 들어간 것이다. 덕양선원은 대비주 전문 수행 도량이다. 신도들은 늘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선정(禪定)을 연마하고 군법당, 교도소, 불우이웃을 찾아 보살행을 실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자성불(自性佛) 수행'을 하면서 지혜를 닦는 선교쌍수(禪敎雙修)를 공부한다. 또한 인터넷 카페 '덕양선원(cafe.daum.net/zeol)'을 통해 매일 자기가 정한 수만큼 대비주 독송을 하고 게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1차 십년 정진을 회향하고 2차 정진에 들어간 덕양선원 지심행 보살은 "자기 스스로 행복해져야 행복을 나눌 수 있다. 대비주 수행을 하는 동안 '나' 스스로 변하는 것은 물론 인연도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다. 물론 다가오는 고통도 분명히 있지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내느냐는 것도 공부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보면 자기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기도의 의미를 전했다.

염불선 천일수행 '금강카페'

故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는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수행까지'(회장 배광식, 이하 금강카페)는 2006년 11월 25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염불선 천일수행 결사를 다짐했다. 1천일을 100일 단위로 나누어 입재와 회향을 하며 현재 3차 천일수행 중에 있다. 회원들은 매달 넷째주 주말 철야정진을 통해 수행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지난 5월24일에는 100회의 정진을 맞아 의미를 더했다.

금강정진회의 수행은 보리방편문 읽고 외우기, 아미타불 염불, 보리방편문 사경, 절 등을 기본으로 하며 '사경수행기'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경후기를 남긴다. 현재 회원만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으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청화큰스님의 법어집, 번역경전, 불교서적 등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금강 강독회'도 운영중이며 올 6월부터 대학생 불교교리공부 모임도 시작했다. 또한 모임 개설부터 발원한 수행처 묘금륜원을 이번 6월에 완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배광식 회장은 "어떤 일이든 천일을 지속해야 그 일에 입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리방편문의 염불선도 마찬가지"라며 "수행을 지속하다보면 거울을 닦아 스스로를 비추어보는 효과가 있으며 업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길이 닿아야 할 곳은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 시대정신을 부여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불교이어야 합니다. 자성과 쇄신을 통해 60여 년 전 '봉암사 결사' 이후 한국불교사에 남을만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결사'의 정신으로 현재의 '민족문화수호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발표한 '자성과 쇄신 결사' 선언문 중 일부이다. 당시 조계종은 민족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의식, 편향된 종교적 이해와 종교 갈등 조장, 국민과 사회적 소통을 거부한 일방통행의 국정 운영 등을 비판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내부적인 자성론도 상당 수 존재했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 결사'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조계종이 이루고하자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봉암사 결사 이후 흐트러졌던 한국불교 승가의 위의를 제고해 조계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대중공의에 입각한 종단운영, 사부대중과 함께 하는 사찰운영을 통해 종단의 자주역량 확보하는 것이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수행 결사 △문화 결사 △생명결사 △나눔결사 △평화결사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을 통해 결사 동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경우 최근 정진단 위치를 이동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참회 기도를 함께 병행 중이다.

전국 결사 모임

결사모임	내 용	결 재	회 향	연락처
불교여성개발원	승만보살 10대서원 결사	2010년 2월 25일	계속	(02)722-2101
전국염불만일회	염불만일결사	1998년 8월6일	2025년 12월21일	(02)732-1206
정토회	천일결사(8-2차 진행)	1993년 3월	2022년 12월	(02)587-8990
덕양선원	10년 대비주 수행	2004년 4월6일	(2차)2024년 3월31일	(031)907-7172
정토사만일염불회	염불만일결사	2000년 6월6일	2027년 10월22일	(031)723-9797
불회사	다라니 100만념 1000일 결사	2010년 5월 28일	2013년 2월21일	(061)337-3440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순례 등	2001년 2월 16일	계속	(061)351-1950
문수선원	무비스님 화엄경 10년 결사	2010년 2월	2020년 3월	(051)508-3043
법왕정사	108배 만일결사	2002년 5월12일	2029년 9월19일	(051)583-7886
옥천사	능엄주 10만독 10년 결사	2008년 7월 5일	2018년 7월	(051)781-1744
홍법사	염불만일결사	2010년 10월10일	2038년 2월	(051)508-0345
백련정사	염불만일결사	2008년 11월 12일	2036년 4월	(055)382-7084
정수사	염불 · 절 정수결사	2009년 7월 5일	계속	(070)8884-0108
금강카페	염불선 천일수행	2006년 11월 25일	(3차)2015년 8월20일	010-9592-2438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산 현불
부 종 정 돈 오
총무원장 원 각

종정사서실장 보경

원 로 의 장 홍구 원로부의장 영암 원로의원 여산, 돈오, 금담, 혜승, 정효
종 회 의 장 청인 종 회 의 원 무영, 지연, 도안, 도행, 혜각, 금화
불교대학장 정효 중앙선원장 법천 법계고시위원장 여산 감사원장 혜공 의산장 성종 율원장 금담

총 무 원
수석부원장 혜천 / 부 원 장 혜월 / 호 계 원 장 남경 / 교 육 원 장 정수 / 포 교 원 장 보광 / 감 사 원 장 혜공 / 총 무 부 장 지광 / 재 무 부 장 도우 / 규 정 부 장 광덕 / 기 획 실 장 청인 / 의 식 부 장 해일
해외협력부장 무임 / 감 찰 부 장 혜암 / 문 화 부 장 지훈 / 포 교 부 장 지현 / 호 법 부 장 혜명 / 교 무 부 장 도현 / 사 회 부 장 지심 / 복 지 부 장 인덕 / 비구니회장 조명 / 비구니부장 금화 / 비구니총무 재범 / 선거관리위원장 혜원

지방 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무운 / 경기종무원장 고선 / 인천종무원장 일현 / 강원종무원장 서운 / 충북종무원장 진산 / 충남종무원장 혜명 / 경남종무원장 지심 / 경북종무원장 혜산 / 울산종무원장 혜광 / 대구종무원장 자은
대전종무원장 동우 / 부산동부종무원장 도성 / 부산서부종무원장 명종 / 전북종무원장 길윤 / 전남종무원장 성덕 / 제주종무원장 송덕 / 홍콩종무원장 무영 / 중국종무원장 선무 / 일본종무원장 혜령

이 사 회
회 장 백산 / 총 무 일경 / 재 무 무애 / 이 사 무상 일호 도림 무경

유발 승가단
비 구 무착 일찬 무공 경종 / 비 구 니 정각 수연 보화 자량 보덕 구련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부처님은 결사 운동가, 문제 극복위해 노력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바른 결사, 公業사회로 바꿀 수 있어
법현 스님(태고종 열린선원장)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결사 하는 것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장)





현대의 결사는 가치 확산에 방점둬야
조성택(고려대 철학과 교수)

결사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시작
김장실(새누리당 국회의원)





재가 신행 운동 통해 불교 변화 선도
유정길(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부처로 사는 것'… 현대 결사가 추구할 가치

한국불교 내일을 위한 결사는

결사(結社)는 뜻을 같이 하는 승속의 도반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결집체를 말한다. 한국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올바른 역사의 진전을 가로 막는 온갖 적폐들이 만연하는 그 결정적 고비마다 결사가 나타나, 단순히 신앙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불교 내부의 잘못을 혁신하는 정신문화운동으로도 확산됐다.

현대 사회는 결사 운동이 더욱 필요한 시대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까지 터졌다. 특히 이 참사는 사회 부조리가 모두 한데 모여 발생한 것으로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불교계 인사들은 '원력의 공동체' 인 결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결사 운동가였다. 기존 지배계급인 브라만을 부정했고, 중도의 길을 갔다"면서 "불교는 항상 현장에 있었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결사는 제대로 될 경우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가령 '붓다로 살자' 의 경우 사람들은 이 문구에 비춰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공감대 확산의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결사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슬픔을 공감하고 있다. 이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문제 그 자체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공감대의 확산은 느슨한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결사는 이 같은 공감대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김장실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세월호 침몰사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생명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오로지 물욕을 위해 살고 있던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사고에 대한 공업(共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 대한 참회와 각성과 함께 변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결사가 상존했던 상황에서 결사들은 얼마나 자신을 바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졌다.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결사라는 것이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결사란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온전히 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한다면 정신, 몸, 말의 업이 개선된다. 우리의 업이 바뀐다면 공업으로 이뤄진 사회 역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우 스님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불교 발전이 된다"고 말했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결사 운동의 주체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제대로 된 결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유 이사장은 "사부대중이 승가공동체의 중심이라면 출 · 재가자 구별 없이 불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다양한 결사들이 크고 작게 진행되며 결사 운동의 전통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대중의 공감

세월호 참사, 한국 부조리의 단면
사회 변화 동력인 결사, 필요한 때
이벤트 결사, 문제의식 결여 원인
'중도 · 연기 · 무아' 가르침 기본으로
결사에 매진해야 변혁 이뤄진다

대 형성에 실패하고 '보여주기 식' 결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결사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일어난 다양한 결사들이 전혀 확산되지 못했다"면서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밑바닥 정서에서부터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을 했지만 많은 재가자들이 줄을 서서 하지 못했다"면서 "전략이 아무리 우수해도 대중들의 참여는 저조했다"고 덧붙였다.

법현 스님은 "지금은 보여주기 이벤트 식에 머물고 있다"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결사다.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진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 1주일간 난상토론 끝에 구체적 실천덕목을 만들고 해야 한다. 결사 운동을 하는 주체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를 이끌고 있는 도법 스님은 "결사라는 뜻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지만 자성과 쇄신 결사는 중앙에서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본래는 말사 단위에서 결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집결돼 중앙으로 올라와 성찰과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조계종은 이러한 실력과 역량이 부족하고 풍토 조성이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결사는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결사는 곧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결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도법 스님은 중도 · 연기 · 무아의 가르침을 전한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가는 것이 결사의 근본 취지이며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발견하고 가르치신 것은 중도 · 연기 · 무아의 삶"이라며 "이들 가르침 모두 스스로 행복해지길 위해서는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삶이 곧 도량이다. 가르침에 따라 부처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불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이는 결사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붓다로 살자' 운동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의 실천론"이라며 "결사는 1000일, 10년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자그마한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 큰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은 "모든 종교 개혁가의 구호는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자' 였다. 종교 이념 그대로, 실천 강령 그대로만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면서 " '부처님 법대로 살자' 는 언제 어디에 적용해도 맞다. 다만 가르침대로 살아가되 시간과 장소에 맞는 지침을 통해서 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우 스님은 " '연기적으로 살자'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 등의 모토를 내걸고 함께 살기운동본부 등을 결성해 결사운동을 한다면 전 국민에게로 번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성택 교수는 "과거에 결사라고 하는 것은 내적 응집력이 강했다.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결사체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지금의 결사는 가치의 확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다. 느슨한 원심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감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실 의원은 "결사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시작한다. 더불어 지향점이 뚜렷해야 뜻을 같이하는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뭇 생명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살자' 고 설하셨다. 결사는 나부터 부처같이 살면서 이웃과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결사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력을 가진 공동체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쉼 없는 정진만이 답이다.

신성민 · 정혜숙 · 배현진 기자

성 명 서

- 선학원 임원진 제적원을 일괄 제출하며 -

조계종 중앙종회는 3년 이상 논란을 빚으면서 2013년 4월 1일 공포된 〈법인법〉을 제정 1년 3개월만에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폐기시키고, 2014년 6월 25일 선학원에 '선전포고' 까지 하면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재단법인 선학원은 만해 용성 남전 석두 도봉 스님 등이 일제 치하에서 민족불교 수호와 선풍진작을 위해 1921년 설립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계종은 100년 역사의 선학원을 온전히 지키며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법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까지 하려하고 있습니다.

선학원 선사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진 대한불교조계종 탄생의 공로는 사라지고, 선학원 스님들은 19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선 이래 지난 2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채 종도 아닌 종도로서 갑과 을의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학원 소속 스님들은 종단을 향해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일선에서 묵묵히 수행과 포교에 정진해 왔습니다. 또 종도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구차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종단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징계 등을 내세우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숭총림 수덕사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등에 업고 선학원을 장악하려는 저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 총무원장인 법장스님과 선학원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정혜사와 간월암을 비승가적인 방법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선학원에 대해 징계를 주장하고 있으니 여간 배은망덕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단이 그간의 합의정신을 깨뜨리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선학원을 압박하고 임원진에 대한 징계를 운운한다면 선학원은 더 이상 조계종에 몸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정화불사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을 탄생시킨 모태인 선학원의 역사와 법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는 집행부가 나온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선학원 임원진들은 제적원을 종단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수덕사는 법인관련 법 뒤에 숨지 말고 정혜사와 간월암을 원상회복하라.**
(3) **조계종에 선학원과 법인을 바르게 이해하는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대화할 수 있다.**

불기 2558(2014)년 6월 30일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진 일동

천불·천탑을 세우는 마음으로…

현대불교 1994년 창간부터 2013년까지

천불천탑의 운주사는 신라말기에 도선국사가 나라의 기운을 바로잡기 위해 세운 절이다. 천불천탑을 하룻밤 사이에 세우면 새로운 나라, 정토의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염원으로 도선국사가 기도를 올리자 천 명의 선동선녀가 내려와 불상과 불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닭이 울기 전까지 불사를 마쳐야 했다. 천불천탑이 거의 다 조성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불만 일으켜 세우면 되었다. 그런데 대사의 상좌가 일에 지쳐 그만 닭 우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러자 선동선녀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지막 와불은 서지 못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지령 제1호)를 발행했던 현대불교신문(주간)이 창간 20년을 맞고 지령 1000호를 낸다. 도선국사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 천불과 천탑을 세웠던 마음처럼, 현대불교신문 역시 한 주 한 주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부처님 말씀을 담아왔다. 운주사의 마지막 와불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으로 지령 1000호를 세상에 내놓는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희망찬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기를 염원하며, 현대불교가 지령 1000호를 내기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본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1994년 | 각계 관심 속에 창간

한마음회관 개관(사옥)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현대불교신문사 창립
현대불교신문 창간 기념 리셉션(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 볼룸)
10월 15일 창간호 발행(본지16면 특집 8면)

1995년 |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연중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우리는 불자 가정 스티커를 붙입시다' 캠페인 전개
차문화 대잔치 개최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 추진회 가입
교계 언론 처음으로 '법공양' 면 신설

1996년 |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모형 보급

연중캠페인 '새싹불자를 키우자' 전개
부다피아 홈페이지 개설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모형 보급

1997년 | 증면과 법보시 전개

연중 캠페인 '참회의 삶을 살자' 전개, 도선사에서 참회의 삼천배 하기 행사도 개최
'문화유산의 해' 기념 테마 기행 진행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신설
20면으로 증면 개편
법보시 운동 전개

1998년 |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 진행

깨달음보다는 '실천'을 강조한 '작은 실천 큰 기쁨' 캠페인 전개
고려대장경연구소 캠페인 '디지털 대장경을 만듭시다' 후원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 진행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신설

1999년 | 고승 기념 메달 제작

연중 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전개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공동(생명나눔실천본부) 캠페인 개최
국악 교성곡 '혜초' 공연(국립중앙극장대극장)
'우리 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 전개
근세 100년 고승기념 메달 제작 보급

2000년 | 붓다뉴스 속보 체제 가동

'자기를 바로 봅시다' 캠페인 전개
인터넷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개통
제1회 불교서적 독서 감상문 공모

2001년 | 문화 사업 눈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 전개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캠페인 전개. 도난문화재 실태 집중 보도
한국사찰정보 지도 안내 서비스 시스템 공동 구축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 전개
부다피아 정보통신부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선정

2002년 | 교계 최초 투섹션(28면)

나눔의 손잡기 '후원합시다' 캠페인 진행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및 대만 불광산사 순례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 전개
16면+12면, 28면 투섹션 지면 개편
신행수기 당선작 모음집 발간

2003년 | 32면 증면

붓다뉴스 개편
16면+16면, 32면으로 증면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공동 주최
야후에 붓다뉴스 독점 제공
'그리운 동문 찾기' 캠페인(대불련 총동문회 공동) 전개
한-인 수교 30주년, 인도에서 부처님 모시기 법회

2004년 | 간화선 중흥 선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전개
'한국불교 이것부터 달라져야 한다' 캠페인 전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법회' 진행
한마음선원 국제학술대회 후원
현대불교신문 창간호부터 전체지면 PDF 서비스 실시
나눔의 손잡기 운동 '2004 사회복지 언론인상' 수상

2005년 | 대법회 진행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진행(범어사 공동)
'제3회 불교와 사회 토론광장' 주관(불교지식인연대 공동)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주제 구국법회(안성 도피안사 공동) 진행
〈염불환향곡〉 최초 완역 발간
사옥 이전(서울 청운동 54번지)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공동 주최(마곡사)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진행(동화사 공동)
'빛고을 아카데미' 공동 주최(광주동구불자회 공동)

2006년 | 군포교 합시다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 전개
붓다뉴스 이메일 서비스 개시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월정사와 공동 주최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와 공동 주최
빛고을 아카데미 '팔상성도' 주제로 개최
본사 이전(서울 안국동 안국빌딩)

2007년 |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 전개(종립학교 신문 보내기 운동 전개)
'벽암록, 언어로 언어를 깨부수다' 석지현 스님 초청 강연 주최
원순 스님 〈원각경〉 특강 동영상 제작 보급

2008년 | 이상 시문학상 제정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캠페인 전개
'미얀마 중국에 자비의 손길' 캠페인 전개(조계종 공동)
'이상 시문학상' 제정 시상(시와 세계사와 공동)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호법캠페인 전개

2009년 | 현불닷컴 개설

'당신을 공경합니다' 지상 캠페인 전개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닷컴' 개설
라오스 공생 청소년 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 Dream 꿈 드림' 캠페인 전개
백양사 야단법석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개최

2010년 | 다양한 기획 연재

본사 이전(서울 수송동)
〈새로운 기획 연재〉
-조선불교유신론 100년(전보삼, 김광식 외) / 한국불교 승려열전(석길암)
-조기룡의 사찰경영학(조기룡) /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정찬주)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글=변택주, 사진=이종승)
2010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개최

2011년 | 붓다뉴스, 현불뉴스로 개편

연중 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전개
108염주 만들기 수행 캠페인 전개
'붓다뉴스' '현불뉴스'로 개편 오픈
〈새로운 기획 연재〉
- '초기불교 수행이야기(제따와나선원 일묵 스님)'
-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고영섭)'
- '서울 불교문화를 찾아서(김경집)'

2012년 | 도량을 아름답게 꾸미자

창간 18주년 산사의 별미체험 진행(진관사 공동)
'도량을 아름답게 꾸미자' 캠페인 전개(사찰조경연구소 공동)
〈새로운 기획 연재〉
-2013 대불련 50돌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 '경허 스님 수행일화'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 '나의 서원 나의 신행'(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 수상)
-여기는 화엄만다라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2013년 | 어린이 포교 선도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캠페인 전개(조계종 포교원 공동) 어린이불서 1,932권 일선 사찰 및 불자에게 법공양
'필리핀 태풍피해 주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캠페인 전개(조계종, 아르다운 동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공동)
〈나의 서원 나의 삶〉(연재 '나의 서원 나의 신행') 단행본 발간
〈새로운 기획 연재〉
-민족불교성지 선학원의 역사를 되짚다
-마음산업- '신행, 포교지도' 바꾼다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본사가 보급한 미륵반가사유상으로 수업중인 중학생들(1996)


하와이에서 진행된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2004.8)


부산 범어사에서 진행된 설선대법회(2005)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캠페인(2013)


마곡사에서 진행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선정대학원 개설 학인 모집

(사)한국불교 금강선원에서는 제천 금강사에 불교선정대학을 개설하여 활안큰스님을 모시고 선학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나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분, 선지식을 찾아뵙고도 문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 방황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사랑스런 상담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불교선정대학을 찾으십시오. 반듯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

■ **교육 기간 :** 2년 (수시입학 – 원서 제출 후 교재 교부) **9월 5일 오후 2시 개강**
■ **교육 방법 :** 통신교육으로 이수 (년 4회 특강 및 수련 실시)
■ **교육 내용**

① 부처님께서 실천한 위빠사나와 자비선 (慈悲禪)	② 직지인심의 달마선 (達磨禪)
③ 육조대사의 반야선 (般若禪)	④ 천태대사의 지관선 (止觀禪)
⑤ 화엄경의 무애선 (無碍禪)	⑥ 한국불교의 간화선 (看話禪)

※ 거리 및 기타 사정에 의해 기숙사에 들어와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인은 실비의 비용으로 공양 제공 및 독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1-14번지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4981
홈페이지주소 : http://kumgangnet.com (한글주소 : 한국불교금강선원)

■ **제천연락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금강사 내 한국불교선정대학 ☎ 043)646-3800

心 靈 治 療 (심령치료)

당신은 심령치료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노우"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석학이신 이희승 박사 편저 국어대사전에 심령요법에 관해 해설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학, 심령현상, 심령술에 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요법은 비 종교 행위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 심령연구에 관한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영국 캠브리지대학 몇 몇 대학에는 심령 연구생 제도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에는 심령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매우 뒤져 있을 뿐, 그나마 일본에서는 "일본심령과학협회"라는 간판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에 지부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초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 심령치료의 종류

① 재령에 의한 방법
② 인연 해제에 의한 방법
③ 영계 의사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령치료에는 접촉치료와 손바닥 치료가 있고 저마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약이나 물리적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심령술, 심령학, 심령현상 등 복잡한 내용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심령요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치료는 특수 능력을 가진 영모(靈媒), 영능자(靈能者)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의학 등 방법으로 못 고치는 분은 심령치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많은 분을 심령요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심령 연구발전을 위하여 학교선생님, 의사, 학자 등 사회 각계의 관심있는 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靑 岩 禪 院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2동 602-4호 **전화 02)992-8624**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미국동양학대학교 임직원 일동

www.aou.ac



본교는 한국, 중국, 독일에 현지어 교수진으로 19개 단과대학 88개 학과가 열려있습니다.

미국동양학대학교 2014 가을학기 학위학생 모집

본교는 2012년 12월 26일 사이버종합대학교로 인가, 2013년 2월 1일 개교, 2014년 3월, 19개 단과대학 88개 학과 증설인가로 각과 학사, 학사단축,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개설, 2년 4학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 12월 ~ 2015년 2월 중 Chea(전미교육위원회 www.caea.org)산하 Detc(사이버대학교 www.detc.org)의 가입기준 2년 기간 완료로 이 단체 가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본교가 진출한 한국, 중국, 독일 등 국가 외 세계적으로 인정됩니다. 본교는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사이버종합대학교**이므로 외국 학위에 따르는 여러분의 입출국 사실, 학기별 체류 증명 등에 구애받지 않으며,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본교의 사이버 수강으로 현재 계시는 곳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동양학대학교 학생 모집 (인증 / 학사 / 단축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 박사과정)

지원자 특전 내용 / 사이버 수강

- 원격통신(중간, 기말고사 등기우편 수발) 시험제 및 순환지도 교수제 실시 중
- 고교미필자, 본교 인증과정(3개월) 사이버 수학 후 소정시험 거쳐 정규학사과정 입학 함.
- 고교졸업자, 본교 단축학사(고시)과정 입학 후 1년 6개월(방학 없음)만에 졸업과 동시 정규학사학위 수여 함.
- 전문대 졸업자, 본교 편입 후 6개월 (MOU) – 1년에 졸업과 동시 정규학사학위 수여 함.
- 본교 MOU학제에 의거, 석사1년, 석박사통합 2년 6월, 박사 1년6월 수료 및 논문 심사 후 각 학위 수여 함.
- 본교 박사학위자, 교수 우선 임용 함.
- 본교 박사과정자 중 학기 불문, 제출논문 통과 시 선 학위 수여 및 교수 선별 임용(단, 학기제 완성 조건) 함.
- 본교 19개 단과대학 각 88개학과 명칭대로 학위명 부여 함.
- 본교 19개 단과대학 각 88개 전 학과에 학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인가 설치 됨.
- 각종 장학금 혜택, 미국진출 용이 함.

입학 문의 전화 : 한국 02-738-8683 / 중국 070-4642-8680 · 86 131 3000 3499 / 독일 +49-(0)6171-2788654

미국동양학대학교 '2014가을학기 학생모집 및 문화교육원 MOU '자아실현교실' 수강생 모집

미국동양학대학교 MOU '자아실현교실' 제 1학기(가을학기) 전문가 수강생 모집 요강

본교 평생교육원에 본교 정교원 교수진이 MOU를 통해 매 학기별 강좌를 다음과 같이 인도합니다.
아래 교수진은 본교 사이트 첫창 '학교소개'의 '교수진 소개'에 각 대학별로 그 학위와 존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양대학 술법교실** : 육임귀신술 / 육임사주술 / 사주적성술 / 풍수지리술 / 작명술 / 관상술 = 각 6개월 완성과정 **(효사 교수, 이내각 교수, 이동환 교수)**
***인문철학대학 교양교실** : 논어/문화인류학 각 6개월 완성과정 **(이문주 교수, 최인혁 교수)**
***예술대학 실습교실** : 서예 예서체/문인화 각 6개월 완성과정 **(김준태 교수, 한영수 교수)**
***전통문화대학 차문화예술 실습교실** : 티테이블셋팅 / 차소몰리에 / 유아차예절교육 = 각 6개월 완성과정 **(오양가 교수, 정승호 교수, 김현란 교수)**
***종교대학 논리교실** : 유식론 정해 6개월 완성과정 **(이청일 교수)**
***자연치유대학 수기치유 실습교실** : 카이프로락틱 6개월 완성과정 **(이상동 교수)**
***전통식품대학 효소발효교실** : 주류효소 실기 6개월 완성 과정 **(조규성 교수)**
***한방미용대학 피부미용교실** : 맛사지 실기 각 6개월 완성과정 **(조윤주 교수, 최진희 교수)**
***경영대학 실험교실** : 예측경영(주식 고저, 매도 매입, 낙찰 매매 등 판단 실기 / 국제경영 = 각 6개월 완성과정 **(효사 교수, 이승준 교수)**
***어문학대학 기본문장법 및 기초회화 교실** : 국어 / 영어 / 일어 / 중국어 각 6개월 완성 과정 **(박청희 교수, 김윤희 교수, 노후나바 무쓰꼬 교수, 강정숙 교수)**

문의 02)738-8683 이메일 aou.ac@aou.ac

본교 비영리법인 미국동양학대학교
Nauru Loop Susupe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 U.S.A 96950/ Po Box 10001

비영리법인 한국 미국동양학대학교 한국경영지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非營利法人 中國 美國東洋學大學校 中國經營支援會
中國 大連市 中山區 大公街 21路 中心裕景 1-3202

Germany Fa. S.U. Choi - S.I.A.
Julius-Brecht-Strasse 12, D-65824 Schwalbach/Ts., Germany

지령 1000호의 공덕으로 나날이 향상하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열악한 교계의 언론환경에서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불법홍포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현대불교신문 가족의 공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갈등과 다툼이 여전하고, 그에 따른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곳곳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와 비불자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읽게 하는 다정한 벗이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이렇듯 나눔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기여는 스스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선업을 잘 계승하여 더욱 깊은 감동과 활발한 정론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사시 구현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된 현대불교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은 언론을 통한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하여 천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해 왔습니다. 또한 불교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전 방위적 불법홍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교 교리 연구와 보급, 신앙생활, 각 종단 관련 단체 소식을 전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령 1000호를 맞이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우리의 정신문화를 더욱 높이고, 부처님의 진리를 가장 격조 있게 전할 수 있는 불교 언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정론직필로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천강의 달처럼 중생계에 법공양한 노고 치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1994년 10월 불교계 언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창간된 현대불교의 지령(紙齡)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20년 동안 중생계를 향해 법공양 올린 그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허공에 달이 떠 천의 강을 비추면, 강마다 달이 떠 천겁(千劫) 세상이 밝아지듯이 현대불교는 매주 환한 달을 하나씩 띄워 천겁 중생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현대불교는 매 호마다 시대를 통찰하는 혜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길을 열어 주었고 흥미롭고 유익한 기획으로 마음공부의 알뜰한 도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는 1000호의 내공을 디딤돌로 더욱 친근하고 유익한 신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초발심의 정진으로 '불교흥왕' 큰 뜻 이루길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그리하여 앞으로의 미래는 물질과 정신문명의 철저한 조화 속에서만이 그 상생과 발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막중한 책무와 함께, 이제 지령 1000호를 맞아 '불교 흥왕'이라는 큰 뜻을 품고, 초발심의 정진으로 매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서 계속해서 풍성하고 유익한 정보로 불자님들께 기쁨을 전해주시길 기대하며 현대불교신문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하여 복지구족 하시길 서원합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휘호

慧刀亂麻 혜도난마
正法實現 정법실현

"복잡하게 얽혀진 부조리들을
지혜의 칼로 모두 잘라버려
세상에 바른법을 널리 실현시켜라"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현대불교신문 지령 1천호를 축하하며 촌철살인 같은 깨달음의 휘호를 내렸다.
감로수같은 맑고 향기로운 글들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려 세상에 목탁같은 존재가 되라는 큰 가르침이다.

포교지 정체성 잃지 말고 함께 정진하자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천 번의 신문을 만들어오며 한국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1994년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은 불교계의 새 활력인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창간과 함께 불교서점 〈여시아문〉, 불교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를 구축해 불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바로 현대불교신문이 했던 불사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포교를 알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불교언론의 전범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지령 1000호는 미래의 시대를 열어가는 큰 전환점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국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당시 내걸었던 그 가치를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지령 10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끊임없는 정진으로 불교 발전 이끌어 주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현대불교신문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 써주신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현대불교는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하고, 그에 대한 심층적 해설로 다양한 기획물을 연재하며 불교 전문 매체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보도로 우리 사회와 종단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대안과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참 언론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 그리고 세계화를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하기를 바라며 한국 불교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현대불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시비비 정확히 가리는 정론지 되길 발원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과 지령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날부터인가 물질의 풍요가 복(福)된 인생인줄 알면서 살아온 날들이 허망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양의 한마음선원장 이셨던 대행 스님이 이 사회와 불교계에 횃불을 들어 어둠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등불의 원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능엄경〉에 견견지시(見見之時)에 견비시견(見比時見)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독자들에게 단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한 것은 솔직히 지적해 주는 언론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다양한 신행과 문화활동의 대변자 역할 당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현대불교신문의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창간하여 불교계에 첫선을 보인지 어느새 20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령 1000호 발간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날이 오기까지 한결같은 불심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여러분에게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은 다양한 신행과 문화활동을 비롯하여 정법의 대변자로써 문서포교, 인터넷 포교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행을 바탕으로 불교의 사회에 대한 참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끊임없는 포교에 앞장서길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 우리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대한불교 종정단 . 고승단 . 종단 . 대종사 .자문단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대한불교 종단총연합 협의회.

제 6회 7월 29일 각료 임명식 & 대종사 품수 수여식

오후 3시 정각 / 하림각 : 02)396-2442 종로구 부암동 162-3

각종단 종정큰스님, 총무원장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행이 필요합니다.

승려들의 수행 풍토 쇄신을 도모하여 불교의 질적 성장과 정화와 개혁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
1080명의 숨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각료 임명과

※ 350여 군소종단이 하나되어 합동 금강계단 품수를 지속적으로 봉행하고자하니 뜻이 있으신 스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장관급 각료 명단

불원 보각 혜승 대붕 도명 혜선 대풍 성각 지암 도암 혜월 현담 경오 영각 남륜 청운 돈조 보현 대경 도안 법상 도월 대연 혜운 송현 진관 지우 종선 도암2 능허 택봉 청산 성군 정오 법현 지암2 향운 보성 법성 송운 도언 경현 동월 법인 법광 제성 법지 송몽 법주 도일 구암 심오 혜광 석담 원광 청광 혜상 혜관 도경 성보 보명 현덕 보운 무량수 혜정 법조 해공 성범 지연 다정 구암 혜일 석장원 보현2 법용 지훈 법상2 각운 정음 선명 혜륜 혜진 이한규홍보실장 금조 목성 만근 외 500인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합장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법왕청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02)733-5671. H·P 011-229-6061



현재 한국에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동남아 불교권을 비롯해 명상을 위시로 한 서구불교까지 다양한 불교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2009년 조계종이 개최한 제1회 외국인승려연수에 모인 스님들의 다양한 가사장삼이 한국 속 세계불교의 현황을 나타낸다.

10여 불교국 활동… 수행법 교류 등 다양성 확보

한국불교에 진출한 국가는

한국불교가 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국가의 불교가 급속히 전파되며 글로벌화가 한국 속에서도 빠르게 진행중이다. 한국에는 현재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동남아의 남방불교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 중국 등 대승불교, 미국을 비롯한 서구불교까지 다양한 불교가 유입된 상태다. 이제 한국은 다양한 불교가 공존하는 '불교의 백화점'으로 불릴 날이 머지않았다. 이번 특집에서는 한국에 해외불교가 유입된 원인과 현황을 살피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해외불교 수행법 30여 곳서 교육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는 많은 종교와 단체가 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속에서는 세계불교의 여러 면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수행만 보더라도 간화선 중심의 전통적인 한국불교 수행법에, 위빠사나를 비롯한 남방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이 이미 섞여 보급됐다. 전통 한국불교 수행법 외에 위빠사나를 비롯한 해외불교의 수행법을 교육하는 선원과 단체는 전국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일본SGI, 명상과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구불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마하이주민단체협의회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진출한 해외불교 국가는 미얀마 등 동남아 7개국을 비롯해 몽골과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 달한다. 이들이 국내에 세운 사찰과 시설도 폭발적인 증가세다. 1990년대 2곳에 불과하던 법당은 2000년 이후 17곳이 세워지는 등 증가하고 있다. 네팔 용수사, 미얀마 담마두따 선원을 비롯해 전국 20여 곳에서 외국 사찰과 법당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미얀마 스리랑카 대만 등지의 외국인 스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한국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현지 사찰서 그 나라 불교를 배워와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연 사례도 있다. 남방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미얀마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2000년대 중후반부터 빠르게 늘고있다.

한국진출 국가 및 해외법당

년 도	국 가	시 설
1960년대	일본	한국SGI
1990년대 초	미얀마	담마두따선원, 미얀마전법선원, 담마두따센터, 부산 미얀마선원, 찌따수카 사원
1999년	대만	불광산사
2000년	티베트	티베트하우스코리아, 한국티베트센터 광성사
2005년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자비불자회
2008년	네팔	용수사
2008년	몽골	서울몽골법당
2008년	캄보디아	산본캄보디아불교센터
2010년	방글라데시	보타사
2013년	태국	붓다랑시법당, 왓파와나야
2014년	스리랑카	한국마하위하라센터

한국불교 영향 증대와 이주민 증가 주원인

국내에 해외불교와 관련된 법당이나 시설이 늘어나는 주 원인은 크게 한국불교 세계화의 영향과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만해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동남아로 불교유학을 떠난 불자들이 남방불교의 여러 수행법을 국내에 소개했다. 본격적인 증가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빠사나가 크게 유행하며 이와 관련된 센터들이 많이 건립됐다. 특히 해외포교를 목적으로 전국의 불교대학서 영어교육을 하는 미얀마는 인천 부평과 부산 등 전국에 총 5곳의 법당을 세울 정도로 한국에서의 포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얀마와 함께 대규모 유학생이 있는 대만도 1990년대 초부터 한국 포교에 관심을 가져 1998년에는 대만 불광산사 한국지부격인 사찰이 장충동에 법당을 개원하기도 했다.

세계 불교가 한국으로 빠르게 유입된 시기는 200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을 축으로 동남아 이주민들이 급격히 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법당이 건립됐다.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이들 것들은 모두 이주민쉼터 역할을 겸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노동자 계층인 이주민들의 요청으로 세워져 이들 법당은 운영난을 겪고 있다.

조종술 마하이주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이주민을 위해 세워진 법당은 여러 어려움이 많다. 중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해외사찰 법당을 지원하고 교류할 체계를 갖추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명상 붐 타고 서구불교도 인기

최근에는 서양에 전파된 불교가 마음공부와 수행 등으로 진화돼 오히려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2010년부터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의 고승들과 저명한 마음명상지도자들을 초청해 국내서 직접 수행법을 지도받는 단체가 많아졌다.

충남 천안 '호두마을', 서울 과천 '보리수선원' 김해 '반야라미' 등 대표적인 위빠사나 수행처를 축으로 사찰에서 명상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특히 한국 무용수 출신으로 출가한 붓다락키따 스님이 선원장으로 있는 보리수선원은 2013년 제1회 국제명상심포지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사찰과 단체에서 세계적인 명사들을 초청해 명상과 접목한 포교를 진행 중에 있다. 참불선원은 2014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세계적인 명상 수행승 아잔브람이 직접 지도한 세계명상힐링캠프를 열었는데 여기는 500여 불자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에 앞서서는 틱낫한 스님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한해 월정사, 중앙승가대 등지에서 대중강연과 명상수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서구불교의 특징은 명상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서 유행하는 'MBSR' 또는 '마음챙김에 바탕한 스트레스 감소'는 한국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데 이는 과학적이고 종교색을 배제시킨 점이 오히려 대중화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 이런 해외불교와 한국불교의 활발한 교류는 여러 측면, 특히 포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명상상담의 인경 스님, 자비명상의 마가 스님, 정목 스님 등 한국의 스님들도 명상을 활용한 포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권대식 조계종 국제팀장은 "이주민 포교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포교방법은 모국 사찰, 모국 스님에 의한 포교"라며 "포교 측면 외에도 수행법 교류 등 다양성 확보라는 점에서 해외불교 유입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 노덕현 기자

한국서 포교중인 외국인 승려, 약 400여명

진각종, 10여년 전부터 동남아 스님 초청 장학혜택



조계종 교육원이 2014년 4월 11~12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개최한 제3회 외국인 스님 연수에는 54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최근 조계사 인근에서는 외국인 스님들이 자주 눈에 띈다. 벽안의 스님들을 비롯해 외국인 스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2014년 기준 국내서 활동 중인 외국인 스님은 약 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이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한국에서 포교활동 중이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에 따르면 매년 60명 규모로 초청해 유학승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스님들의 비자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조계종에 출가를 신청한 외국인 스님들은 사미 · 사미니를 포함해 90여 명 정도다. 이들은 2011년부터 종단차원에서 화계사에 설립한 외국인 스님 대상 행자교육원에서 한글과 불교교리, 습의 등을 교육받는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행자교육 이수 후 승가대학에 재학, 정식 스님이 되는 외국인들은 약 40여 명에 달한다.

한국종단으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은 수행에 매진하는 한편, 템플스테이 진행 및 외국어 홍보자료 번역, 연구사업, 해외포교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한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으로 유학오는 스님들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비싼 학비와 생활비 때문이다. 학비는 승가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시 일부 장학혜택을 받지만 일정 수입이 없는 스님들로선 생활비 부담이 제일 크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계 종단중 진각종은 10여년 전부터 동남아 스님들을 국비 유학생으로 초청해 교육시킨다. 이들은 종단 교육기관이나 진각종서 설립한 일반대학인 위덕대서 공부를 한다. 생활비도 일부 지원돼 유학승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노덕현 기자

동해의 아침 햇살은
석굴암 본존불의 백호를 비추지 않았다!



혼신을 다한 20여 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석굴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1,300년 동안 한민족과 함께해온 국보 제24호 석굴암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석굴암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면,
석굴암은 머지않아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다

- 동해의 아침 햇살이 석굴암 본존불 백호를 비추게 한다
- 석굴암 돔 지붕 앞에 빛이 들어오는 창을 뚫는다
- 석굴암 바닥으로 샘물을 흐르게 해 법당 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석굴암 바닥 아래에 샘물이 흐르게 한다
- 석굴암은 본래 전면이 뚫린 개방구조였으므로 입구의 전각을 제거한다

석굴암, 법정에 서다
신화와 환상에 가려진 석굴암의 맨얼굴을 찾아서

성낙주 지음
408쪽
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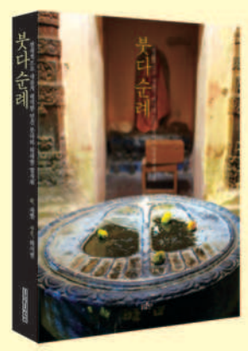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붓다 순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철학, 역사, 문화를 종횡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다

2012 문광부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 자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붓다의 생애!



글 자현 | 사진 하지권 | 352쪽 | 18,000원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놓아버림,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시공 불교사전』의 저자 곽철환이 '고'에서 '열반'까지 원고지 500매로 압축한 불교의 핵심!



곽철환 지음 | 192쪽 | 12,500원

다불교 현상이
한국 불교에 미치는 영향

한국불교 도전받으나 새 불교 '기회'

세계불교가 한국서 각축을 벌이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불교가 처한 '다불교적 상황'을 불교의 위기이자 기회로 보았다. 사실 전통불교가 존재하는 나라 중 한국처럼 해외의 여러 불교가 들어와 있는 예도 흔치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불교가 다불교적인 상황이지만 전통불교 국가는 아니다. 이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한국에는 조계종 등 기존 대승불교 전통 뿐만이 아니라, 상좌부 전통을 대표하는 태국과 미얀마 등지의 동남아불교, 티베트불교, 대만불교, 그리고 최근 서구불교까지 다양한 불교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서로 다른 수행법을 주장하고 불교사 이해 또한 각양각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불교적 상황은 한국인 특유의 개방성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한국불교에게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신행활동 지원

먼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스님들은 한국불교가 해외불교와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주민 쉼터역할을 담당하는 한국내 동남아 국가 법당들은 주로 2000년대 중후반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이들은 국내의 한국스님이나 사찰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 문을 연 경우도 있다. 그동안 해외불교와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더라도 스님 개개인이거나 개별 사찰의 포교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사찰 주지 스님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해외불교와의 교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언제 끊기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내 한국 사찰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법당 운영비 등 지원을 받는 사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주민들을 위한 법회를 꾸준히 열어온 한국 사찰도 있지만 손에 꼽을 정도다. 김포 용화사, 부천 석왕사, 안산 법흥사, 구미 대둔사 등 10여 곳도 안된다. 대부분의 사찰은 여전히 시혜적인 입장에서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다불교 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류협력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사찰들은 이주민들의 신행과 복지, 인권문제, 한국 생활 적응 지원, 쉼터, 한국어 교육이나 일자리 소개 등도 한다. 그래서 이들 법당과의 체계화된 접근이나 지속적인 교류가 절대 필요하다.

담마프렌즈 대표 담마끼띠 스님은 "상좌부 불교와 한국불교 간에는 엄격한 계율과 치열한 수행가풍 등의 발전적인 요소가 많다"며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불교와 이웃불교 간에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맏형으로 꼽히는 스리랑카 와치싸라 스님 역시 한국사찰과의 연계를 주장했다. 2004년 한국에 온 이후 10년 넘게 경기도 양주서 스리랑카 법당을 지키고 있는 와치싸라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자국 법당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는 불교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찰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램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불교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는 중국과 베트남의 법당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수많은 화교와 중국인 유학생, 베트남 이주민이 있음에도 자국 불교의 기반 부족 및 경제문제 등으로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웃종교의 경우 선교 차원에서 중국 화교들과 베트남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한국불교계가 갖는 관심은 미미하다.

외국인 스님들,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활용 필요

외국인 스님들을 적절한 곳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외국인 스님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스님들의 해당국에 가서 활동하는데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 오는 스님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와 불교계에서 어느정도 일정 수준을 넘는 인정받는 스님들이 많다. 이들이 가교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불교계와 NGO 등의 활동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진각종 종비 장학생인 위덕대 박사과정에 있는 스리랑카의 실라 스님과 네팔의 나빈 법사는 한국어와 자국언어 둘 다 능통하기 때문에 한국서 배운 불교 지식을 자신의 나라에 방학 때면 찾아가 포교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실라 스님은 국내 사찰 및 NGO 단체들이 현지 포교나 봉사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와 긴밀한 협약을 맺거나 교류하는게 효율적인 상담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앞으로 학술적, 문화적인 면에서 양국의 불교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이주민 쉼터인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스님도 "자국 스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며 "외국 스님들과 해외 불교로부터 한국불교가 호감을 얻게 되면 자연히 이들 국가에서도 한국불교를 알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수행법에 대한 연구 시작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다양한 불교와 한국불교 수행법 등을 함께 연구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미얀마나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 국가들은 위빠사나를 비롯해 남방불교 수행 특색을 살려 한국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해외불교의 수행법에 관심 갖고 배우고 있다. 한국 불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외불교 수행법을 배우기 위해 유명 스님들을 초청하거나 선원을 설립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이들 국가와의 불교교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각 나라의 불교특징과 수행법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갖는 만큼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질 때, 한국불교 역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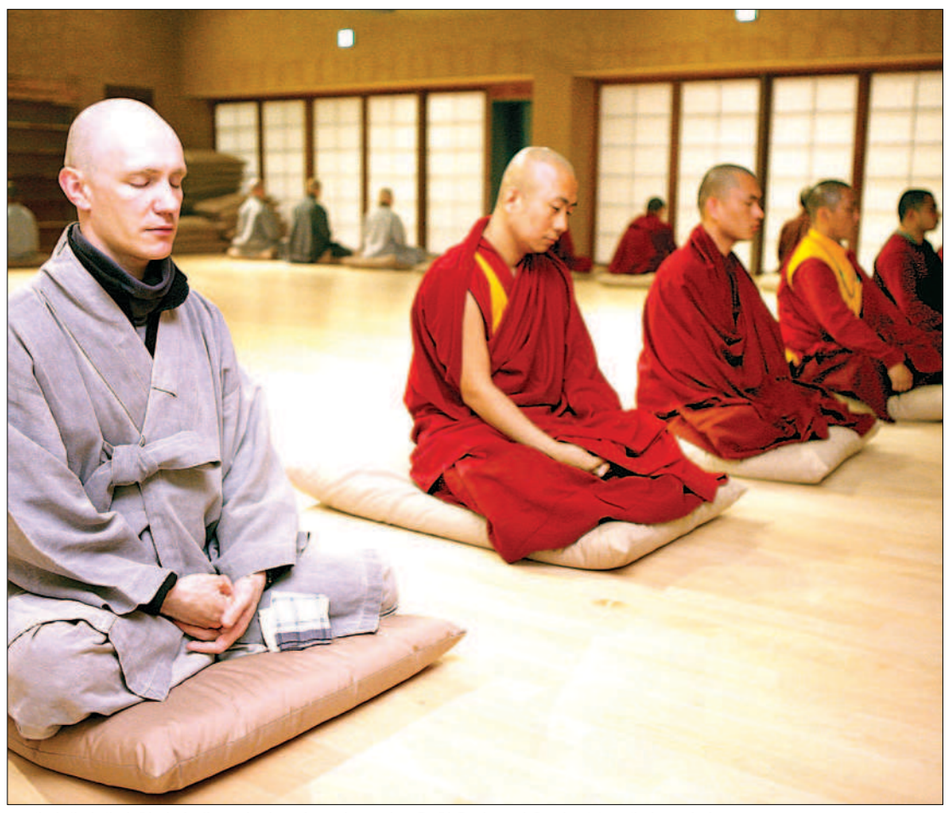
2007년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 있는 불자들을 지도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은 담마야나 선원장 아신 빤딧짜 스님은 "선불교 중심의 한국불교가 다양한 불교와 조화를 이룰 때 불교도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미얀마 유학생들과 불자들을 위해 담마야냐 선원을 설립하고 기초교리 강의와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이어 빤딧짜 스님은 "미얀마 불교가 성장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었던 점은 최근 젊은 불자들의 이론과 수행을 함께 병행하고자 욕구 등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다불교 시대를 맞아 모든 불교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 수행 정체성 살려야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불교가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란 과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명법 스님은 "한국의 전통 불교는 도전받고 있고 새로운 불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가 먼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명법 스님은 "최근 한국불교는 테라바다불교, 티베트불교, 심지어 미국불교 등 다양한 수행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혼란스러움을 줄 정도이며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전승된 전통불교와 충돌하고 있다. 한국불교가 이 다양성을 어떻게 회통시켜 세계의 여러 불교전통을 수용하면서 전통불교를 재해석하고, 동시에 현대성의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한국불교의 역사가 더 오래되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서로 배우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실험과 새로운 시도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 노덕현 기자


국제선센터에서 참선 수행 중인 외국인 스님들.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불교계의 몫이다.


2011년 마주협 아시아문화축제 중 조계사 탁발의 한 장면.


동두천 용수사에서 관불의식을 올리는 네팔 불자들


조계종 외국인 승려연수에서 대화를 나누는 각국 스님들

해외불교 문화 그대로 옮긴 한국사찰들 증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포교에 나서는 사찰들도 많다. 한국불교와 다른 독특한 매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은 용인의 관광명소인 와우정사(주지 해곡)다. 이색적인 정취를 뽐내는 와우정사에는 동남아 불교신도들이 몰려 2013년 만해도 태국에서 약 20만 명이, 중국 · 라오스 등 다른 불교국가에서는 10만 명이 찾았다. 불국사 연간 방문객의 3배다.

1970년대 지어진 와우정사에는 유서깊은 문화재가 없다. 그럼에도 외국 불자들이 모이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불교문화'를 느끼기 위해서다.

와우정사에는 인도에서 기증받은 향나무로 만든 와불, 태국국왕 취임 80주년을 기념해 태국 공주가 기증한 태국 불상, 8m에 달하는 초대형 불두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계 불자들이 가져온 돌로 현재 탑을 쌓고 있다. 와우정사를 찾는 불자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볼거리'라고 말한다.

인도 성지의 성소를 그대로 옮겨온 사찰도 있다. 인덕원 삼천사(주지 성운)에는 인도 아쇼카 석주를 본따 만든 세존진신사리4사자9층석탑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된 탑 안에는 1988년 성운 스님이 미얀마 마하시사사나 사원에서 모셔 온 진신사리가 있다. 세존진신사리4사자9층석탑은 현재 미얀마 정부가 지정한 세계 5대 불탑 중 하나로 꼽힌다.


태국 양식의 용인 와우정사의 불두

탑은 지역 성소로 많은 순례객들이 찾고 있다.

아예 해외불교계와 협약을 맺고 불교성지를 한국에 조성하는 곳도 있다. 용인 보문정사(주지 덕산)는 미얀마의 세계적인 불교유적인 쉐다곤 파고다를 한국에 짓고 있다. 미얀마 불교계와 협약을 맺고 현재 '세계평화황금탑'을 세우는데 100억 원이 넘는 불사금 중 30%는 미얀마의 불사추진위원회가 담당한다.

일제 시대인 1913년 지어진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일제시대 아픈 기억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조동종 운상사(주지 이치노헤)와 함께 일제의 수탈과 이에 동조한 일본불교계의 만행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2013년에는 일본 조동종의 사과를 담은 참사비를 경내에 세운데 이어 최근 '침탈사료 기획전'을 여는 등 역사의 현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KBUF 대학생 여름캠프

2014 KBUF Young Buddhist Camp

2014. 8. 14. 목 ~ 17. 일

전등사, 보문사 및 강화도 일대

주요내용 | 사찰순례 〈전등사, 보문사 등〉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야단법석 뭘 상상하는 거야? 〈19 붓다〉
청춘을 노래하라 〈별빛문화재〉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있나? 〈청춘강연〉

참가대상 |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
참 가 비 | 10만원 (14학번 20% 할인, 7월 17일(금)까지 환불가능)
입금계좌 | 농협 053-01-252868(예금주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청문의 | 전 화 02-732-0239
홈페이지 www.kbuf.org
이 메 일 ilovekbuf@hanmail.net
페이스북 facebook 대불련

후원계좌 : 농협 053-01-252868, 국민 023-01-0565993 (예금주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금은 대학생 포교를 위해 사용되며,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Korea Buddhist University Federation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극락도 지옥도 자신이 만든다

법 신 ⑤

결정이 안 돼서 인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죠. 또 결정이 안 되는 원인은 이 색신을 내라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리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고집쟁이라. 고집쟁이. 에이것도 보니 자성이 없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면 말이죠. 가만히 보니 죽고 산다는 것이 물거품놀이로구나. 이래서 한 번 고집을 부려 봅시다. 우리는 고집쟁이가 한 번 돼 봅시다.

일전에 말하기를 손가락 까딱까딱하는 거로써 예를 삼는 거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도 한 번 여기다 직심로. 그러면 직심로의 노두는 어디인고? 애천이, 말해 봐라. 노두. 직심로의 노두가 어디 있노?

니 마음에 있지 않나? 노두. 노두가 있고 길머리가 있고 길 끝이 있잖아요? 직심로로 달리는, 직심로의 길 노두, 길머리, 첫 출발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심로를 찾는 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수고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노두를 찾으려면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하니 노두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니 직심로를 찾으세요. 그래서 직심로에만 턱 올라서면 끝 가는 데가 그만 심성공항이라. 심성공항에 가면 파란 눈을 해가지고 석가모니불이 핸들을 딱 잡고 있는데 비행기가 어디 하나 둘뿐인가요?

팔만사천대의 비행기가 기다려요.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턱 집어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예사로 듣지 마세요. 예사로 듣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원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성이 없으면 이런 사람의 몸을 못 나툽니다. 그 불성이 사람의 몸을 나투었어.

그래서 색신에 휘둘리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색신에 휘둘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면 색신을 내가 잘 써. 잘 쓰긴 쓸지언정 여기에 휘둘리지 아니 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심성공항에 들어서는 겁니다. 직심로에 바로 올라서는 겁니다.

직심로일 따름이다. 자, 외도야 너도 오너라. 사도야 너도 오너라. 외도 사도. 사람으로서인 외도요 사람로서인 사도이지 다른 거 어디 있습디까? 상관없어요. 다 몰라서 그런 건데.

사량과 분별은 금물이다. 앞생각을 끊고 뒷생각을 안 놓으면 그만이다.

앞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거 다 실답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놓지 마라. 한 생각을 놓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무당아, 너도 오너라. 판수야, 너도 오너라. 평등성 중에 너와 내가 따로 없거늘 어찌 너로 하여금 차별을 할까 보냐. 부처님 앞에는 오로지 생사고해를 떠도는 불자들만이 있을 따름이니 한 번 땅을 굴려서 몸을 뛰쳐라. 시호시호가 부재래로다. 어허! 청산이 구름 속에 있느냐 구름이 청산 속에 있느냐!

> **부처님이 여러분 속에 있나**
>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에 있나**
>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
> **천하를 둘로 나눠도**
> **한 항아리 가운데이다.**
> **이 소식처에서**
> **삼악도가 뒤집히니**
> **지옥이 부서진다**
>
> **극락세계는 자신이 만들어간다**

여러분이 허공 속에 있는가요 허공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요? 여러분이 부처님 속에 있는가요 부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요? 이리 말하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 속에 있는가요, 부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가요? 어디에 있는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소. 청산이 구름 속에 있느냐 구름이 청산 속에 있느냐.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미타회상무인사(彌陀會上無人事)하니 양분천하일호중(兩分天下一壺中)이로다.

미타회상에는 한 도가니 속이다. 하나를 둘로 나눠도 한 도가니 속이다. 니다 내다 해도 한 도가니 속이다, 밉다 곱다 해도 한 사람의 놀음놀이다.

번역하여 미타회상에 인사가 없으니 천하를 둘로 나눠도 한 항아리 가운데이다. 이 소식처에서 삼악도가 뒤집히니 지옥이 와지끈 부서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듣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죽어서 극락세계 가야겠다. 극락세계 지 극락세계인가?

지 극락세계 지가 만들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 소식을 알아.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라는 이 소식. 이 소식을 알면 그래서 직심로를 향해서 심성공항에 가서 제트기를 올라 타 버려. 타면은 이 소식에 지옥이 와지끈 무너져. 지옥이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그렇거든. 붙을래야 붙을 자리가 없어. 지옥이니 천당이니 하는 것은 모습에 들어붙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붙느냐 그 말이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학적 아니에요? 이렇게 이론적 아니에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수순'

⑨항순중생(恒順衆生)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我常隨順諸衆生 盡於未來一切劫
恒修晋賢廣大行 圓滿無上大菩提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 u
面見彼佛阿彌陀 æ 得往生安樂刹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참으로 이런 대문에 이르러서는 감격의 눈물이 안 난 달수가 없다.

여기서 수순(隨順)이라는 말이 있다. 수순이란 남의 마음을 맞추어 나간다. 그의 마음을 맞추어 주고 그로 하여금 흡족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 나간다는 뜻이다. 마음을 맞추어 그가 흡족하도록 받들어 섬긴다는 것이지만 이에는 대별(大別)하여 두 가지의 큰 뜻이 들어 있다. 첫째 명법비무(明法非無)다. 이는 원효대사의 말씀이다. 진리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는 뜻이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아무데도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항용 이런 의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진리란 대의(大義)다. 의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처럼 왜곡한다든지 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대의고 뭣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나, 윤리고 뭣이고 다 부질없다 하는 이를 테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는 허무의식을 불교서는 악취공(惡取空), 또는 악취공견(惡取空見)이라고 한다. 왜곡하여 그릇되게 못쓰게, 없다는 견해를 취하여 망녕되이 데카당스해져 버려 해괴한 일들만 한다. 예컨데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우리네의 요즘 세태는 이런 데서 빚어진 것이다.

악취공을 여의고 대의가 있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해야한다.

그 다음 둘째는 현법비유(顯法非有)다. 진리는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딱딱하고 옹색하고 그저 무작정 고지식하게만 구는 것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잘 알도록 드러내 보인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이것을 한다. 나 아니면 아무도 이를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한다는 거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것은 공(空)이다. 자기가 한다는 것을 코에다 걸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남은 못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허한 일이다. '나' 라고 하는 집착에 빠져 있다. 아상(我相)을 내세우는 것은 유(有)다. 공과 유의 양 극단은 여의어야 한다. 나는 대의를 지켰다고 대의를 내세우는 것은 벌써 이를 그르치는 것이 된다. 충무공(忠武公)이 어디 나는 충신 노릇 했으니까, 나는 이렇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리 없다. 나는 나의 할 노릇을 하였다. 나라는 위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 일을 하여 왔다. '그저 그런 것이다' 라고 알았을 것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해다느니, 나는 결코 그릇된 일은 안 해야 되겠다느니, 그런 때 끼인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수순(隨順)인데, 중도(中道)에 가장 맞는 순합(順合)한 것이라 하여 순중도리(順中道理)라는 것이다. 중도에 맞는 견해와 그러한 지경, 그러한 행동을 수순이라고 한다. 남의 마음을 맞춘다는 이 수순이 얼른 생각엔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듯 어려운 것이다.

> **내 옳다 주장하면**
> **허하고 '空' 하다**
> **아상 내세우면 '有'**
> **공과 유의 양 극단을**
> **버려야 한다.**
>
> **중도에 맞는 견해와 행동**
> **즉 '수순' 이 필요하다.**

'나는 일체의 겁이 다하도록, 앞으로 늘 중생을 수순하련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히 중생이란 말을 써 왔지만 여기서 한번 이 중생을 놓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흔히들 모든 사람들 할 때 중생이라고 쓰는 것이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무릇 생명 있는 것들이라는 본래의 뜻대로 중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종류를 따라 구별해 본다면 그것조차도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것이다.

사람의 이름도 숱한 것이지만 벌레의 이름도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데 모기, 잠자리, 누에, 때까치, 하늘소, 달팽이 하는 따위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 파충류에 중에도 뱀 족속 안에 독사, 너울때, 코부라, 비단구렁이, 까치독새 하는 투로 또 다르다. 네 발 짐승이라도 범, 토끼, 고라니, 사슴, 승냥이 등등으로 명호가 모두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심성(心性), 심리 상태가 유별하게 제각각이다. 그들의 지식, 알음알이가 또한 다르다. 참으로 각양각색이라지만 여러 가지로 무한량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중생들의 하고자 하는 것, 또는 즐거워하는 바의 욕락이라는 것도 갖가지 종류가 있다. 마음씨도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질고 착한 사람, 골똘한 사람, 산만하고 허명무실한 사람, 활달한 사람 등 그들의 의식작용과 행동도 억만 가지다. 위의도 천태만상이다. 옷 입는 것만 하더라도 영국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이 다들 특색이 있고, 우리 동양에 있어서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모두 다르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 옷 여자 옷이 다른 것이며, 남자라도 노장층의 옷과 청년층, 소년층, 소년, 유아들의 옷이 또한 같을 수 없다. 학생복이라도 국민학생, 중학생, 대학생, 여학생 복이 다른데다가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 또 디자인을 달리하였다. 음식도 제 각각이다.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삼고 빵 같은 식물성 음식은 그들의 부식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식물성인 전분질이 주식이고 고기 같은 것이 오히려 부식이다. 중생의 먹이도 제가끔 본능적으로 먹는 것인데도 소 같은 것은 풀을 뜯어 먹거나, 여물죽을 먹거나, 하는 투로 많은 종류로 나뉜다. 중생들이 사는 곳이 또한 갖가지다. 딴 것들은 차치하고 사람만 치더라도 마을이며 몇 집 안 되는 부락, 성읍,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면(面)이라, 동(洞)이라 이(理)와 무슨 부락또, 시 · 읍(市邑), 직할시, 특별시, 각도(各道), 군(郡)하는 따위의 행정 구역이 있다. 살고 있는 집도 대궐 같은 집, 저택, 문화주택, 한옥, 오두막, 별장, 판잣집, 빌딩, 아파트 하는 따위 중생이 사는 생활양식을 하나 하나 들먹인다면 한정이 없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일공



언론불사의 그 막중한 사명을 다하며..
지령 1000호 발행의 큰 성과를 이루신 현대불교신문에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처님 혜명을 바르게 펴는 불교언론의 역할은 한국불교가 바르게 정진하는 크나큰 힘입니다. 구석구석 두루 살피고,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불국정토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온 20년의 성과는,현대불교신문만의 성과가 아닌 한국불교 전체의 큰 성취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세계불교 법왕청
대승정 목탁



오늘은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런 날입니다.
창간된지 어언 지령 1000호 불교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새 역사의 횃불 역할을 해온 정론지로써 살아있는 산 증인이요 역사였고 불교인들의 지팡이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불교계 최고의 언론지로 우뚝 서 오늘에 이른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사랑과 자애로운 미소를 듬뿍 받으시는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혼탁한 사바세계에 탁마의 붓이 되고 중생들의 고통을 나누는 불교정화, 정신개혁의 주역이 되길 기원하며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4〉

"편지를 산중 보배로 삼겠네"

제자 탄허에게 보낸 답서

보내온 글을 거듭 읽어보니 참으로 좋은 일단의 문장이요 필법이네. 구학문(舊學問, 漢學)이 파괴되어 가는 이 때에 그대의 문장을 보니 기지(機智)와 표현, 그리고 의미가 대단하네. 어쩌면 이리도 불승(佛僧, 한암)을 매혹시키는가. 먼저 보내온 편지(1차 서간)와 함께 여기 남겨두어 산중의 보배로 삼고자 하네.

공(公, 탄허)의 재주와 덕은 비록 옛 성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찬미하여 마지않을 것이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없는 듯이 하고, 가득 차 있어도 비어있는 듯이 하니, 어느 누군들 그 고매한 모습을 경앙(景仰)하지 않겠는가.

나는 평소에 시(詩)는 잘 읊지 못하지만 이미 마음달이 서로 비추었으니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기에 거친 글을 지어 보내니, 받아보고 한 번 웃으시게.

한 암

이 편지는 제자 탄허 스님에게 보낸 두 번째 답서이다.

내용은 탄허 스님의 문장을 극찬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문장만 극찬하는 것이 아니고, 기지(機智)와 표현, 그리고 의미도 대단하다는 말씀이다.

"어쩌면 이리도 불승(佛僧, 한암)을 매혹시키는가. 먼저 보내온 편지(1차 서간)와 함께 여기 남겨두어 산중의 보배로 삼고자 하네."라는 말에서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도 더욱 겸손하니 그대의 학문과 인격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암선사는 제자 탄허 스님이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시쳇말로 '뽕' 하셨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마음달이 서로 비추었으니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기에 거친 글을 지어 보낸다"는 대목은 지음자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다. 장래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맺어지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이 편지 역시 원본도 복사본도 없고 보낸 날짜도 없다.

탄허 스님이 입산(1934년)하기 이전이므로 1932년~1934년 사이에 보낸 서간이다. 탄허 스님이 외우고 있다가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것이다.

제자의 문장에 감탄, 극찬

탄허와 사제 인연 예견

서울 칠보사 석주(昔珠)스님에게 보낸 답서

오늘 보낸 편지에서 은사 화상님(南泉스님)이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없이 놀랍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조문하지 못하니, 실로 평소에 서로 경애(敬愛)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오랫동안 병으로 칩거하고 있어서 뜻대로 가지 못하는 형편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범망경)에 토(吐)를 달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겨우 마쳐서 보냈습니다. 상권의 글 뜻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글을 읽기가 어려워 억지로 붓을 대어 토를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성현(聖賢)의 뜻에 맞지 않는 곳도 있을 수도 있으니, 깊이 연구하고 또 생각하여 다른 고명한 선지식에게 묻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만 줄이옵고 답서를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병자(1936년) 5월 5일

도우(道友) 한암은 절하고 답서를 올립니다.

이 편지는 서울 칠보사 석주(昔珠) 스님에게 보낸 답서로, 1936년에 보낸 편지이다. 내용은 석주스님의 은사(恩師)인 남전(南泉, 1868~1936)스님 입적하셨는데도 다비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미안하다는 것이다.

남전 스님 다비식 불참 양해 부탁

"〈법망경〉 토달기 너무 어려워"

남전스님과는 평소 교류를 갖고 있었고, 그 제자 석주 스님과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석주 스님이 토를 달아달라고 부탁한 경전은 〈범망경〉인데, 범망경 상권의 내용이 매우 어려워서 토를 다는데 힘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솔직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남전 스님은 한암선사보다 여섯 살 위이다. 선배이기도 하지만 남전 스님은 대단한 선승이었다.

선학원 창건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남전 스님의 묵(墨, 글씨)은 근대 고승가운데는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남전 스님의 글씨는 보기 극히 드물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호불 홍법은 불교 언론의 의무 대중교화 콘텐츠 개발해야"

불교 언론 기자 1호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언론은 모름지기 불교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대중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불법홍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호불홍법(護佛弘法)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불교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것이 불교 언론의 의무죠."

현대불교 신문 지령 1천호 특집을 맞아 불교언론 1호 기자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송 교수는 1964년 조계종 종단지 대한불교(현 불교신문)의 첫 공채기자로 입사해 불교언론의 기틀을 다졌다. 대한불교 기자、편집국장、주간、논설위원, 〈불교사상〉 주간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던 송 교수를 통해 불교언론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았다.

동대 학보사에 들어가다

송 교수는 어린 시절 충남 태안 안흥의 태국사 인근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스님인 까닭이었다. 유학자였던 할아버지는 자식 셋을 두고 어느날 홀연히 집을 떠나셨고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삿갓을 벗으니 삭발이었다. 그 시간 동안 마곡사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수행을 해왔던 것이다. 태국사는 그의 할아버지가 주지로 있던 절이었고 그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송 교수는 친구들에게 '중중 까까중' 이라는 놀림을 받아야 했다.

태국사가 위치해 있던 안흥은 갯벌이 있던 어촌마을로 주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청년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쳤고 어린 송 교수는 그 언저리를 맴돌며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익혔다. 하지만 6.25 동란 당시 할아버지는 장티푸스로 사망했고 그의 집안도 용인으로 이사해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는 용인의 수재로 통했고 문학청년을 꿈꾸었다. 담임선생에게 문학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담임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권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3년 내내 우등생이었던 그는 동국대를 들어가면 1년 장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망설였다.

"당시 담임선생님은 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문학을 하려면 불교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동국대를 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할아버지가 스님이셨기에 불교학과에 들어가면 불교 집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담임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불교대학과를 선택했어요. 당시는 철학과가 불교대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불교와 철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불교학과 보다는 철학이 덜 불교적이라 생각했죠. 나름의 타협이었어요. 또한 학비가 면제 되니 집안 어른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요. 여러 이유로 결국은 동국대에 입학했으니 저의 운명은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나 봐요."

스님이었던 할아버지 따라
태안 안흥 태국사 근처서
불교문화 몸소 체험하며 성장

동국대 입학 불교·철학 공부
동대신문 기자로 4.19 등 취재
'대한불교(불교신문)'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주필 등 역임

불교의 대중화·현대화 위해
월간 〈불교사상〉 창간

어린시절 집안의 영향으로 그는 늘 불교 속에서 자랐다. 주변에는 항상 불교 잡지가 있어 흔히 읽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이 모두가 절집안의 손자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스님이라고 놀림 받던 것이 상처가 되기도 했기에 불교학과보다는 철학과에 마음이 더 갔다고.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자 그에게 또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동대학보사에 기자모집 공고였다.

당시 급료가 나왔던 동국대신문사의 기자는 경쟁이 치열했다. 무려 70대 1의 경쟁을 뚫고 동국대신문사 기자로 당당히 들어갔다. "당시 4명이 신입기자로 뽑혔는데 방송작가로 고승열전 시리즈를 쓴 윤청광 등이 동기였어요. 정말 4년을 열심히 취재하고 신문을 만들었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4.19민주항쟁과 5.16군사정변 등이 일어났죠. 역동의 세월 속에서 학보사 기자로 현장을 누비고 다녔어요. 특히 제가 입사 4일만에 4.19가 터졌는데 저는 학생으로 데모대에 참가하면서 기자로 취재를 겸했죠. 제 생애 최초로 쓴 기사가 1면 톱으로 가는 영광을 안았죠. 제목은 '피 묻은 민권은 민주주의로 가다' 로 기억합니다."

'대한불교(현 불교신문)' 공채기자 1호

이렇게 학보사 기자로 4년 동안 치열하게 현장을 누빈 송 교수는 해외특파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한불교 기자를 선택한다. "당시 경향신문 1차 시험에 붙고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한불교 기자 공고가 났어요. 당시 대한불교는 대단한 재력가였던 사업가 이한상 거사가 인수해 새롭게 경영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죠. 이한상 거사는 숭산 스님의 법제자로 삼보학회를 조직하고 대학생불교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신심이 깊은 분이셨어요. 그때 대학선배였던 박성배 교수가 대한불교를 추천해주었어요. 불교를 알면서 신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가 적임자라는 거예요. 주변의 권유로 특파원이 꿈이었던 제가 대한불교 공채 1호 기자로 입사하게 됐죠."

대한불교 신문은 불교에 대한 포교와 홍법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입장을 사회에 대변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 그가 기자로 근무한 4년 동안 가장 보람되게 생각한 취재가 바로 '숨은 불자를 찾아서' 다.

"당시 불교는 치마불교 보살불교라는 말로 폄하를 당했죠. 저는 분명 신심이 깊은 지성인들도 있을 텐데 드러나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교양과 지성을 갖춘 불자들을 찾아다니는 기획을 하게 됐죠. 첫 취재가 바로 김용배 육군참모총장이었고 이후 김동익 서울대 병원장, 서돈각 서울대 법대 교수 등 많은 불자들을 취재했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 신문에 나오자 독자들도 매우 흡족해 했고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다며 기뻐했죠. 저도 덕분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불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죠.."

또한 그는 조계종 5대 종정 효봉 스님의 입적 당시 법구(法軀)라는 말을 최초로 고안해 내기도 한다. "당시 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스님의 시신을 무엇이라 불러야



1970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과 함께



동대 전산원 원장으로 이사장 일행과 자매교인 일본 동북전자 전문학교 방문



월간지 '불교사상' 창간호 표지

지장보살님께서 대한민국 대구에 무량의 가피를 드리우시다!!

현지사 대구분원은 왜곡된 세계불교를 바로잡고 21세기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는 영남권의 중추적인 정법 도량이며, 불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험한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기도로 아들의 허리디스크가 완치되다

허리가 안 좋은 아들이 작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통증이 심해 쓰러졌는데 국군통합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허리디스크로 판명이 났습니다. 디스크가 파열되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수술 스케줄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제일 먼저 현지사 대구분원에 전화를 드려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를 올리고, 그날 뜬눈으로 밤잠을 새우면서 지장보살님만 찾았습니다. 수술해도 재발해서 완치가 어렵다고 하므로 제발 큰 수술 없이 완쾌해 달라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오전 내내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점심때 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세한 건 가서 말하겠다며 일단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일이라 그런지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입니다.
····· 얼마 전에 국군통합병원에서 1년만에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와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아들보고 크게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 대구시 수성구 황금 1동 장미라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품씩 나누어 읽는다)
츰부다라니를 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미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654-5557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법(邪法)의 여섯 가지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요. 생전에는 법체(法體)라고 하는데 입적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다르마를 뜻하는 법에 몸을 뜻하는 구(軀)를 붙이자고 제안을 했어요. 진리의 시신이라는 뜻이 담겨있죠."

송 교수의 제안에 따라 대한불교는 '효봉 스님의 법구는 조계사에서 모시고…'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일간지에서도 따라 쓰기 시작하면서 법구는 '법 높은 스님의 시신' 을 뜻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다. 효봉 스님은 일제 때 판사를 지내다 금강산에 들어가 출가를 했고 조계종 종정까지 지냈다는 사실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물론 불교전문지인 대한불교에서도 스님의 일대기를 연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송 교수가 맡게 된다.

"다비식이 끝나자 연재를 위해 전국을 순회했어요. 상좌 현호 스님을 따라 효봉 스님의 일생을 취재하고 의문이 생기면 법정 스님, 보성 스님, 구산 스님 등의 구술을 받아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언론 최초로 '효봉 대종사 일대기약술' 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죠."

송 교수는 1968년 대한불교신문 기자를 퇴임하고 동국대 총장 비서실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그리고 대한불교 시절 만났던 부인 김혜자 씨와 결혼을 한다. "아내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대한불교를 이끌었던 이한상 거사가 경영하던 풍전산업의 비서였어요. 기독교 집안 출신에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으니 아내는 제가 교회에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크리스마스 때 아내가 다니는 동대문 교회를 따라 나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내가 저보다 더 신심 깊은 불자가 되었답니다. 70이 넘어 제가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아내와 제가 함께 절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님의 손자가 기독교인 아내를 포교했으니 정말 보람될 수밖에요. 또 서로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월간 〈불교사상〉 창간

1972년 5월 송 교수는 대한불교 편집국장으로 재부임하게 된다. 재입사한 불교신문은 사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신문사는 조계종 총무원 직영체제로 바뀌었고 사무실은 명동의 풍전산업 사옥에서 당시 총무원이 위치해 있던 동국대 사무실로 이전을 한 상태였죠. 사장은 총무원장스님이 맡으셨고 종단의 중진 스님들이 모두 편집위원이셨어요.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로는 업무국장을 맡으면서 신문을 보급하는데 공헌한 이건호 거사, 동대신문 후배이기도 한 선원빈 기자 등이 있었죠. 그해에 불교신자였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사찰을 주제로 특집기사를 내보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북한 사찰을 주제로 했던 '영명, 북한의 본말사암' 연재는 유점사, 성불사, 귀주사, 패엽사, 석왕사, 법흥사, 보현사 등의 옛 사진을 곁들여 크게 소개 했는데 운허 스님의 유점사에 대한 회고와 이은상 선생의 성불사 이야기는 명문이었다고. 이렇게 편집국장으로 1년을 보낼 즈음 송 교수는 당시 총무원장 진경 스님으로부터 주필직을 제안 받게 된다.

"인천대 전임강사로 발령받는 그 이듬해까지 주필직을 수행했는데 당시 법철 스님이 편집국장을 홍사성 · 김인수 · 양범수 · 최정희 · 김윤세 기자가 함께 일을 했는데 무척 신나고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이후에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겸했죠. 그러니 기자 생활 만 4년 9개월, 편집국장, 만 1년, 논설위원 5년 등 거의 12년을 불교신문과 함께한 셈이 되네요."

송 교수는 1964년부터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고 대한불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1966년 동서문화원이라는 출판사를 지인들과 창업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인천대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던 1983년에는 〈불교사상〉이라는 잡지를 창간 한다. "불교는 철학인 동시에 종교잖아요. 지성인들에게 불교를 포교하고 교양을 전해주기 위한 잡지가 바로 〈불교사상〉이에요. 당시 총무원장이던 황진경 스님에게 불교를 일반인에게 전파하기 위한 현대적 잡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최재구 전국신도회장을 회장으로 추대 〈불교사상〉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한국불교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작되었죠."



송재운 교수는 … 1938년 충남 출생으로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시절 동대신문 기자로 활동했으며 1964년 대한불교(현 불교신문)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1983년 월간 〈불교 사상〉을 창간 주간으로 활동했다. 도서출판 동서문화원 설립 및 운영한 바 있으며 인천대 국민윤리학과 조교수, 동국대 교수, 동국학원 전자계산원 원장,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창간호에는 구산 스님의 법어, 서정주 시인의 축시, 김동리 선생의 '공초 오상순 선생과의 대담' 그리고 이형기 · 김장호 · 김병권 · 이청화 · 유안진의 에세이가 실리는 등 쟁쟁한 필자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불교사상〉 창간호가 발행되니 감회가 깊었어요. 절집안의 손자로 태어나 월간지를 주관하게 되었으니 그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요. 물론 대학 전임강사로 겸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1년 만에 사임을 했지만 당시 함께했던 최재구 회장, 황진경 스님, 양산 스님, 송재윤 형님 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후 그는 1986년 모교인 동국대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조교수로 부임했고 1989년 부교수를 거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및 중국의 철학사상과 윤리사상을 강의해 왔다. 또 동국학원 전자계산원 원장,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고희를 넘긴 나이지만 그는 아직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에서 운영하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실버타임즈는 7명의 실버 기자들과 함께 발행하는 8면의 월간 신문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교양을 전해주고 있다. 여기에 노인호수복지문화대학에서는 양명학과 불교 사상을 곁들인 교양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지의 오피니언 칼럼, 불교로 읽는 고전 등에 원고를 기고하는 등 불교 언론과의 인연도 이어가고 있다.

"항상 노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루어 왔던 학문을 회향하는 마음을 담고 있죠.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불교사상과 양명학을 결합한 내용의 교양서를 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령 1천호를 맞은 현대불교가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불교를 지키고 홍포할 수 있는 불교 언론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엄마! 사랑해요"

"스님, 우리 집에 갈거에요? 엄마에게 이것 좀 전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에게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떠나온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잘 지낸다고 그렇게만 전해 주세요."

싱팔라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캄보디아로 떠나는 여정에 올랐다. 우리나라에 씽팔라와 같은 이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행기 속에서 착찹한 내 마음은 석양의 아쉬움 만큼 허전했다.

행복을 기대하며 온 땅, 그러나 이들에게는 가파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여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폭행 · 폭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는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 현실을 더 뼈아프게 느꼈다.



그림 · 박구원

씽팔라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결국 가정폭력을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긴급보호시설을 찾았다. 더욱이 그녀가 낳은 아이는 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은 물론 아이까지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웠던 씽팔라는 집을 나오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아이만은 자신이 키우겠다며 석이를 꼭 껴안은 눈물겨운 모성을 지켜 보았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나는 약속대로 씽팔라의 고향 집을 찾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부모님 살림은 더 가난했다. 씽팔라에게 는 무척이나 그리운 집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족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한국으로 돌아가 고향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씽팔라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은 깊은 산을 몇구비 돌아 여섯 시간이 지난 뒤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겨우 도착할 구석진 오지 마을 이었다.

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 왔다고 하니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평생에 한 번 가보기도 어려운 곳, 그곳으로부터 온 딸 소식이 얼마나 반가울 것인가.

"씽팔라가 이걸 어머님께 꼭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꾼!" 그녀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뒤 조심조심 뭉치 더미를 풀기 시작했다. 둘둘 만 신문지를 벗겨내자 이번에는 꽁꽁 감싼 비닐이 나왔다. '누가 읽어서는 안 될 편지인가' ,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온 건 달러였다.

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급한 순간에도 쓰지 못하고 품속에 넣고 다녔을 50달러, 시댁의 구박을 피해 옷가지를 챙길 겨를도 없이 도망치듯 나온 순간에도 이 50달러만큼은 손에서 놓지 못했을 그녀의 심정이 느껴졌다. 가족을 위해 모아 둔 그녀의 눈물이 배어 있을 그 돈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꼬깃꼬깃 해진 그 50달러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따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똑똑한 여성이라 앞으로도 잘 지낼 거예요." 그제 서야 씽팔라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어꾼!" 이라며 감사의 표현을 자주 말했다.

6년의 시간이 흘러 아이는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다니며 언어훈련을 받고 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혼자 헤쳐가기엔 어려움이 많다. 우리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이다. 출신 국가는 올 때의 일이고 미래의 일은 대한민국의 앞 길이 달려 있다. 지금도 50달러에 담긴 눈물겨운 사연을 잊을 수가 없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생이 먼저 올 수도 있음을 아는 눈 밝은 분들…
수행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가족과 친지, 이웃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분들의 뼈저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게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귀한 스승님으로 가슴 속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중생들을 소중한 저의 가족,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죽음은 저의 아들의 죽음으로, 또한 저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 머리말 중에서

■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84쪽 | 15,000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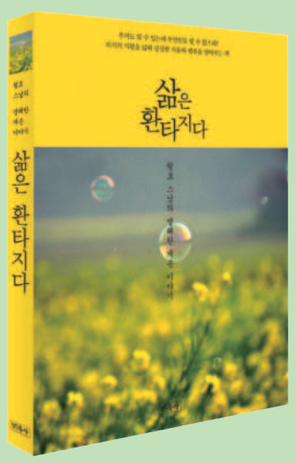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깊이와 넓이를 모를 정도로 방대하여 팔만사천대장경이라 불리는 불교경전! 불교의 핵심 · 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유마경의 번역과 더불어 해설 내지는 잡다한 군더더기를 덧붙였는데, 이는 독자에게 본문 이해와 함께 일반적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한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 화공 강의 | 신국판 양장본 604쪽 | 29,500원



월호스님의 명쾌한 게송 이야기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삶은 환타지다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게송', '애착을 버리는 게송', '화를 다스리는 게송', '행복을 부르는 게송', '마음을 보는 게송' 등 주제별 게송에 얽힌 스토리텔링. 현대적 교훈이 어우러져 재미와 의미를 만끽하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대자유의 삶!

"꽃은 피었다 지고 다시 피어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다시 생겨납니다. 이른바 삶은 환타지(幻)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멋진 환타지 영화로 꽃피울 것인가, 우울하고 기분 나쁜 공포 영화로 만들것인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다 내 작품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 월호 스님 지음 | 변형 신국판 328쪽 | 13,500원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 막아야

내원사, 현장방문 기자 브리핑

양산 내원사(주지 진성)가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 반대에 나섰다. 양산 내원사는 천성산 약 900,000㎡ 중 559,420㎡의 견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찰로 1974년부터 군부대에 내원사의 토지 일부인 천성산 정상을 미사일기지 및 군사용 부지로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대신, 사용 후 폐기물 및 잔재물을 깨끗이 하고 생태계를 잘 보전하겠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약속은 2003년 레이더기지 철수 및 2006년 군사보호구역 해제 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천성산 습지는 육화현상이 일어나 생태계가 훼손됐고 군의 잔재물은 방치됐다.

이에 내원사는 6월 23일 천성산 훼손 현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또한, 군부대가 떠나자 양산시가 이번에는 천성산 정상 일대에 해맞이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해맞이 행사가 대규모로 열리는 천성산 정상은 수많은 인파들이 승용차와 함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이미 관광객을 위한 도로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내원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바로 옆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터라 해맞이공원을 조성할 경우 불가피하게 내원사 소유의 땅도 개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원사측은 이의를 제기했고 양산시는 천성산 정상부 산림복원을 위해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준비중이며 해맞이

생태 보전 조건 어겨
정상에 공원 조성 계획

공원 시설이 내원사 소유의 땅에 설치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산시는 천성산의 생태계를 위해 군부대의 폐시설물 해체 및 철거작업으로 596톤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해맞이공원 조성계획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는 내원사가 천성산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원사 주지 진성 스님은 "천성산은 원효스님의 맥이 이어져 오는 불교의 성지이다. 양산시와 마찰하지


양산 내원사가 천성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산감 지율 스님이 천성산 훼손 현장 브리핑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않고 천성산을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내원사의 뜻이다. 운문사 주지 시절 운문산이 20년동안 휴식년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대중의 요청으로 개방됐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때 난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운문산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많은 이들의 관심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였다"며 천성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감이자 천성산 지킴이인 지율 스님은 "양산시는 생태계 복구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순환도로와 인로도 닦여져 있는 상태다. 해맞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된다. 생태계 그대로 보전한 산을 앞으로 더욱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천 농학박사(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 사람들 회장)는 "정상일대에 이러한 습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태계적 보전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다"며 천성산 정상의 생태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산감 지율 스님을 선두로 천성산 훼손 현장 방문 및 브리핑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 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 개강

50여명 등록, 첫 강의는 수불 스님


CEO컨퍼런스 과정 개강식서 입재 모습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가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첫 강사로 '부산 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을 개설했다. 부산 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은 부산 불교계 재가자들의 화합과 더불어 부산 불교의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개설된 과정으로 서병수 부산시장,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등 교계 대덕스님들을 비롯한 내빈들이 강사로 나선다. 첫 강사로 나선 수불 스님은 "개인의 수행으로 정진하면 좋겠지만 불교를 활성화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은 더욱 더 큰 성취감을 줄 것이다"며 CEO과정을 등록한 수강생들에게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했다. 연이어 수불 스님은 "지역사회나 국가에 불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부산 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에는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이 등록했으며 이들은 2015년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양정 부산불교연합회관 4층 법당에서 청강하게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기부나눔 행복바라미 광주서도 활발

6월 29일 광주역 앞 광장서 열려


행복바라미 카드단말기 기부 시연

불교계의 기부확산을 위한 나눔 행사가 열렸다. (사)날마다좋은날이 주최하고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가 주관한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광주행사가 6월 29일 광주역 앞 광장에서 펼쳐졌다.

행사에는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연광 스님, 지용현 신도회장,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비롯해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카일라스 합창단 등 200여명의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역 인디밴드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싱어송 라이터 허곤, 카드기부 시연식 등이 개최됐다. 또한 행사장에는 참가자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연꽃차 시음 등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행복바라미는 거리모금의 새로운 형태인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기부로 해당지역에서 기부된 금액은 전액 해당지역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양만점, 웰빙식단인 사찰음식 굿"

6월 28일 선덕사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6월 28일 선덕사에서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스님을 초청 '창립 6주년기념 후원의 날 및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맛 da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6주년을 돌아보고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의미를 담았으며, 환경영화상영, 한지거울 체험전, 매듭팔지 만들기, 활동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진정성 있는 사업을 펼쳐오면서 불교계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 영역에서 불교 NGO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발판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향해 더 큰 원력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법일 스님,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정길 광주전남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400여명의 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선보인 사찰음식은 감자보리밥, 배추김치, 오이얼가리김치, 뽕잎나물, 머위들깨찜, 죽순초무침, 박나물, 고무마겉절이 등 23가지 음식이 선보였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음식을 완성함으로써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인연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문사-육군 3사관학교 화랑오계 업무 협약 체결


운문사-육군3사관학교 업무협약식

운문사와 육군 3사관학교가 7월 1일 운문사 선열당에서 원광화랑오계를 잇는 역사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스님,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흥륜 스님, 운문사승가대학 주지 일진 스님, 운문승가대학 학감 진광 스님외 운문승가대학 교수 소임스님들과 육군3사관학교 학교장 원홍규 소장, 교수부장 김영훈 준장, 생도대장 황인권 준장, 행정부장 박동순 대령 외 육군 3사관학교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세속오계 정신으로 신라화랑정신문화를 육군3사관학교와 함께 창출하여 갔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익산 정각사, 33선지식 초청법회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6월 27일 '33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2월부터 시작해 4회 째를 맞은 이날 법회에는 前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종석 스님이 초청법사로 나섰다.

일행 스님은 "작은 농촌마을이라 선지식의 법문을 청해들을 기회가 흔치 않아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참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석 스님도 법어를 통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에 있으며 불교의 가장 큰 줄기는 신(信)과 행(行)이라 할 수 있다"며 "인연에 의해 모두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환지본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골마을에 위치한 익산 정각사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으며 부족한 사찰 재정을 해결하고 있으며, 신심이 약한 지역 불자들을 위해 매월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정각사 33선지식 초청법회 모습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레협, 포교활성화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레이션 협회(회장 혜만)는 6월 28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에서 포교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는 호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 관련 지도자 30여명이 동참했다.

강습회에서는 신옥진 불레협 전문위원의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이윤진 문화포교팀장의 '포교프로그램 활용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한편 7월 12일에는 제주 약천사에서 4차 강습회가 개최되며, 7월 5일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뻔뻔(Fun Fun)한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제5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불레협 지도자 강습회 장면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위한 기타교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타교실이 열린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타교실을 열어 한국노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기타교실은 노래를 통해 친근하게 한국어를 읽히는 시간으로 가요와 팝송 강습이 진행된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주성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생활에서 추억을 만들어주고 한국의 노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짐으로써 고향에 대한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10월에 개최될 외국인근로자 축제 한마당에서 배운 노래를 가지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혜안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
그 큰 공덕을 전 종도와 함께 찬탄합니다.
20여년 동안 한국불교언론의 중심으로..
역사를 이룬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불교가 더욱 청정한 정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에서 범 종단지의 역할을 다해오신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각 종파를 두루 살피며 상호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노고는 분명 한국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다해오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2000호, 3000호.. 계속 번창하시고 불교 일간지의 숙원 꼭 이루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佛心의 향연’ … 큰스님 작품 한자리에

불교전문 갤러리 ‘진경’ 개관
고승 선서화전… 7월 20일까지



만공, 경봉, 성철, 청담, 서옹, 중광, 석정, 수안, 화엄, 대휘, 일당 스님 등 큰스님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월정사 인근에 위치한 불교전문 갤러리 ‘진경’(관장 심진택 · 사진)이 7월 5일 개관식을 갖고 20일까지 ‘고승 선서화전’을 연다.

이번 고승 선서화전에는 만공 스님의 ‘백초시불(百草示佛)’ 중광 스님의 ‘천하천하 유아독존(天下天下 唯我獨尊)’ 성철 스님의 ‘일원상(一圓相)’ 등 30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는 심진택 관장이 30여년 동안 신행생활을 하며 모아온 것들이다.

심 관장은 “그동안 전국 각 처에서 모아온 작품들이다. 불자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근대 큰스님들의 작품을 통해 스님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전시 취지를 전했다.

이중 중광 스님의 ‘천하천하유아독존’은 연꽃을 든 아기부처를 통해 부처님 탄생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성철 스님의 일원상은 둥근 원을 통해 우주만유의 본원, 원융무애한 법의 상징을 보여준다. 세상은 마음, 성품, 진리, 도라는 이름을 억지로 붙였으나 그 어떤 것도 부를 수 없고 무슨 방법으로도 참 모양을 만들 수 없으니 안과 밖이 없고 동서고금이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니 그것은 하나의 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일원상은 말해준다.

7월 5일 부산 해월정사 인근에 개관
심진택 관장, 30여년 수집한 작품모아
“홈페이지 개설해 온라인 감상 추진”

그렇다면 공직생활을 해왔던 심진택 관장이 이렇게 불교 갤러리를 연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어느날 출가를 권유받았고 이를 거절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포교를 다짐했다.

“제가 포교원장을 지내신 혜총 스님의 은사인 故보경 스님의 유발상좌에요. 스님께서 저한테 출가를 하라고 하셨는데 거절했죠. 그때부터 출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포교를 하자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작품을 모았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이렇게 갤러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먼훗날 인연 닿는 사찰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경 갤러리는 불교전문 갤러리의 위상에 맞게 불교문화작품을 전시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자들이 온라인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많은 불교 작품들이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 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그리고 진경갤러리를 찾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전시를 보고 환희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51)747-2260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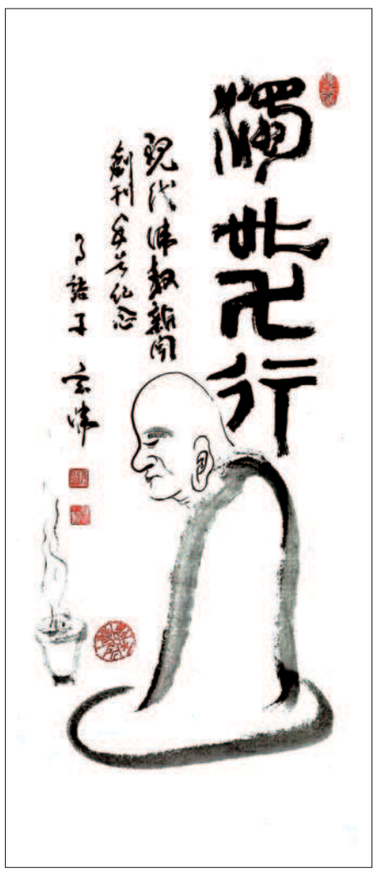
진경 갤러가 7월 5일~20일 ‘고승 선서화전’을 마련한다. 사진 왼쪽은 성철 스님의 ‘일원상’, 오른쪽은 중광 스님의 ‘천하천하 유아독존’

탁세 만행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현대불교신문’ 1천호를 기념해 부처님의 바른행을 일러(가르쳐) 소리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화폭에 담았다. 정론직필의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맑고 청정하게 이끌어주기를…

홍산 현불 스님

기유년 수원 용주사 출가
무자년 봉암 대희선사 입실건당
선서화 개인전 5회
현 대한불교 승가예술진흥회 이사장
현 화쟁교단 분황종 총재
현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좋은벗풍경소리 38집 발매

“우리 언니 2학년이고 우리 형아 4학년인데 다울이와 다경이는 빵학년이래/고소하고 달콤한 빵은 좋지만 빵학년은 싫어 싫어 정말 싫어요/ 어느날 우리 스님 하시는 말씀 졸망졸망 빵학년이 제일 예쁘대/ 빵학년이 있어서 행복하시대”
풍경 소리 38집 ‘나는야 빵학년’



풍경소리 38집 앨범 표지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서른여덟째 앨범 ‘풍경소리 38집’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올망졸망 조잘대는 천진불 다울이와 다경이의 빵학년 이야기를 담았다. ‘나는야 빵학년’ 계곡물에 첨벙첨벙 헤엄치고 물장난하는 한 여름의 신나는 ‘물놀이’ 시원한 바람과 푸르른 여름의 향기를 노래하는 덕신 스님의 ‘여름향기’ 등 총 8곡의 노래와 반주음악을 담았다.

한편,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왔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등의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제2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 모집

봉사상 · 학술상… 10월 30일까지

(재)영축문화재단은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유지를 받드는 제2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수상대상은 봉사상과 학술상 각 1명씩이며, 조계종 재적승려 및 재가불자로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된다. 추천은 소속기관 대표자 또는 조계종 재적사찰 주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수행이력서, 공적서, 추천서, 공적증빙자료, 재직증명서(해당자), 조계종 승려증 등이다.

모집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시상은 2015년 1월1일 월하대종사 추모다례제에서 실시한다. (052)246-8061 **정혜숙 기자**

천태종 제2회 원각서예대전 공모

8월 25일~28일 접수… 글자수 200자 이상 가능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이 제2회 원각(圓覺)서예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한글 · 한문 · 국한문 · 소자 · 혼서 · 사경이며, 작품규격은 전지, 반절지, 가로로 제출해야 한다. 사경은 전지 이내로 주제는 자유이며 글자 수는 200자 이상이어야 한다.

출품 수는 1인 3점 이내이며, 출품료는 1점당 2만원이며 출품 자격은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며 누구나 가능하다. (단 미협 · 서협 · 서가협 초대(추천)작가 이상은 응모할 수 없다)

작품은 8월 25~28일까지 천태종 서울사무소(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허브오피스텔 102동 308호)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하면 접수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한다. 원서는 원각서예대전 사무국에서 배부하며, 원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품할 경우 출품자의 본명(출품료 입금자와 동일), 주소, 연락처(일반전화와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등을 별지로 첨부해야 한다.

대상(천태종 종정상) 1명에는 상패와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천태종 총무원장상) 1명에는 상패와 상금 400만원, 우수상(금강신문 사장상) 6명에는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12명에는 상금 각 30만원, 특선과 입선에는 상장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장려상 이상의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되며,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는 ‘휘호’ 한다.

그리고 원각서예대전에서 12점을 취득하면 초대작가로 인증한다. 대상은 10점, 최우수상에는 7점, 우수상에는 5점, 장려상에는 4점, 특선에는 3점, 입선에는 1점이 주어지며, 복수 입상시 최상위점수만 인정한다. 심사결과는 9월 3일을 전후로 천태종 홈페이지(www.cheontae.org)와 금강신문 홈페이지(www.ggbn.co.kr)에 발표한다. 시상식과 전시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02)723~1559 **정혜숙 기자**



원각서예대전 포스터

현등사 사리 대중과 만나다

7월 1일 조계사서 이운식

도난문화재로 삼성문화재단에서 회수해온 현등사 사리가 대중에게 공개 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은 7월 1일 조계사에서 사리 이운식을 갖고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고불식에서 현등사 주지 선우 스님은 “고불식을 인연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모인 대중 모두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행동하는 참사람이 되도록 쉽고 멋지고 아름다운 깨침을 이룩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은 “부처님의 친신사리 친견으로 국태민안 남북통일 세계평화 불국 정토를 이루길 기원하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불교 중앙박물관 같은 날 오후 2014년 특별전 ‘열반, 궁극의 행복’ 전 개막식을 갖고 7월 2일부터 현등사 사리 및 사리구,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보물 제 176호)와 최초 불상 복장인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제사리호(국보 제233호) 등 국보 4건, 보물 17건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 171건을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전시는 8월 24일까지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로회 의장 밀운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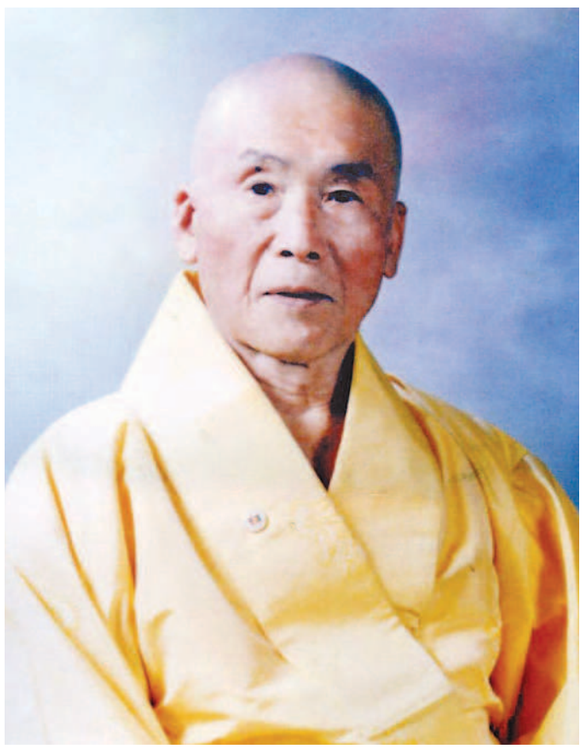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열반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한 곳으로 이끄는 안식처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번 전시를 통해 궁극의 행복을 저마다 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불교중앙박물관은 재현한 현등사 사리탑과 사리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참석 내빈들이 개막식 이후 전시장 라운딩 장면.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 탄신 100주년
한마음 한뜻으로 봉축합니다

일붕 서경보 존자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세계불교사의 큰 스승이신
존자님의 크신 업적과 활동을 기록하여
제방에 고하고 이를 숭고히 기려
불교중흥과 일붕문도의
바른 정진을 염원하고자 합니다.

일붕 존자님 행적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쉬, 러시아, 몽고, 프랑스 등 149개국 5천여 종단 및 단체에서 법왕(法王)으로 추대되었으며 존자(尊者) 추대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20여개국 634종단 및 단체에서 추대되었다. 尊者란 부처님 수제자에게 주는 불교 최고 영예인 성호(聖號)인데 부처님 10대 제자와 16나한 5백나한 등이 있다.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문학박사, 철학박사, 종교학박사 등 126개 박사학위를 한국을 비롯 미국, 영국 등 세계유명대학에서 받으셨고 불교사상교양전집을 비롯 1천 40여권의 저서와 8백여개의 평화통일기원 일붕시비를 세운 것은 현재까지 전세계 불교계의 승려로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최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5관왕을 차지했다.

세계인류의 등불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이신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尊者)께서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출생하여 일본 임제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불교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과 대학선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문학박사, 철학박사, 종교학박사 등 현재 73개 박사학위를 세계 각국 유명대학교에서 각 분야별로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건국대학교 정치학박사, 충남대학교 철학박사, 대구대학교 철학박사를 받으셨고 세계적으로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대만,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 각국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93년 기네스북에 최다 박사학위 취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포교를 위해 원효대사께서는 4백여권을 저술하였는데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세계불교홍포를 위해 「불교사상교양전집」등을 비롯 83년 8월 현재 7백 16권을 저술하여 최대 저술가로 93년 기네스북에 수록되었으며 시(詩)에 능통한 일붕법왕은 시집만 해도 153집을 내어 최다 시집 저술가로 알려져 있으며 선필(禪筆)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한국 제2의 추사(秋史)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세계각국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진양성을 위해 동국대학교, 해인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대학원, 충남대학교대학에서 교수 및 강사를 역임하셨고 미국의 콜롬비아대학, 워싱톤대학, 캘리포니아대학, 하와이대학, 템플대학과 미얀마의 싱가라대학, 독일의 함브르크대학, 일본의 경영대학, 정치대학,

아르헨티나의 엘살바도대학, 스리랑카, 영국, 인도 등 유명대학교에서 교환교수 및 명예교를 역임하셨습니다.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께서는 세계 불교국 종단으로부터 세계법왕, 세계대승왕, 법왕, 대승정, 종정, 삼장법사, 라마, 조사, 대조사, 존자 등 불교의 최고성호를 추대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7천만 동포의 숙원인 남북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이룩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한반도의 최남단인 제주도 마라도 국토종단에서부터 최북단 중부전선 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 6백 45개의 평화통일 기원 및 일붕시비를 건립하여 93년 기네스북에 최초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비롯하여 미국 아인슈타인재단에서 아인슈타인상, 스리랑카 국제예술평화상위원회에서 국제학술평화상, 국제문화협회에서 세계평화상, 국제예술상, 카자흐스탄에서 문화훈장 등 각국에서 수 많은 상을 받으셨으며 미국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메달, 일본 대판 시장으로부터 명예휘장과 행운의 열쇠 , 미국 알라바마주 헌쓰빌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 등 세계각국 정부 및 단체에서 수상, 표창장, 감사장,

세계 149개국 5천여 종단 및 단체에서 법왕(法王) 추대,
120여개국 634종단 및 단체에서 존자(尊者)로 추대,
국내외 유명대학 126개 박사학위로 기네스북 최다 박사학위 취득 등재
저서 1,040종류 300만부 발행, 통일기원 일붕시비 8백여개 건립,
한국불교개척자 미주 포교 50년,
당시 세계불교법왕청 외무부 사회단체로 등록, 세계불교 외교관으로 국위선양,
세계각국 1만여 제자 큰스님 뜻 선양

행운의 열쇠, 메달 등 3백여개를 받으셨고 미국 뉴멕시코주는 79년 8월 17일 서경보 박사의 날로 기념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일붕문인들이 미국을 비롯 국내에 80개의 동상과, 석상, 흉상을 건립하여 일붕 전법사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예하는 입법위원(국회의원), 부산시 의회의원, 통일주최국민회의대의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조계종원로위원, 불국사 주지, 동국대 불교대학장 및 대학선원장, 동국대역경원 원장, 제17차 W.F.B한국대회장 등 수 많은 직책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한국, 미국,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영국, 러시아 등 149개국과 국내외 5천여 종단 및 단체에서 법왕으로 추대되었으며 한국, 스리랑카, 인도 등 71개국 634개 종단 및 단체에서 존자(尊者)로 추대,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종정, 국제국회의원(미국본부), 유엔전권대사(NGO)세계대승왕, 세계법왕, 대승정, 삼장법사, 대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미8군(20지원사)명예사령관, W.F.B한국연합 회장, (사)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러시아평화대사, 캘리포니아국제대학 명예총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한몽 불교협의회 회장, 대한불교학술본부 총재, 일붕문학상운영위원회 총재, 스리랑카 사라스와티대학 명예총장, 미국선종대학장, 일붕불교대학장, 일붕삼장대학원장, 일붕신문사, 법왕청신문사, 선사상사 발행인 겸 회장을 맡았으며 국제성좌(星座)회, 미국본부로부터 아큐라 성좌에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명사회회원(레이건, 포드, 카터 등등 회원) 아르헨티나 국제자문위원회국제자문위원, 러시아천주교 총본부에서 세계평화지도의 위대한 종교철학대가로 추대 받으신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세계불교법왕청을 외무부에 등록하고 세계불교 외교관으로 국위선양은 물론 세계불교발전에 이바지 하셨습니다. 또한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현재 세계 각국에 1만여 명의 제자를 두고 있으며 일붕문도회는 큰 영향력으로 활동을 높여가고 있다.

(일붕신문사 제공)



美國夏期「禪」修鍊大會떠난
徐京保 박사

"놀라운美國의佛教成長"

1975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

初代法王
一鵬徐京保實錄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관련 사진은 일부 원본이 아닌 스캔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해량 바랍니다.
(사진출처 : 초대법왕 일붕서경보실록)



교황 바오로 2세에게 염주를 걸어주는 삼장법사 일붕 서경보 대종사



동국대학교 교수 재직시절, 졸업생들과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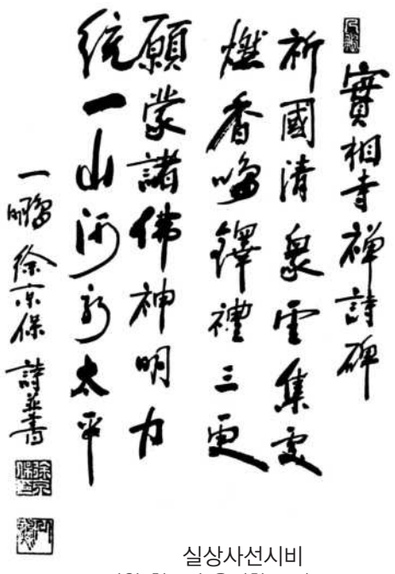


일붕 서경보 종정스님에게 방글라데시 불교계에서 최초로 법왕으로 추대한 후 방글라데시 승왕과 함께

88올림픽기념 및 남북통일 기원탑 제막식 (부산 해운대 88올림픽 공원에 건립)



현 법왕청 대법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마치고 기공식을 하시는 일붕 큰스님과 문도, 기관장, 각계 불자들 (1987년)



실상사선시비
호국기원 청중이 운집한 도량
향연기 목탁소리 삼경에 예배한다.
원컨데 부처님의 신명한 힘으로
통일산하에 영구한 태평을 누리게 하소서.



제주 김령 만장굴 입구에 건립된 일붕 동상과 평화통일 소원 일붕시비



서울 앰버서더 호텔 대연회장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국제대회에 참석한 세계 300여개국 대표들 (대회장 일붕 서경보 법왕)

우리의 참 스승이신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봉축하며 삼가 그리운 마음을 담아 후학들의 다짐을 올리며 더욱 정진하여 스승님의 큰 뜻을 바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일붕 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맞이하여 종도들의 화합 단결과 종도 배가 운동에 나서자.

일붕 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맞이하여 종단을 대표해서 봉축 드립니다. 일붕 존자님 생존 시에는 한국 불교는 물론 세계 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한 종단으로써 스님은 물론 불자들이 연일 일붕선원에 구름처럼 밀려왔는데 존자님 열반 이 후 안개처럼 사라지니 좀 아쉽습니다. 이제 종단도 안정되었으니 흩어져있는 종도는 물론 일붕문도 스님들께서는 일붕 존자님 사상을 이어가기 위하여 한데 뭉쳐 존자님의 유업을 계승해 나갑시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이 창종 된지도 어언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1천여 사암이 등록되어 한국 불교계에서 막대한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종단의 중창불사를 계승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일붕존자님의 탄신 1백주년을 봉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장 겸 총무원장 경원

통불교가 되어 일붕 존자님 유업을 계승 발전해야

일붕 존자님은 한국이 낳은 큰 스님!

우리의 대스승님 이신 일붕 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봉축합니다.

그리고 세계 20억 불자님들이 다함께 봉축합시다. 일붕 존자님은 세계평화를 위해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시면서 평화와 자비를 이땅에 펼치고 가셨습니다. 아마 부처님 열반 이 후 일붕 존자님께서 최대 불사를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톨릭 로마 교황청과 같은 세계불교 법왕청을 설립하고 가셨으니 우리 불교도 카톨릭처럼 통불교가 되어 종단이 하나로 뭉쳐 선과 교로 나누어 활동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막중한 힘이 생기는데 정말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뭉칠 때가 올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붕 존자님의 평화와 자비사상도 먼 훗날 천년, 또 이천년. 그렇게 오천년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전에 많은 불사를 해놓고 가셨으니 말입니다.

끝으로 (재)대한불교 일붕 선교종 발전을 위하여 여러 종도님들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 하다고 봅니다. 일붕 존자님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
이사장 청운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에 관해

귀의삼보 하옵고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이 후 2천5백여 년 만에 세계불교사에 대작불사인 세계불교법왕청을 40년 전에 일붕 서경보 존자님께서 발심을 내어 세계 20개국 불교나라 대표들을 만나 우리불교도 카톨릭 로마교황청과 같은 세계불교기구가 적실히 필요하다고, 설득한 끝에 1987년 서울 앰버서더 호텔에서 법왕청 설립 국제대회를 개최한 후, 초대법왕은 소승 권과 대승 권을 나누어 공동 법왕을 선출하자는 최종결론을 낸 후 소승 권에는 스리랑카 찬다난다 승왕, 대승 권에는 한국에 일붕 서경보 존자님을 선출 한 후 19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 회관에서 대관식을 가졌다. 그 후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이 1965년 6월 25일 열반에 드신 이 후, 17년이 지난 금년 일붕 서경보 존자 탄신 1백주년을 맞이하여, 유업불사를 계승하자는 일붕문도 간부진 몇 분이 뜻을 모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3월 25일자로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 법왕청 허가증을 교부 받고, 5월 23일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사)세계불교 연합 법왕청 설립대회를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소속 50여 종단 종정스님이 증명하고, 한국불교계 고승대덕스님과 주한 스리랑카 대사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차후, 연합법왕청은 오는 12월에 제2대 세계법왕 추대 대관식을 세계불교 국가 20개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일산 킨텍스에서, 가질 예정이며 세계 각국에 지청을 개설하여 세계불교 발전에 기여한다.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송산

일붕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맞이하여 일붕문도들의 화합단결을 도모하자

일붕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추모 드리면서, 탄신 1백주년을 진심으로 봉축합니다.

전국일붕문도회가 벌써 4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국 · 내외 계신 일붕 제자 1만여 스님들께서는 일붕 존자님의 사상을 항시 염두 해 주시고 존자님을 추앙하여, 이지구상에서 멸하지 않도록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붕문도 여러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 후 현대 불교사에서 대 성인을 스승님으로 모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앞으로도 일붕문도 여러분은 화합 단결하여 일붕 존자님의 평화와 자비사상을 이어가면서 불교홍포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붕 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봉축 드립니다.

성불 하십시오.



일붕신문사
발행인 겸 회장
이붕 서병열

미주포교 50년 그 위업 일붕신문이 받들어 가겠습니다

일붕 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맞이하여

우선 일붕 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봉축합니다.

그리고 일붕 존자님께서 한국불교를 미주지역에 처음으로 포교한 개척자로서 미주포교 50년사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일붕 존자님의 혜안(慧眼)은 수천 년 수 만년을 내다보며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중국의 순도화상이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이 땅에 불교를 전파하듯 50년 전에 한국불교를 미주지역에 포교하여, 미주불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며, 금년이 6,25 동란 64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이미 40년 전에 민족의 숙원인 남북평화통일기원을 하는 남북평화통일기원비를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최북단 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 8백여 개를 세웠으며, 이지구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박사학위를 국내 · 외 유명대학교에서 126개를 취득하여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으며, 불교홍포를 위해 1천40 종류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50만장의 휘호를 써서 기네스북에 5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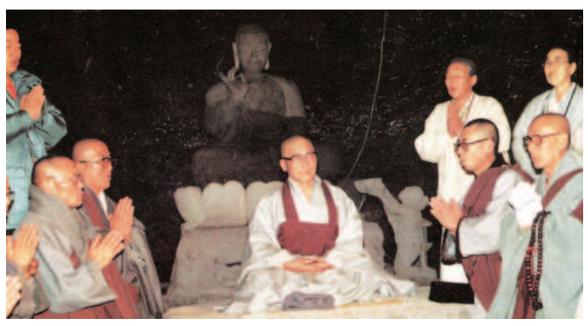
그리고 지상포교를 위해 31년 전에 일붕법보(현 일붕신문)를 창간하여 지금까지 발행해 오면서 지상포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붕 존자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 후 최다의 제자를 두었는데 은, 법, 조카, 손상좌까지 합하면 1만여 명의 제자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일붕 존자님 탄신 1백주년을 봉축합니다.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향후 사업계획서

(1) 일붕존자 기념관 건립
(2) 일붕존자 생가 복원
(3) 일붕문도 중앙회관 건립
(4) 세계불교 연합 법왕청 제2대 법왕 추대 및 각국 지청 설립
(5) 매년 일붕존자님 성지순례
(미국, 일본,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영국, 러시아 등 각국)
(6) 매년 12월 5일 일붕문학상 및 일붕사상 연구에 관한 세미나 개최(장소: 백범 김구기념관)
(7) 남북평화통일기원 일붕시비 보수 및 관리 국내 · 외 8백여개
(중국 구화산, 백마사, 남미 칠레, 임진각, 고성 통일전망대, 백령도, 제주 마라도 등등)
(8) 일붕존자님 유물보존사업
(9) 일붕동상 120개 보존관리
(10) 일붕존자님 저서 1천 40종류 도서관(기념관 내 에둠)
(11) 세계 최다 박사학위 126개 전시(기념관)
(12) 매년 음력 5월 9일 일붕존자님 탄신 및 열반재일기념 법회 봉행
(13) 매년 10월 10일 일붕문도의날 기념행사 봉행
(14) 매년 3월 25일 세계불교연합법왕청 기념행사 개최
(15) 일붕 서경보 존자님 미주포교 50년사 미국 뉴욕 행사(11월)
(16) 일붕존자님 휘호 전국순회 전시
(17) 일붕존자님 다큐상영(전국 일붕문도 각 사암에서)

일붕 존자님의 위업을 받들어 불교중흥의 대업을 위해 앞장서는 일붕문도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제주 석굴암 일붕 좌선굴에서 일붕 큰스님께서 좌선하는 동안 합장기원하는 일붕 제자 스님들



현대 제1빌딩에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위원회 개원식. 현판식을 마치고 설명하는 일붕 서경보 법왕 (좌로부터 일본불교대표 중야영현 대승정. 스리랑카 비풀라사라 대승정. 일붕 법왕)



스리랑카 찬다난다 승왕 접견 (1983년 3월)



일붕 법왕청 상량식에서 대들보가 올라가는 순간 일붕 큰스님의 미소 (1987년 11월)



일붕 서경보 법왕의 선필은 세계에서 인정하며 세계각처 유명인사들이 소장하고 있고 일붕 큰스님의 용.구는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특이한 일붕 선필이다



제17차 세계불교도 제8차 세계불교청년회 서울대회와 함께 세계고승 판차실라 수계 실천 대법회 10만 불자운집 (1990년 10월 22일. 잠실올림픽 공원 제1체육관)



한일불교도 한국대회에서 일붕 서경보 법왕과 조계종 서의현 총무원장



일붕 법왕께서 스리랑카로부터 세계평화상을 수상했다



일체가 오직 한마음으로 창조된다

三千三

세계 최초, 3003위 大아라한 展

작품 조성 기간 10년



수행과 예술 그리고 자신의 길

적산(寂山) 스님

모든 것을 던져 몰입했던 10년의 고행 끝에 탄생한 나한 연작에는
제가 유년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온 작가로서의 꿈과, 출가 이후의 수행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불교의 세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다양한 나한들은 다원화된 시대속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들의 구제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대승적 주제의식을 삼천삼 점의 나한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인사 원각스님을 은사로 출가
E-mail : seungik320@hanmail.net

2014. 7. 16 (수) - 7. 29 (화)

오프닝 7.16(수) 오후 5:00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3, 4, 5F)

전시장 내 특설법당 (1일 3회 기도)

국태민안 · 남북통일 · 소원성취

*기도 접수 문의 : 010-6432-0086



Gallery MISUL SEGY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4 Tel. 02-2278-8388

정보사회서 불교계가 나아갈 길은?

교수불자聯, 7월 2일 하계 교수불자대회… 110여 교수 참석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11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사상과 현대정보' 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불교계의 발전 방안이 대두됐다.

"수행법 다양화 나서야"

장상목 동아대 교수는 "정보사회의 큰 특징은 '다양화' 이기에 불교 수행법도 다양하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먼저 "정보사회가 진행되며 사이버 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불교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그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하다"며 "이에 많은 불교 문화유산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불교수행과 사상에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다양한 방편이 필요하다. 한국불교에서도 다양한 수행법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매체 적극 활용"

김용환 충북대 교수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신대승운동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 교수는 "현대 정보사회가 접어들며 불교계는 새로운 대승운동이 필요해졌다"며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무선 어디서나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요즘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서비스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불교계도 다양한 신행활동의 흐름을 조사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불교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의 경전과 전적을 총망라해 디지털화 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을 예로 들며 ABC사업이 다양한 포맷으로 개발돼 활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기록관리 기관 및 시설도 이용자 서비스 최적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 만족을 위한 자료의 품질 또한 다양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느림의 미학도 알려야"

이희재 광주대 교수는 역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부처님의 발자취에서 배우는 비움과 느림의 삶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재 교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일상이 점차 더 빠르고 신속하게 변화하며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다"며 "불교문화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비움' 과 '느림' 의 상징이 많은 만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재 교수는 오상조 불교사진작가의 인도 문화유적 사진을 활용해 불탑과 보리수 등에서 보이는 부처님 당시의 삶의 방식을 되새겼다.

이 교수는 "탄생지인 룸비니의 농촌풍경과 아쇼카왕의 석주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불교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며 "부다가야의 대탑과 보리수 금강보좌의 문화재 속에서는 무상과 무아 그리고 열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여기에는 인간 실존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정보화 사회 이면의 인간상실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이러한 불교사상이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해인사 하계 교수불자대회에 참여한 110여명의 교수들은 한국불교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고양 흥국사 대방' 등 6건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1일 '고양 흥국사 대방' 〈오른쪽 사진〉을 비롯한 총 6건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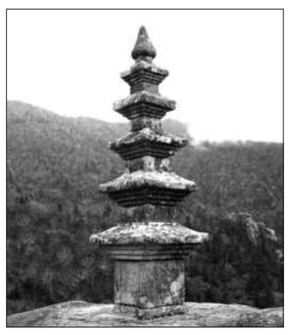
등록문화재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 은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 염불 수행 공간과 누 · 승방 · 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대웅전을 실제적 · 상징적 불단으로 삼아 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 법당이다.

흥국사 대방은 1904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모친 엄상궁이 아들을 위해 만일 대기도회를 발원하고 증축한 역사를 담고 있다. 이번 등록문화재 지정에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근대 건축의 성립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형식, 공간 구성, 시대정신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문화재 제589호 '광주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 교사' , 등록문화재 제590호 '광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 등록문화재 제591호 '서천 구 장항미곡창고' , 등록문화재 제593호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 등록문화재 제594호 '양평 지평양조장' 등이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봉정암 석탑 · 대곡사 대웅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의성 대곡사 대웅전' 과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을 각각 보물 제1831호와 보물 제1832호로 지정했다.

보물 제1831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 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인 건물로, 1687년(숙종 13) 태전 선사가 중건했다. 건물 공포의 형태, 배면의 영쌍창(창호 중간에 기둥을 두어 창문이 두 개처럼 보이는 창), 외부 마루 흔적 등이 18세기 이전 건물에서 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의성지역 사찰의 시대변천을 살피는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832호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은 봉정암 경내에 있는 높이 3.6m 규모의 석탑으로 자연 암석을 기단으로 삼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노덕현 기자**

"사회스시템에 불교 참여 시키자"

조경철 연세대 교수 불교사회연구소 세미나서 주장



"오늘날의 인간소외 현상 등은 국가 시스템 하에서 종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데서 기인한다. 종교, 특히 불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간소외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야 호국불교' 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현대사회의 병폐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른바 '반야 호국불교' 다.

조경철 연세대 교수〈사진〉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고대불교와 국가' 학술세미나에서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의 '반야로 나라를 지켜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는 의미를 살려 이제 반야호국불교라고 불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 고대의 불교와 정치' 를 주제로 발표한 조 교수는 "호국불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국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바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호국의 어원인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에서 호국불교의 본 의미는 지혜로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인 만큼 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불교가 권력을 갖자고 하거나, 방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국가체제가 하지 못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무희 국민대 교수의 '고대 불교와 왕권-신라 중고시대와 중대를 중심으로' △박광연 동국대 교수의 '신라시대 불교와 왕권' 등이 발표됐다. (02)730-0093 **노덕현 기자**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 범종 문화재 지정

서울시는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발원, 시주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오른쪽 사진〉 등 불교문화유산을 포함해 총 12건에 대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봉원사의 아미타괘불도는 1901년에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돌아가신 부모와 외가 조상 등의 극락왕생을 발원, 시주하여 봉원사에 봉안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아미타불 · 관음보살 ·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 아래 권속인 가섭 · 아난, 사자를 탄 문수동자 ·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배치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는 19세기 전통을 계승한 20세기 초기의 사찰불화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화승인 덕월당 응륜(應崙)과 청암당 운조(雲照) 등 12명의 숙련된 화승이 공동 제작하여 각 세부묘사 등이 상당히 정교하다는 측면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정고시에는 봉원사 범종도 포함됐다. 봉원사의 범종은 본래 1760년(영조 36) 가야사(伽倻寺)의 종으로 제작된 것이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었던 가야사는 1884년 흥선대원군이 부친 남연군의 묘를 쓰면서 폐사됐다.

종이 옮겨지게 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청남도 예산 가야사에 있었던 종이 서울 봉원사로 이운(移運)된 것이다. 이 범종은 주조상태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경상도 이씨일파의 대표적 장인인 이만돌의 작품으로 명확한 제작연대와 후원 계층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세기 후반 범종의 일반적인 양식이나 사력에 대한 계보 및 활동을 연구하는데 학술적인 가치도 높다.

한편, 이번에 지정고시된 유물 가운데는 한 사관의 무덤에서 나온 사초(史草) 등이 포함됐다. **노덕현 기자**



"중국 사원 의규, 명나라 때 와서야…"

절강성 사회과학원 법지 스님, 중국불교 소개

중국사찰에서 전해내려오는 의규(儀規)가 명나라 말 통일 된 것으로 이전에는 중국인들의 생활에 맞게 변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절강성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객원교수 법지 스님은 6월 28일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중국불교의 의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지 스님은 일상공과, 각종법회, 안거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불교의 차이점을 말했다.

스님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예불에 해당하는 일상공과는 하루 두 번 올려져 한국의 세 번과는 다르다. 법회는 불타 탄생, 성도 법회 등이 있으며, 경 · 율장을 공양하는 법회, 일반 신도들이 복을 짓기 위한 보시대회(布施大會)도 봉행한다.

이와 함께 양무제 때 강소성 금산사에서 시작된 수륙법회와 정월 초하루 미륵불성탄법회, 관음보살성탄법회, 아미타불성탄법회 등도 진행된다. 중국의 안거제도는 요진(姚秦)시기부터 시작됐으며 당송시기 안거제도는 점차 선종총림 청규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다. 또 중국불교의 특색이 가미되고 겨울철 추운날씨에 스님들의 외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하안거 제도를 본 따 동안거를 제정했다. 근대 일부 사원에서는 양해양결(여름, 겨울 모두 참구하는 것), 결하강경(여름철에 강경하는 것), 결동참선(겨울철에 참구하는 것), 동참하강(겨울철에 참구하고 여름에 강경하는 것)을 하는 곳도 있다.

법지 스님은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서 많은 고승들이 당시 실제상황에 근거해 의규를 새로 만들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더 없는 감격의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온 누리에 전하며,
바른 언론으로 한국불교를 외호해 온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를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합니다.
더욱 큰 뜻을 이어 불교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시길 기대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20년의 청년불자로 성장한 현대불교신문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전 종도와 함께 봉축합니다.
한국불교 각 종파의 다양성과 함께해 온 현대불교신문의 성과는 곧 한국불교의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이루시어 부처님의 혜명이 온 세계에 가득하여 지기를 기원합니다.

싯다르타의 불교적 자기실현은 번뇌 해탈



싯다르타 인도에 관한 문학
헤르만 헤세 지음
김길웅 옮김
열림원 펴냄
1만1천원

저자인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그 자신이 신학교에 입학했다 자퇴한 것에서도 드러나듯 기독교 문화와 관계가 깊은 헤세지만, 동양, 특히 인도의 사상 또한 그의 한 면을 지탱했다. 헤세의 외할아버지는 저명한 인도학자였고, 그의 외사촌 빌헬름 군데르트 또한 동양학, 특히 중국과 일본의 불교에 정통한 이름난 학자였다. 이 책은 헤세 자신의 사상서로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 책에서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맞닥뜨리는 무수한 고민들을 풀어놓고 치열하게 그 답을 찾아 나선다.

이 책은 브라만 청년 '싯다르타'와 친구 '고빈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걸어가는 다양한 구도의 길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브라만으로 날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며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던 '싯다르타'는 어느 날, 명상 중에 깊은 회의에 빠진다.

"존경받는 브라만인 아버지, 최고의 스승들,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 그들 또한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구도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등등. 그래서 싯다르타는 끝없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근원의 샘물, 즉 참나를 찾기로 결심한다. 함께 브라만의 길을 걷던 친구 고빈다가 싯다르타를 따른다. 수행 면에서 스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싯다르타, 그가 가는 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두 청년은 고행 수도승이 되어 고통스러운 수행에 몸을 맡긴다. 갈증과 추위를 극복하고, 숨과 맥박을 조절하며, 자아를 없애고 명상 속에서 왜가리가 되고, 죽은 자칼이 되고, 돌, 나무, 물이 되었다. 명상은 더욱 깊어져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공(空)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됐지만 단지 그뿐, 명상의 끄트머리에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윤회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좌절에 빠진 싯다르타의 귀에 '고타마'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다.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한 고타마, 두 청년은 그를 찾아 또다시 여정에 오른다. 고타마가 머무르는 제따와나 숲. 그곳에서 첫 번째 헤어짐의 순간이 찾아온다.

저자는 이 책에서 "깨달은 붓다의 가르침은 많은걸 담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법, 악을 멀리하는 법 등을요. 그러나 한 가지, 아주 분명하고 또 존중받아야 할 가르침 하나는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존이 직접 무엇을 체험했는지, 다시 말해 수만 명의 깨달으신 분들 가운데 고귀하신 붓다만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얽힌 비밀 하나는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존의 법문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알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제가 순례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다른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모든 가르침, 모든 스승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제 스스로 이루거나, 그렇지 않다면 죽고 싶을 뿐이지요."

깨달음은 가르침을 통해 전해질 수 없다고 확신하고 고타마를 뒤로한 싯다르타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인간' 과도 같다.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그는 아름다운 창녀 카말라의 마음을 얻고, 대상(大商) 카마스바미의 신임을 얻어 장사를 배워 큰 부를 누린다. 싯다르타의 성공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가 깨달음을 추구하며 배우고 익힌 것들에서 비롯됐다. 이루기로 마음먹은 것을 모두 이룬 싯다르타는 그러나 변해간다. 술과 도박에 빠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놀이와 같이 그것을 즐겼지만, 갈수록 초조해하고 성패에 연연하게 된다. 사십 대에 접어들어 흰 머리카락을 내보였고, 피어나는 꽃과 같던 연인 카말라의 얼굴에서는 피로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 자신이 경멸해 마지않던 불쾌함이 그의 얼굴서 엿보였을 때, 싯다르타는 꿈을 꾼다. 꿈에서 그는 새장 속에서 죽은 새를 길 위에 내던지는데, 그 순간 큰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과 얻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

주인공, 삶의 해법 찾아 길떠나
깨달음 위한 구도의 길 형상화
만남과 이별 플롯은 소설적 묘미

깨달음은 말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책의 소설적 묘미는 '싯다르타'와 '고빈다'의 만남과 헤어짐에 있다. 모든 것을 두고 목적지도 없이 길을 떠난 싯다르타의 마음속에는 사실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죽음이었다. 깨달은 자 고타마 앞에서 당당하게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제 스스로 이루거나, 그렇지 않다면 죽고 싶을 뿐'이라고 선언했던 싯다르타는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택한다.

실패한 삶의 형상을 때려 부수는 것, 그래서 비웃는 신들의 발치에 그것을 내던져 버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죽음, 그가 증오했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리워했던 돌파구였던 것이다. 물고기들이 뜯어먹어도 좋았다. 싯다르타라는 속물을, 제정신을 잃어버린 남자를, 망가지고 썩어가는 몸뚱어리를, 맥이 풀리고 학대받은 영혼을 물고기들과 악어들이 그를 먹어치워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싯다르타는 벼락같이 완전한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이내 깊은 잠에 빠진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십 년은 지난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 앞에 앉은 채로 잠든 한 남자, 고빈다와 재회한다. 고타마의 제자가 되어 오랫동안 수행의 길을 걷던 고빈다가 위험한 곳에서 잠이 든 한 남자를 보고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곁을 지킨 것이다. 먼저 친구를 알아본 싯다르타 덕분에 둘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지만, 현재의 모습에 대한 대화일 뿐, 이 둘은 다시 헤어져 자신의 길을 간다.

잠에서 깨어난 싯다르타는 강의 모습에 깊은 사랑을 느끼고 강물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후 싯다르타의 삶은 '강'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그러나 강은, 카말라와 카마스바미의 인간 세상이 그랬듯이, 싯다르타에게 또 한 번 깨달음을 위한 경험을 요구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고빈다'이다. 평생 계율을 지키며 젊은 승려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마지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현자로 추앙받는 강가의 사공을 찾아 나선다. 고빈다는 사공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 날 길 떠나기 전 사공에게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가르침을 달라고 청한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러나 고빈다는 끝내 현자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 다만, 사공이 된 싯다르타의 미소를 볼 뿐이다. 강가에서의 싯다르타의 뜨거운 경험, 싯다르타와 고빈다와의 대화는 작품을 직접 읽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미혹하면 바로 범부이고 깨달으면 그가 부처다"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3800원



과연 이 사바세계에 인과(因果)가 있을까? 아마 불교를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즉 인과의 존재에 긍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는다는 '자작자수(自作自受)'나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에 대한 공동책임에 대해 말하는 공업중생(共業衆生)이란 논리는 어쩌면 불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 짓는 커다란 선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전생이나 극락은 존재할까? 대답하기 쉽지 않다. 보거나 경험하질 못해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서너 장이 넘는 이 '편지'에는 방금 받았던 '인과' '업' '극락'에 대한 궁금증을 한 꺼풀 벗겨낼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다. 저자의 글에는 명제나 논증이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어려운 불교 교리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인연과 업력으로 살아왔던 역사 속의 인물 혹은 수없이 많은 절집을 들고나며 들었던 옛 어른들의 말씀, 혹은 본인이 체험했던 이야기들이 편지의 '소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어떤 논리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기도와 체험의 힘이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누구나 인과 그리고 업이나 전생, 극락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런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저자 이력은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해 독특하다. 염불선으로 근현대에 이름을 드높인 청화 큰스님(1924~2003) 밑에서 출가해 '본연'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늦깎이 출가였다. 그 후 송광사 강원을 졸업한 후에는 한 곳에 머물러 산 적이 없다. 한 철은 이 절에서 다른 철은 저 절에서 돌아다니며 기도 했다. 인연이 다하면 미련 없이 떠나는 운수납자(雲水衲子)의 모습 그대로다. 때론 소문난 기도처였고 때론 대중은 없고 삭막한 북풍만이 감도는 도량이었다. 청화 큰스님이 머물던 제주도의 자성원 주지 소임을 잠시 맡은 걸 제외하면 사판승의 길을 걸은 적이 없다. 십수 년을 오직 그렇게 '기도'로만 보냈다.

스님의 수행법은 나무아미타불 염불 수행이다.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나 극락정토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 한가운데 있다'는 자성미타(自性彌陀) 수행이다. 하지만 스님은 한 가지 수행법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한국불교의 병'이라고 진단한다. 지금도 꽤 많은 시간을 일체중생이 고통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 수행을 하며 보내기도 하고, 진언이나 다라니, 참선 수행은 물론 위빠사나 같은 남방 수행도 마다않는다.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첫번째 장인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바세계〉에서는 천수다라니 수행으로 유명한 근대 큰 스승 수월 스님 이야기를 비롯해 다라니 수행으로 묘 위에서 삼매에 들던 선암사 스님의 이야기 등 수행으로 극락세계를 만났던 출·재가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두번째 〈어제의 고통이 오늘의 행복입니다〉편에서는 인연이나 업을 안고 살지만 때론 스스로 그 운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꿔나간 수행자 혹은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셋째 장에는 염불 수행과 함께 스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자비관 수행'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서는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비롯해 진언, 다라니 수행 등 각종 수행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돼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106장 편지에 흐르는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혹하면 범부이고 깨달으면 부처"라는 단순한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떤 곳, 어떤 상황이든 오직 자신에 맞는 한 수행법을 정하고 일념정진한다면 자신은 물론 세상이 맑고 향기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도와 체험의 가피 소개
절집 큰스님 말씀들 인용
염불수행과 자비심 강조

스님은 염불 수행과 함께 특히 자비심을 강조한다. 스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이 감응합니다. 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 사람이 감응합니다. 일체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일체중생이 감응합니다"라고. 특히 스님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옛날 산중에서 공부하던 어느 스님이 그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는 중생제도를 위해 산에서 내려왔지만, 도중에 들짐승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는 아직 멀었다 여기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얼마나 공부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심이 증장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강조되는 수행, 이것이 스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과와 기도' 이야기의 전제이자 결론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적 입장서본 '임종에 대한 종합 안내서'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광, 흥일 지음
박병규 외 옮김
운주사 펴냄
1만1천원

이 책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불교, 특히 정토불교의 입장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임종에 대한 종합 안내서'이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종을 맞이한 가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임종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매뉴얼까지 수록하고 있다.

현생에서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 맺는다. 따라서 죽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구경(究竟)의 이치를 지식으로만 알뿐, 실제 육체의 죽음에 임해 그러한 이치를 현실적으로 시현하는 깨달음과 수행력을 갖춘 사람은 지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태어나는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임종할 때이다. 왜냐하면 목숨을 마칠 때가 범부가 되느냐 성인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축생이 되느냐, 악도에 떨어지느냐 선도에 나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기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임종을 준비하거나, 혹은 임종을 맞은 가족들이 임종 후의 대처 방법들을 사전에 정확히 인식하고 준비한다면 임종자가 원하는 대로 극락왕생의 원을 이룰 수 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임종자의 분노나 고통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좀 더 나은 세계로 환생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 기본 안내서이다.

여러 사람이 법문하고, 또 번역한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중국 근현대 정토종의 큰 스승인 인광대사가 법문한 〈임종삼대요〉를 번역한 것으로 임종 때 가족과 친지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당부한 내용이다. 그것은 좋은 방편으로 임종인이 믿음을 내도록 할 것, 여러 사람이 염불하여 임종인의 염불심을 도울 것, 임종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울지 말 것 등이다.

이 책에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임종의 과정, 임종 때 임종자의 육체적·정신적 상황이 어떠하며, 유가족과 친지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본조계종
종정 회암



불교언론으로서 그 역할 다해오신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를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더욱 발전하시고 종파를 초월한 범종단지로서 큰 뜻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승가회
회장 무공



현대불교신문이 1000호를 맞는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휴간 없이 발행한 것이며, 그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말로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한국불교역사의 큰 성과이며 행복입니다.그 큰 성과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더욱 발전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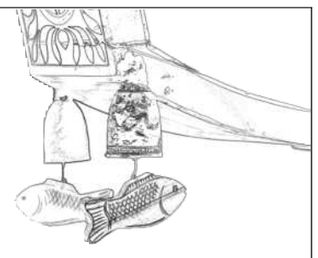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르고 늦은 달밤에 돌아다니고 사치스럽게 살고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손해만 있을 뿐 전혀 이익이 없어라.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양평)
031)773-7746
010-8777-1775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
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월오 합장

최면 공부합시다
스님에 한함. 주1회 1시간 30분(총10회)
실전(다양한 장애에 즉면,
혹은 스스로 개선하고 싶은 일)에
대처하여 빠른 효과가 있도록 유도
기법만 반복 공부
45만원, 3분 이상이면
전국 어디든 가능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번지
010-9609-1919
덕인 합장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장도량)
010-3774-4099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명리학(사주철학) 지도
(1)명리학+성명학
(2)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벽한 지도
(3)주1~2회, 3~4개월 완성
(4)경력34년, 병제철학원장
(5)사주,작명,개명,택일,모든상담
010-3695-1626
서울 9호선 가양역 10번 3분거리

디자인 결혼정보
초혼, 재혼
처음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결혼,사랑행복,사랑미래
결혼은 인생의 디자인입니다
010-5230-3671
02)816-3671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보국문로 195
반야도 합장

인연 찾습니다
조건 최상으로 학교와
종단 괌, 등록 인수하실 분
미국령 GUAM사이버대학교
미국령 종단
2007년 등록 현재 라이센스
010-8774-2040
인터넷 070-8844-2030

양 도 공 고
학교 & 종단
미국령. 현지법인
조건. 양도&동업
2007년 등록
010-8774-204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군 기승면)
010-2078-959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금호동 관음사, 50-60대)
010-6260-3310

기도의 대가 대주스님
?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032)664-0048 / 011-741-0867

달마일장금(경) 강의 (공양/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 4일 (1일 8시간) 총 24시간 강의
• 강사 : 유천명리학당 원장직강 011-838-1134
•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 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540-5번지 3층 유천명리학당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6시)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안 손으로 짚어 1분 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월요일 오후 2시 ~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사 찰 건 축 전 문
- 상담분야 : 사찰건축 계획, 건축평면구성, 토목, 건축일체
풍부한 고(古)건축이론과 오랜 현장경험, 탁월한 직관력, 안목
* 짜임새 있고 정교한 책임시공으로 보람된 불사(佛事)가 되도록 함
- 시공상담 : 목조건축, 콘크리트건축, 기타 사찰건축일체
• 문의 : 고(古)건축전문 시공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시공 가능함)
031)677-1373. 010-6405-2060
천년 고(古)건축

신병,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 신병으로 몸이 아픈 증세 있는 분, 귀신이 보이고 악몽으로 시달리는 분. 도력으로 치유해 드립니다
010-3123-1325
신선도 육관도사 (신병치유)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 용암사)
010-9350-3216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전통 선묵화(禪墨畵)연구원
(마음 닦는 그림, 선묵화를 통해서 참나를 찾고자 하시는 분)
(연구회원 모집)
자격요건
1. 서예, 사군자, 문인화 중 1년 이상 공부 하신 분
2. 선(명상) 공부 1년 이상 하신 분으로 그림에 관심 있는 분
3. 초보자는 면담후 결정
지 도 월 2회 내외
1. 1회. 선강의, 명상체험 , 선묵화 지도
2. 1회. 통신 선묵화 지도
지도 법사 범주 스님 지도
(홈페이지: http://www.dalma-art.com)
속리산 선(禪)문화 예술원 054)535-0378

백발백중 출세비법
신원사 전 주지 노스님이 연구한 비결
과거 대통령님들 90% 적중. 내 가문에도 대통령,
고관대작을 탄생시킬 수 있는 비결
삼장법사 청하스님 영험 달마 / 흰머리가 검어진다는 건강장수
비법을 법당 건립 9만원 이상 동참분께 3가지를 무료 드림
농협 187-02-274348 이청하
주문은 010-2506-2425

달 마 도
40㎝ × 60㎝ 한점당 5천원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달마도를 특가로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백중선물용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010-2953-8770
051)202-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10점이상은 사찰명과
주지스님 법명을 넣어 드립니다

전화상담 안내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로 속 시원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02)766-9400

인연 명리 강좌개설
삶은 인연생, 인연멸이라!
- 십이운성과 십신을 접목
- 토(土)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
- 모집대상 : 기초반,통변반
- 강의장소 : 삼성역 8번출구(3분)
010-4047-0134
정인스님 직강

최면 빙의 퇴마
-전생,미래 심리치료 전과정
6회 완성(수강료 백만원)
-단기속성반(3회×6시간)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아직도 망설이는 분 환영)
부산 010-9342-9794

제12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하여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2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 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응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출가 부문 ②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5,000만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출가 부문(개인 또는 단체)
- 3인(곳)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② 재가 부문(개인 또는 단체)
- 3인(곳) 이내 시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
응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스토리텔링 : 대본 내용 등 제출 [A4용지 최소 10매 이상 ~ 최대 30매 이내]
② 다큐멘터리, 드라마, DOCUDRAMA(다큐+드라마) - DVD 또는 데모영상(5분~20분 이내)/대본 등 제출
③ 영화, 애니메이션, INFORTAINMENT(정보+오락) - DVD 또는 데모영상(5분~20분 이내)/대본 등 제출
④ 오디오(작곡 등) : 3곡 이상(1곡 당 2분 이상 5분 내외)
⑤ 미술 · 일러스트레이션
⑥ 상기 관련 분야
상금 : 총액 4,000만원 이내
* 영상자료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함.

※ 시상 대상에 대하여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2014년 9월 15일(월) ~ 9월 30일(화)
제출서류 : 제12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함.

대한불교진흥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5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9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1년차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사상 (반야심경 · 금강경) 3. 유식과 명상 4. 불교사의 전개 (인도 · 중국 · 한국) 5. 대승불교총론 6.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주명철교수
2년차	과 목	7. 밀교사상과 천수경 8. 아미타경과 불교의식 9. 화엄경 10. 불교개론 11. 불교문화와 포교 (불교미술 · 다도) 12. 선불교
	교수진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김형준교수, 정엄스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2일, 불교미술학과 9월4일, 선·명상학과 9월4일]
✲ 불교 대 학 원 개강 [9월2일, 9월4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6일, 범패의식반 9월3일]

■모집인원(불교학과) | 15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50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4년 7월 1일부터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 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두려움을 여의었다면 오로지 자비만 을 행하며 지극한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닦 아 가되 부귀공명을 바라지 마라."

- 점비일체지덕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 (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 5동 (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 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융자 1억 가능)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공주시 토굴 양도
- 요사채 신축 거의 완공 90㎡
- 토지1600㎡.바위와계곡이흐름
- 심산유곡으로 조용하고기도처임
- 양도금액 : 1억 2천원(조정가능)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0-3426-9393(사찰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요양원,연수원,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72-132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부지 : 220평
- 법당 : 30평, 전각2채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18억9천 / 양도가 : 6억3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010-2772-72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81번지
- 뉴서울쇼핑 2층 총 80평
- 가액 : 5,500만원, 월 40만원

010-8552-39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암자 적임지
- 1천평 평당 10만원

011-9323-8616

토굴 최요지

(큰 저수지가 앞에 있음)
- 위치: 경북 영천
- 평수 : 200평 (실사용평수는 1천평임)
- 가액 : 평당 10만원 (대출금액 일천만원있음)

010-3753-7844
010-7589-960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암자(급)안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
- 실 사용평수 약 500평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비품일체포함,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몸만 오시면 됨

010-4542-0902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큰사찰(터)찾는 분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양산 시내 및 고속도로,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40~50분 거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1만평
- 평당 10만원,답사 후 결정,주인직접
- 현재 절 운영중
- 법당 20평,요사채40평,주차장넓음

010-3879-2544

암자(터)안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2채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가액: 10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경기지역 상가와 물물교환도 가능

011-343-67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 5가역
- 4층건물중 3층 약 14평
- 시설은 운각, 탁자, 에어컨, 냉장고, 사무용품 현재 확장 이전하여 비었음 (언제든 입주가능)
- 가액 : 보증금 일천만원 월 77만원

02)443-0108
010-9259-0108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108번길(당리동 대광빌딩)
- 6층에 5층(엘리베이터) 법당, 방 2개(45평)
- 약사, 관음, 500호신불
- 모든 준비 일체 되있음

010-3561-3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남구 일원동 부근
- 지층 35평
- 완벽한 시설
- 현재 신도들이 운영 포교하며 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 주지스님 모심
- 답사 후 연락바랍니다

02)449-531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총평수 : 160평 삼존불, 탱화, 방 4개 법당 앞
- 정원 미륵불과 석탑봉안
- 가액 : 4700만원 세간일체 양도함
- 선 답사하시고 후에 상담하세요

010-8902-7618

암자(터)안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2채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가액: 10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경기지역 상가와 물물교환도 가능

011-343-6711

개인 사찰임대 및 안내

- 주소: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위치:조선대학교 인접 - 동산초등학교앞
- 버스길에서 약 500야산 밑
- 토지: 전체 700평(임야 650평 대지건평 50평)
- 법당: 약 20평 요사채 3동. 수도, 전기, 심야보일러 2대 사찰 약 100년
- 임대 : 보증금 이천만원 월60만원
- 양도는 상담 현지에 가보시고 뜻이 있는분 전화바랍니다

019-379-99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 5가역
- 4층건물중 3층 약 14평
- 시설은 운각, 탁자, 에어컨, 냉장고, 사무용품 현재 확장 이전하여 비었음 (언제든 입주가능)
- 가액 : 보증금 일천만원 월 77만원

02)443-0108
010-9259-0108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108번길(당리동 대광빌딩)
- 6층에 5층(엘리베이터) 법당, 방 2개(45평)
- 약사, 관음, 500호신불
- 모든 준비 일체 되있음

010-3561-3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남구 일원동 부근
- 지층 35평
- 완벽한 시설
- 현재 신도들이 운영 포교하며 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 주지스님 모심
- 답사 후 연락바랍니다

02)449-531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총평수 : 160평 삼존불, 탱화, 방 4개 법당 앞
- 정원 미륵불과 석탑봉안
- 가액 : 4700만원 세간일체 양도함
- 선 답사하시고 후에 상담하세요

010-8902-761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암자(급)안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
- 실 사용평수 약 500평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비품일체포함,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몸만 오시면 됨

010-4542-0902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큰사찰(터)찾는 분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양산 시내 및 고속도로,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40~50분 거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1만평
- 평당 10만원,답사 후 결정,주인직접
- 현재 절 운영중
- 법당 20평,요사채40평,주차장넓음

010-3879-2544

암자(터)안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2채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가액: 10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경기지역 상가와 물물교환도 가능

011-343-6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부근 병풍산 아래
- 지장기도 도량 총평수 175평
- 법당 약 25평 / 방3개, 주방, 창고1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0-8330-0005
054)776-54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법당 : 20평(목조)
- 기도방2칸 요사채 30평(현대식)
- 오죽과 고목이 병풍처럼 둘러 있음
- 주차 대형차량 가능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958-2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
- 30년 넘은 사찰로 최고 위치
- 최상급 법당 내부 (약 50평) 최상급 요사 내부 (약 50평)
- 방 3, 거실, 실내화장실 2, 실외 화장실 3, 차고, 옥상
- 2층건물 대지 : 74평, 도시가스
- 가액 : 3억5천(융자 1억원 있음)

010-3621-8747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IC 2~3분 거리 탐산 온천 부근
- 임야 22,215㎡, 대지135평
- 전기 수도 2백미터 앞 4차선
- 가액 : 6천 5백만원
- 위치 : 경북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 전 1028㎡ 계곡물 철철 평당 7만원

010-4504-7809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 목조, 천불전(목조),
-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15억

010-8625-12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부근
- 135평, 임법당, 건물3동, 삼존불
- 신중단, 지장단, 칠성단, 영가단
- 도로에서 200미터 심야전기 보일러, 화목난로
- 가액 : 4천 5백만원

010-4146-655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낭월동 산 16-1
- 방 2, 부엌1, 법당1
- 가액 :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42)273-1677
010-8775-167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암자 적임지
- 1천평 평당 10만원

011-9323-8616

토굴 최요지

(큰 저수지가 앞에 있음)
- 위치: 경북 영천
- 평수 : 200평 (실사용평수는 1천평임)
- 가액 : 평당 10만원 (대출금액 일천만원있음)

010-3753-7844
010-7589-960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암자(급)안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
- 실 사용평수 약 500평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비품일체포함,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몸만 오시면 됨

010-4542-0902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큰사찰(터)찾는 분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양산 시내 및 고속도로,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40~50분 거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1만평
- 평당 10만원,답사 후 결정,주인직접
- 현재 절 운영중
- 법당 20평,요사채40평,주차장넓음

010-3879-2544

암자(터)안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2채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가액: 10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경기지역 상가와 물물교환도 가능

011-343-6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부근 병풍산 아래
- 지장기도 도량 총평수 175평
- 법당 약 25평 / 방3개, 주방, 창고1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0-8330-0005
054)776-54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법당 : 20평(목조)
- 기도방2칸 요사채 30평(현대식)
- 오죽과 고목이 병풍처럼 둘러 있음
- 주차 대형차량 가능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958-2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
- 30년 넘은 사찰로 최고 위치
- 최상급 법당 내부 (약 50평) 최상급 요사 내부 (약 50평)
- 방 3, 거실, 실내화장실 2, 실외 화장실 3, 차고, 옥상
- 2층건물 대지 : 74평, 도시가스
- 가액 : 3억5천(융자 1억원 있음)

010-3621-8747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IC 2~3분 거리 탐산 온천 부근
- 임야 22,215㎡, 대지135평
- 전기 수도 2백미터 앞 4차선
- 가액 : 6천 5백만원
- 위치 : 경북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 전 1028㎡ 계곡물 철철 평당 7만원

010-4504-7809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 목조, 천불전(목조),
-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15억

010-8625-12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부근
- 135평, 임법당, 건물3동, 삼존불
- 신중단, 지장단, 칠성단, 영가단
- 도로에서 200미터 심야전기 보일러, 화목난로
- 가액 : 4천 5백만원

010-4146-655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낭월동 산 16-1
- 방 2, 부엌1, 법당1
- 가액 :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42)273-1677
010-8775-167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암자 적임지
- 1천평 평당 10만원

011-9323-8616

토굴 최요지

(큰 저수지가 앞에 있음)
- 위치: 경북 영천
- 평수 : 200평 (실사용평수는 1천평임)
- 가액 : 평당 10만원 (대출금액 일천만원있음)

010-3753-7844
010-7589-960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암자(급)안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
- 실 사용평수 약 500평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비품일체포함,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몸만 오시면 됨

010-4542-0902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큰사찰(터)찾는 분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양산 시내 및 고속도로,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40~50분 거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1만평
- 평당 10만원,답사 후 결정,주인직접
- 현재 절 운영중
- 법당 20평,요사채40평,주차장넓음

010-3879-2544

암자(터)안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2채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가액: 10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경기지역 상가와 물물교환도 가능

011-343-6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부근 병풍산 아래
- 지장기도 도량 총평수 175평
- 법당 약 25평 / 방3개, 주방, 창고1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0-8330-0005
054)776-54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225-0012
02)403-333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주시 성근동
- 4층 중 3층, 아래시장 근처 시외터미널 10분거리
- 총평수 80평, 법당 30평, 방4, 거실, 주방 시설일체 완비
- 가액:1,000만원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863-4956
054)777-20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 양도
- 가액 : 3억 3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가격조정가능
010-4747-3164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2층 - 공양간, 3층 - 법당, 4층 -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011-895-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 평수: 58평
- 법당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법회가능 3층 엘리베이트 사용
- 전세 : 2,000만원 월세 80만원 (주인과 조절 가능) 시설비: 답사후 조절 가능

010-3402-4990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2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 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가 3층 48평
- 아파트밀집, 재래시장 인근
- 시설 : 법당, 거실, 방2, 주방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물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정가능)
- 현재 7년째 법회중
- 불사관계로 저렴하게 급 양도

010-3102-5321

사 찰 안 내

고추장, 된장, 간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숙성 알코올 분말을 특허 받았습니다.
제조에 참여 하실분 전화요망
- 토굴 200평, 삼존불, 황토방
- 가액 : 8500만원

010-3595-98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500만 조정가능

010-3589-8115

싼토지 안내(주택)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 임야 1만 3천평 건물 20평
- 대공식수 시설, 한적 한 곳 관리지역 번지 알려드립니다
- 가액 : 1억 6천

010-3288-131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시장입구)
- 평수 : 약90평, 4층건물, 3층 대법당, 최고의시설 완비
- 가액 : 전세 200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 상담하시는 스님 최고요지

010-3750-5424
02)826-6409

사 찰 안 내

고추장, 된장, 간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숙성 알코올 분말을 특허 받았습니다.
제조에 참여 하실분 전화요망
- 토굴 200평, 삼존불, 황토방
- 가액 : 8500만원

010-3595-98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500만 조정가능

010-3589-8115

싼토지 안내(주택)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 임야 1만 3천평 건물 20평
- 대공식수 시설, 한적 한 곳 관리지역 번지 알려드립니다
- 가액 : 1억 6천

010-3288-131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시장입구)
- 평수 : 약90평, 4층건물, 3층 대법당, 최고의시설 완비
- 가액 : 전세 200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 상담하시는 스님 최고요지

010-3750-5424
02)826-64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주시 성근동
- 4층 중 3층, 아래시장 근처 시외터미널 10분거리
- 총평수 80평, 법당 30평, 방4, 거실, 주방 시설일체 완비
- 가액:1,000만원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863-4956
054)777-20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 양도
- 가액 : 3억 3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가격조정가능
010-4747-3164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2층 - 공양간, 3층 - 법당, 4층 -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011-895-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 평수: 58평
- 법당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법회가능 3층 엘리베이트 사용
- 전세 : 2,000만원 월세 80만원 (주인과 조절 가능) 시설비: 답사후 조절 가능

010-3402-4990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명상가 · 임상심리학자)

〈4〉 통제하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분노 (사례)

다정한 시각으로 수치심 느낀 나를 바라보세요

중독적인 자기비난

샘은 잦은 분노 때문에 자신을 혐오했다. 책임 부서에서 그는 참을성이 없고 요구가 많은 완벽주의자 상사라고 소문이 났다. 핑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시가 즉시 능률적으로 이행되기를 원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능하고 미련하다며 부하 직원을 맹렬하게 비난하곤 했다. 집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딸이 콘서트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자 그는 분노가 폭발해서 딸이 자기 방으로 달아나 문을 잠글 때 까지 고함을 지르고 악담을 퍼부었다. 아내 제니가 연말 파티 음식을 주문하면서 실수를 하자 배달 직원들 앞에서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자제력을 잃은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하곤 했다. 아내와 딸에게 특히 미안해했다. 그는 사과하고 화해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수치심과 자기혐오는 다음 번 분노 발작의 도화선처럼 보일 뿐이었다. 사소한 자극에도 샘은 반사적으로 '저건 잘못이야' 라고 느꼈고, 곧바로 격렬하고 독선적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거나 상황을 망치고 있다거나 자신을 일부러 무시하고 폄하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는 울화통을 터뜨렸다.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샘은 알았다. 마음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완화(MBSR) 프로그램 덕에 불안과 불면증이 줄어들었다는 동료의 말에 샘은 회사에 유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마음챙김 명상으로 샘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조용히 앉아 호흡과 소리와 감각을 자각하는 순간과 정신없이 서두르고 바쁘게 일하고 발작적으로 분노하는 순간을 비교해보고 샘은 깜짝 놀랐다. "내가 완전히 극과 극인 두 사람 같았어요!"

샘은 나의 명상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상담과 명상의 도움으로 더 많이 이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잠깐 멈춰서 자각하는 방법을 익힌 후, 그는 주중 내내 특정 시점에 멈추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처음 책상 앞에 앉을 때, 전화를 끊을 때,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멈춰서 호흡과 신체 감각을 다시 느껴보았다. 멈춤을 기억해 행하는 순간은 "마법 같아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기회죠"라고 샘은 말했다. 하지만 버럭 화가 날 때는 "나는 미친 겁니다. 명상은 완전히 딴 세상의 일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샘은 끈기가 있었다. 수업을 들은 지 여섯 달 후, 그는 주말 명상에 참여했다. 주중에 개인 상담을 위해 만났을 때 샘은 상담실로 성큼 걸어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곧장 요점으로 들어갔다.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자기혐오를 자각할 수 있어요. 타라, 자기혐오요. 나라는 남자는 아주 많은 걸 가졌어요. 좋은 직업에 경제적 여유, 이상적인 가족, 그런데 정신 나간 머저리처럼 어디서나 분란을 일으켜요. 나는 화를 내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내 안의 이 난폭한 괴물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나 자신이 혐오스러워요."

샘은 우리 인간이 처한 딜레마를 더없이 명확하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자기비난의 수많은 이유 뒤에는 동일한 핵심 감정이 존재한다. 결함 있는 자아를 향한 혐오감이 그것이다.

자신을 통제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자기비난적인 생각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받아들임과 자기용서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거론된다. "내가 만약 폭식을 해서 내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닌가요?" "어째서 나 자신을 봐줘야 하죠?"

달리 말해보자. 자기용서는 그저 자신의 그림자를 묵인하는 한 방법일 분일까? 반드시 뿌리를 뽑아 철저히 없애야 할 자신의 일부를 외면하는 방법일까?

샘에게 나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 괴물을 혐오하면 화가 덜 나세요?" 대답 대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대화를 계속하면서 나는 샘에게 내가 말하는 자기용서는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방종을 허용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자기용서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걸고 정신을 위축시키는 자기혐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목표에 이르는 첫 걸음은 자기 비난에 갇히는 순간에 잠깐 멈춰서 주의를 심화하는 것이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이틀 후, 샘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두 번째 화살은 모두 사소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니에 대해 생각하면 사정이 달라요. 2주 전에 제니가 유방 엑스선 촬영을 했는데 암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화요일에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는 금요일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소포였어요. 제니더러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게 거실에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화가 치밀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에 대해선 까맣게 잊었죠." 눈물이 솟구쳐서 그는 말을 멈추었다. "제니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의사들이 초기에 잡아냈어요. 제니의 건강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은 명상을 하다가 제니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그 즉시 일어나야 했다고 샘은 말했다. "내 방으로 가서 마음껏 폭발시켰어요. 계속 울면서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제니더러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하듯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노를 터뜨린 후에 엄마한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홧김에 와인 잔 다섯 개를 깨뜨렸거든요. 하나씩 찬장에 집어 던져서요. 그때 나는 부엌 문가에 서 있었죠. 열한 살 때쯤이었어요. 아버진 내가 거기서 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남동생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통화 중에 상대방이 누구든 전화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일이 닥칠



화가 많은 사람은 자기혐오 벗어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순간을 집중해야

타인에 상처 준 행동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방종 허용이 자기용서 아니다

지 아무도 절대 몰랐지요." 샘은 숨을 크게 들이쉰 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래요, 타라. 난 자라는 내내 아버지를 혐오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기억이 나요. 화를 참지 못한다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편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자제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마약에 취해서 자신의 분노에 완전히 휘둘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역시 당신 자신을 경멸했어요. 그게 떠올랐을 때 깨달았어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요. 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막 화가 나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잠시 침묵으로 그의 깨달음을 존중했다. "샘 당신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 깨달은 것은 진실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점을 알아두세요. 당신은 책임을 지는 법을,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에만 가능해요."

이 말을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말은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지혜가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질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 나아졌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첫 번째 화살–수치심과 자기혐오를 일으키는 자신의 면면–을 우리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결함을 구체화하고 지속시키는 요인이 수없이 많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불안증이나 공격성, 우울증 성향을 타고 난다. 우리는 중독과 폭력, 기만과 탐욕이 만연한 문화에서 성장한다. 주변 환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오염물질로 가득하다.

가까운 가족은 경제적 곤란과 갈등과 오해로 자주 괴로워하고 이전 세대부터 전해져온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의 양육자가 우리를 돌보는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 이 요인들이 상호작용해 고통스러운 감정과 강박적 행동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만들어낸다.

복잡하게 엮인 요인들이 우리의 경험을 일으킨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통찰한다. 즉, 자아감을 형성하는 강렬한 감정들은 개인과는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폭우나 가뭄이 특정 농가를 겨냥하지 않듯이, 우리의 다양한 감정은 '나' 라는 특정한 몸과 마음에 소유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는다. 그 감정들은 개개인인 그 너머에 있는 요인들에게서 생겨난다.

두 번째 화살 피하기

샘은 자기비난과 자기혐오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니 그 일이 가능할지 알지 못했다. "내가 나쁜 인간이라는 느낌이 때로는 너무 강해요.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딸에게 도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가 자신을 즉시 용서하는 건 대체로 불가능해요. 자기용서는 하나의 과정이고,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여민과 친절로 대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상담을 마치기 전에 샘은 나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명상을 했다.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집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무엇이 분노를 자극했는지를 기억해보세요. 이제 그 분노를 그냥 거기 내버려두세요. 주의를 기울여 그 분노를 인식하고 허락하세요. 분노가 당신의 몸의 어느 부위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원래 모습 그대로 존재하라고 권하세요." 나는 잠시 기다렸다. 샘의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고 내가 물었다. "그 분노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나지요?" 샘이 발끈하며 쏘아 붙였다. "내가 하라고 시킨 것 제니가 안 해서 화가 나요."

"그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죠?" 내 물음에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게…그 분노의 이면에는 제니가 나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제니는 날 무시했어요. 나를 존중하고 내게 관심이 있다면 제니는 내가 해달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는 다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혹감이나 수치심도 느껴져요. 내가 해달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는 다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혹감이나 수치심도 느껴져요. 내가 해달라는 걸 제니가 안 해준다면 틀림없이 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요."

샘이 한 말을 나는 똑같이 되풀이 하자, 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불안의 실체를 이해했다.

"좋아요. 이제 자신을 잠시 바라보세요.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친구의 눈을 통해 보듯이. 당신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당신의 수치심과 무시당한 느낌을 십분 이해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세요. 이제, 그 다정한 시각에서 당신에게 용서와 연민의 말을 전하세요. 가령, '너를 용서해.' 또는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어.' 또는 '이 괴로움을 내가 달래 줄게.' 이렇게 이해와 보살핌을 전하는 말은 무엇이든 건네 보세요." 샘은 침묵 속에서 잠시 그것을 행하다가 눈을 떴다. 눈빛이 환하고 차분했다. "꽉 조였던 뭔가가 풀리고 공간이 넓게 트였어요." 샘이 말했다. "마치 분노로 가득한 내면의 장소를 내 마음이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불안하게 떠는 그 곳을…게다가 아버지까지 날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그 다정한 공간을 함께 느껴보았다. 상담실을 나서기 전에 샘이 말했다. "내가 결점 투성이기는 하지만 나쁜 인간이라는 느낌은 안 드네요. 이렇게 느낀 건 처음이에요. 분노는 복합적인 나의 일부에요. 하지만 이제 나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에 꽤 괜찮은 인간이 살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샘과 나는 앞으로 여러 달 동안 명상 치유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한 본성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샘은 용서하는 마음이 주는 자유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타라 브랙의 〈삶에서 깨어나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월인



부처님의 가피를 찬탄합니다.
지령 1000호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한국불교 구석구석 허투루 보지 않고 담담히 담아내며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따뜻한 눈길로...
큰 성과 이루신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 드리며, 더욱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한국불교 원융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한국불교를 증명하며 그 역사를 기록해 온 20년..
쉽지 않는 상황에서 꺽이지 않는 붓을 지켜온 지령 1000호.
그저 그 노고에 함께 기뻐할 따름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 전진하는
한국 불교언론의 중심으로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무산스님 (횡성무무암 회주 ·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장 · 사단법인 국제고미술진흥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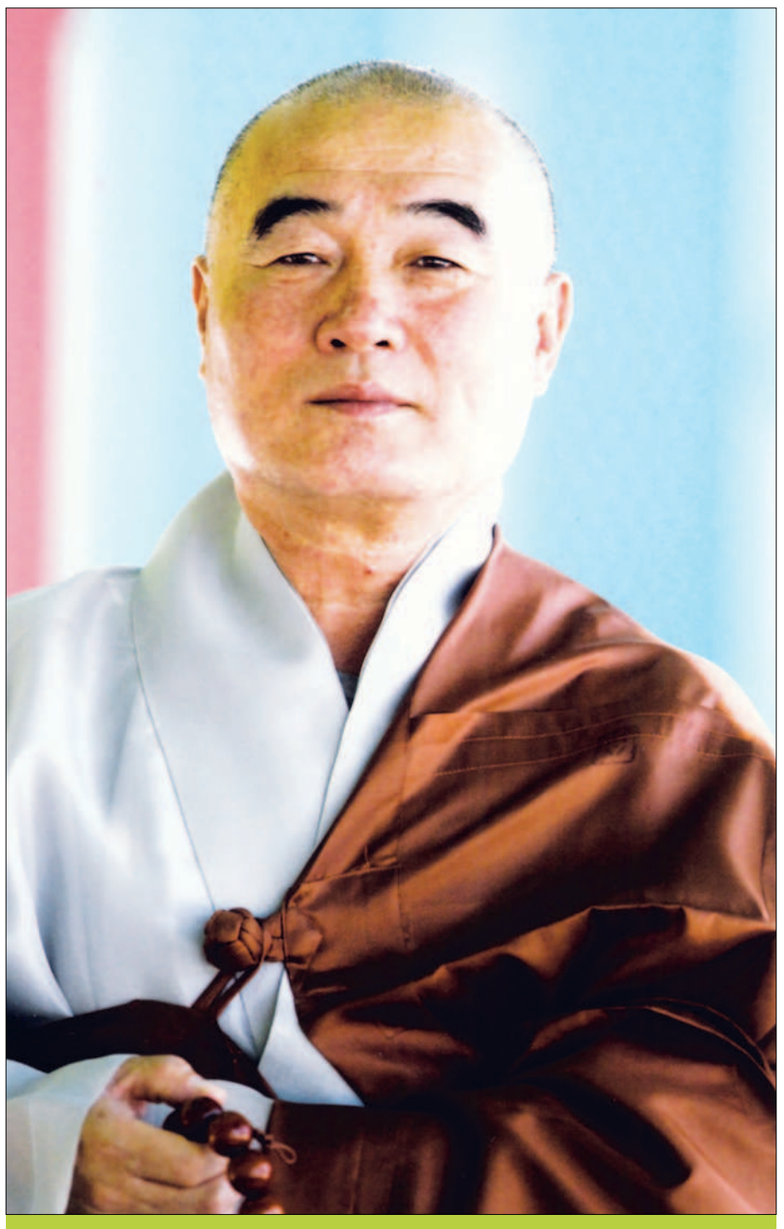
입안의 도끼로 자기 몸을 찍어 구시화문에 걸리지 말아야

口是禍門

예수님도 추기경도 법정스님도 청문회 통과 못한다는 세상 논평, 인과응보의 자업자득 결과

'소박함'과 '천진함'은 대개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심성(心性) 가운데 하나다. 마음속에 '잡티 같은 욕망' 하나 없고, '생활의 파도'에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무명(無名)을 떨쳐버린 구도자며, '위(位)'를 알지 못하리라. 횡성무무암 무산스님은 지상설법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명자(名字)에 얽매이지 않고, '삶이 주는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는 수행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무산스님은 불법의 오묘한 진리를 손쉽고 일목요연하게 경직된 거리감없이 명쾌히 일갈했다. 불교의 요체인 참뜻을 설하는데 진실로 자유자재했다.

〈대담 : 종교세계신문 윤기순 기자〉



무산스님은 "최근에 어떤 이가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에 걸려서 넘어졌다"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짓는 업의 결과와 갚음의 인과응보 진리를 깨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면서 지금 까지 설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여래는 참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알찬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말씀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허황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須菩提! 如來是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誑語者 不異語者"

이 말씀은 모두 다섯 종류의 말씀입니다. 진어자나 실어자는 쉽게 이해가 가지만 여어자如語者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해서 '말씀다운 말씀을 하는 분'이라고 저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부처님께서 너무나 진실 된 말씀이나 지극히 청정한 것을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여어如語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금강경을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다섯 종류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이가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구시화문口是禍門에 걸린 겁니다.

요컨대 여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말을 함에 있어서 여어함은 물론이려니와 기만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不誑語)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야(不異語)합니다.

요즘 세상은 언로言路가 트일 대로 트여서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언행뿐만 아니라 몸가짐까지도 올 바라야 합니다. 더욱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말입니다.

산승은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하도 세상이 시끄러워서 가끔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재미가 있어요. 청문회를 두고 그것을 통과하기가 참으로 힘든가봅니다.

어느 일간지 1면 머리 제목이 "대독 총리에 '추기경 級' 자격요구"라고 했고 뒤이어 어느 미디어는 "청문회 예수님도 통과 못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추기경님도 통과 못한다는 글에 어느 네티즌은 "법정스님도 통과 못해" 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세상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든 사회든 인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가봅니다. 〈장자莊子〉의 우화寓話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씨라는 성을 가진 목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사당 앞에 우뚝 솟은 상수리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상수리나무는 몇 백 년이 되었는지 그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큰 나무의 그늘은 십여 마리의 소를 가릴 수 있고, 줄기는 몇 아름인지 짐작할 수도 없고 높이는 80자쯤의 위에 가지가 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있는 목수는 거목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배를 건조해도 될 만한 가지가 열 개도 넘는데 이를 그냥 지나치자, 뒤따르던 제자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이런 훌륭한 거목은 이제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스승님께서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데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석씨 목수는 대답합니다.

'별도리 없는 사람들이구먼. 저 나무는 무용無用의 거수巨樹야. 저것으로 배를 건조하더라도 가라앉을 것이고 관棺을 만들어도 곧바로 썩어버릴 것이다. 도구를 만들어 쓴다 해도 이내 부서질 것이며, 문이나 문짝을 만든다 해도 수지樹脂가 나와서 망가질 것이고, 기둥으로 세우면 곧바로 벌레가 먹을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나무란 말일세.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비유는 '쓸모없는 것 無用'과 '쓸모 있는 것 用'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시시비비와 가可 불가不可가 끝없이 뒤얽히는 이 세상에 있어 특히 권력이 작용하는 사회에 있어서 천수를 다하여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위의 얘기에서 보이는 것은 쓸 수 있는 재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사는 하지안음만 못한 겁니다.

앞서 자기가 한 말에 걸려서 넘어진 분도 지나치게 아전인수 격으로 말을 만들어 한 것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열광적인 교도라고 하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부분만 가지도도 그는 매우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광적인 신앙인으로서 치우친 행정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에 앉을 자격을 잃은 겁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엎어진 물과 같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부처님은 일찍이 법구비유경에 게송을 남겼습니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잘난 체 뽐내면서/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면/미움과 원한이 움을 튼다.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남을 높이고 공경하며/맺힘을 풀고 욕됨을 참으면/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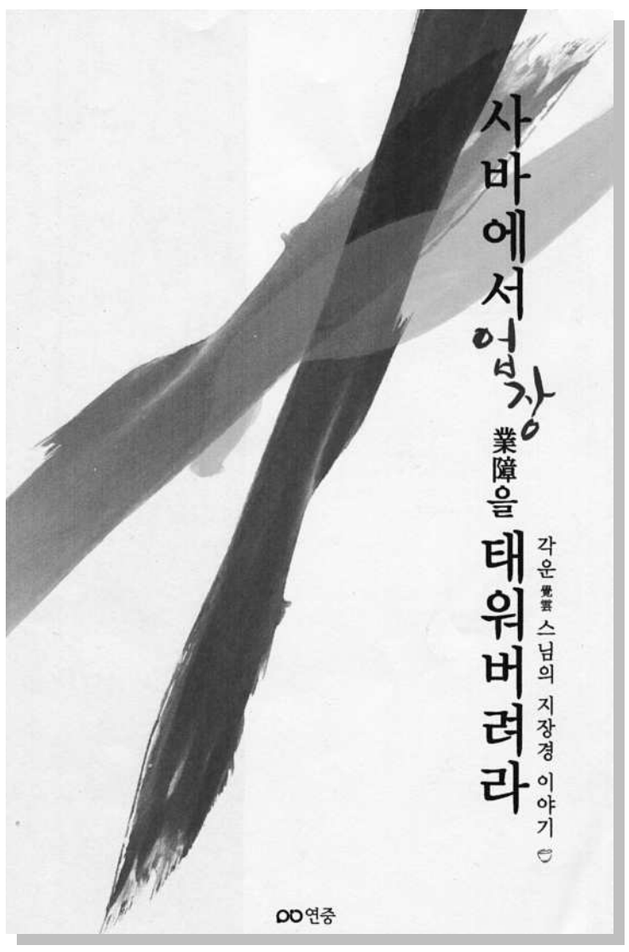
무릇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그 입안에 도끼가 생겨/그로써 제 몸을 찍나니/그것은 악한 말 때문이니라."

'입 안의 도끼로 자기 몸을 찍는다.' 주의 깊게 새겨야할 명언입니다. 구업口業의 인과관계를 가리키는 이 게송은 바로 우리네들이 일상적으로 짓는 업의 결과, 또는 그 갚음의 업보, 또는 응보를 생각해 하는 귀감입니다.

바로 이 인과 응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짓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 자박자수自縛自手라 합니다.

업에 의해서 그 받는 과보의 시기가 있는데 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순현보로서 과보를 현재에 받는 것이고, 순생보는 이 다음 생에 가서 받는 과보이고, 순후보는 내생이 아니더라도 그 자신이 뿌린 것을 언젠가는 거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일은 거저 되거나 우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므로 오늘 날의 세태 또한 그러하다고 보면 될 것 갔습니다.



경전(經典)에 감성을 입힌…무산스님 지장경 이야기

"사바에서 업장을 태워버려라"

이 한권의 책으로 우리는 대승적 대원력의 큰 보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빛내주신 지장보살처럼 중생을 위한 우리들 모두가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풍요로운 정신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곳곳의 암울한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참사랑과 대자비심을 실천합시다.

(본문중에서)

■ 구입처 : 횡성 무무암 (033)344-8833 / 서울 (사)전사련 (02)2198-5022~4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00호 현대불교
2014년 7월 10일(음 6월 14일) 목요일 / 불기 2558년

한마음의 도리로 모든 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어야

여러분과 더불어 광명선원 신축 건물 착공식을 한마음으로 한 몸으로 이렇게 같이 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나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흙을 파내도 흙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도 말없이 흐르고, 봄이 오면 말없이 잎이 푸르르게 나오고 꽃이 피는가 하면 가을이 되어 저절로 낙엽이 져서 떨어지곤 하지요. 이 무상의 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상의 도리다' 한다면 무심의 도리도 알아야 합니다. 무심의 도리, 즉 말하자면 원천의 도리를 인천으로서, 인간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이 찰나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 점을 여러분이 캐치해야만이 물질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세계로 들 수 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으로 첨단을 달린다고 하지만 정신세계로 첨단을 이루는 과학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과학이니만큼 의학이나 모든 분야가 정신과학으로 첨단을 이룰 수 있어야만 되죠. 그러려면 우리 조그마한 인간의 씨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굴리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딛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승려들이 여러분이 가져오는 쌀이나 물건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 깎고 염불이나 하고 중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고 입산할 때는, 사문이 될 때는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그 마음 하나의 씨 없는 씨를 발견하기 위해서죠. 그럼으로써 등불을 켜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컴컴한 사람을 이끌어 가고 밝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생활이 정신과학이며 의학도 정신의학이고, 일체가 정신으로부터 비롯되기에 한마음에 들지 않고는 첨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자기 몸을 불사하는, 자기를 헌 신처럼 버리는 그러한 사문이 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니 되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나는 응달에 앉았으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뜨거운 데 앉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살을 빌리고 뼈를 빌려서 정자 난자와 같이 혼합이 돼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 모습들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남습니다. 이긴 거죠. 그 많은 생명들 중에서 하나가 이겼습니다. 근데 몸은 받았으나 그 영혼이 거기 결부가 돼야만이 삼신을 받아서 임신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몰라서 내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또 묘한 것은요, 자기의 영혼이 거기에 혼합이 되는 동시에 자기가 인과로 받은 업식들이 말입니다, 악업 선업이 다, 자기 영혼이 들어가는 데 같이 포함돼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받아서 자라는데 그 내부에, 세포에, 오장 육부에 인과로 인해서 받은 모든 업식들이 한데 합쳐져서 길러집니다. 어린애가 자라면 자라는 대로 같이 자라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다 움죽거리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비로소 여러분도 또 움죽거리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을 안 해 주면 이 큰 덩어리 하나가 움죽거려지지 않습니다.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하는 소리는, 우리 생명과 근본이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나질 않아서 이 지구도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말겠지요.

그러니 우리 이 몸속에 악업 선업이 한데 합쳐 있으면서 여러분을 웃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아주 참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반면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게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게 하기도 하고 밉게 하기도 하고 증오하게 하기도 하고 화도 나게 합니다. 인과로써 거기에서 자꾸자꾸 수많은 의식들이 나옵니다. 선업을 지은 건 선업을 지은 대로 자기 마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악업은 또 지은 대로 자기 마음을 통해서 악으로 나오니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커버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쁘다 좋다 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다스리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 개 세 개는 아니지만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좋고 나쁜 걸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 그 의식들에서 나오는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대로 따라갑니다. 좋고 나쁜 걸 아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즉 인솔해 주면 인솔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이런 걸 해서 나쁜지 이런 걸 해서 좋은지도 모르고 따라가죠.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 좋고 나쁜 걸 아는 분들이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고 나쁜 걸 아는 그 마음이 다스리면서 좋은 결과가 즐겁게 나오걸랑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또 악으로 인해서 남을 이익 되지 않게 하는 마음이 나오걸랑 침착하게 거기에 놓고 굴려서 '아,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다시 놓는다면, 좋은 마음을 내서 거기 이익이 되게 놓는다면 유전성도 무너지고 영계성도 무너지고 세균성도 무너지고 모두가, 오간지옥이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솟구쳐 오르면 솟구쳐 오르는 대로 얼굴도 변하고 행과 말도 그냥 악의적으로 쏜살같이 나가게 합니다. 남에게 누가 되게 하고 남에게 듣기 싫게 하고 남이 안되게 마음을 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다면 그게 악이지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꼭 사람을 죽여서만 악이 아닙니다.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을 이익하게 하는 일은 하시고, 악한 마음이 나올 때는 거기다 놓고 한번 굴려서 다시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끔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한마음의 도리로 모든 것을 커버

☞ A30면으로 계속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습에 끄달리면 절대로 苦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A29면에서 계속

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한마음이 되어야 공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둘로 보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말 함부로 하고 부드럽지 않게 행을 한다면 모두 악이 돼서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한테 시주를 많이 하고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고 생각한다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한 게 없다' 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고서 착을 갖고 원망을 하고 그런다면 그게 공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마음으로 되질 않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진드기의 발 하나도 발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의 발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땅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심어져 있는 것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던 겁니다. "내 발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어서 평발로, 한발로 디뎠느니라." 그래서 평발이거든요. 벌레, 곤충의 발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 그분만이 평발이 아니라 일체의 발이 어느 것 하나 빠짐 없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처님 발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한발이요 평발이라, 그 평발로 디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행하는 법이 독불장군이 없이 같이 행하기 때문에 사장은 직원으로 인해서 직원은 사장으로 인해서, 회장은 사장으로 인해서 직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같이 주고받으며 먹고 사는 조화된 세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세상이라고 한 것이고 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말할 때는 대천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삼천대천세계는 어떤 것인가. 과거에도 그대로 대천이요 현실에도 대천이요 미래에도 대천이니 그 대천은 삼천대천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와 똑같이는 얘기 안 하지마는 뜻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푸르른 청산이 있는가 하면 저 물은 끊임없이 흘러 돌고 있고, 끊임없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끊임없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사계절이 돌고 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수없이 나오는 거를 수없이 다스려서 거기 놓는다면,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은 '거기에서만이 걸리지 않고 돌아가게 할 수 있다.' 는 믿음과 더불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생활과학이요, 바로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우리 공부는 끊임없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요 나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처럼 기술이 요요합니까? 남의 나라처럼 마음이 그렇게 깨어서 삽니까? 정신세계로 진출해서 갑니까? 물질을 좇는 데만 여념이 없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세계는 언제 돌아다보겠습니까. 미래의 세계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현실세계가 과거가 되고, 과거의 세계에서 본다면 정신세계가 미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요 또는 과거와 현실이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린 마음으로써 항상 그렇게 다스려 가면서 모든 거를 놓는다면, 크면 큰 대로 다스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다스려서 놓는다면 화목이 오지 않을 수 없고 조화를 이루어서 끝간 데 없이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과학으로 이탈 없이 가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신세계, 무심 도리의 도를 알 수 있게 해야 하죠. 무심 도리를 배워야만 물질세계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영력(靈力)이 생겨서 과학적인 문제를 첨단으로, 정신세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눈 달리고 귀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머리가 영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하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보고 들은 게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남들이 자장면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자장면을 만드는 것도 못 봤고 먹어 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먼저 자장면을 연구해서 만들었고 먹어 봤습니다. 내가 미국 등지로 다니면서 들어 보면 그 박사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미국인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말씀하듯 내 생산처가 여기 있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지만 내 생산처가 무궁무진하게 내 깊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갑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 핵심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불어넣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첨단의 무심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말, 언어는 다르지마는 그 뜻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나 가톨릭교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지금 가톨릭교나 기독교의 성당이나 교회가 많이 비었습니다. 난 그걸 눈으로 보고 다녔으니까요. 거기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흑인들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걸로써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텅텅 비어 있는 성당이나 교회가 많아요.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집에 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만날, 즉 말하자면 빈집 단속하라고 하는 거밖에는 없으니까 안 나가죠. 빈집, 내 마음의 빈집! 여러분도 비었다면, 주인이 없다면 '네 마음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한마음으로 너의 마음속에 같이 밝게 할 수가 없다. 한마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임제 스님이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주지 못할 것이고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니라."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털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바로 세균성, 영계성, 귀신들, 도깨비 모두가 들랑날랑거려서 녹이 슬고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그 집은 그냥 순간 망가질 수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주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생산처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빈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신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잘되게 해 달라고 바깥으로 관세음보살 찾고 문수보살 찾고 보현보살 찾고, 칠성부처 찾고 지장보살 찾고 약사보살 찾고 아무리 해 봐도 그건 허탕이에요.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생산처인 줄 알고 일체가 평등공법임을 아시고 칠보활궁공법을 아시고 수레공법을 아신다면, 사무 사유(四無四有) 팔수레공법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한마음이 돼서 저 나무 이파리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십이응신으로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법신으로서 모두가 화해서 응해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가 원을 해도 응해 주시고 곤충 하나가 원을 해도 응해 주신다 이거예요. 응해 주신다는 뜻은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 이거지요. 찰나에 한마음으로 들어 주시고 찰나에 한마음이 너 나로 분리돼서 또 한 찰나에 나시고, 이게 달라 하면 이게 달라는 대로 저게 달라 하면 저게 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처라고 이름할 게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내가 어떤 것이 되어서 한마음이 돼 줄 때에 나라고 하고 내가 해 주었다고 하며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처라는 것은 이름 없는 것이 부처이고 그 이름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법성신이니라.

그러니 여러분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온 것이니까 이 몸속에 있는, 내 인과에 따라서 만난 인연들, 중생들을 내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두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독사의 모습이라면 그 독사의 모습을 면치 못하고 끝간 데 없이 악독한 그 모습을 가지고서 행해야 되고, 그 모습을 벗을 길이 없어서 오백 생을 지내야만이 또 한 번 인도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곤충이나 짐승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았으면 인간의 습이 있을 거고 곤충으로 살았으면 곤충의 습이 있을 거고 독사로 살았으면 독사의 습이 있을 거고 소로 살았다면 소의 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습을, 모든 걸 놔라 이겁니다. 습에 끄달린다면, 관습에 끄달린다면 절대로 그 고덩어리 속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벌써 그건 내 몸으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세계,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 손해입니다.

젊은 분들은 임신을 했더라도 한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서 그 아기도 잘 자랄 것이고, 그저 싸움이나 하고 악의적으로 남을 원망이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아기도 따라서 그런 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어머니의 교양이 얼마나 참, 태아의 이미지로 부착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여러분의 마음 따라서 움죽거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팥죽 솥이라면 주걱으로 익으라고 젓는 놈은 바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좋고 나쁜 걸 아는 고 마음, 고놈입니다. 그런데 팥죽 솥에서 불끈 불끈 불끈 그냥 수없이 일어나는 그 팥죽 방울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아주 좋아하고, 또 '너 죽일 년이래.' '죽일 놈이래.' 이러고 회사에서도 '너는 벌써 이렇다더라. 윗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러면 그냥 화가 불쑥 나고 기가 이만큼 올라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거든요. 고렇게 만든다고요. 듣는 대로 만들고 보는 대로 만들고 행하는 대로 만들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 일어나듯 불룽불룽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저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일어나고, 지나가면 또 일어나고 지나가면 또 일어나면서 기쁜 마음은 그저 잠시잠깐이고 삶의 보람 있는 고 순간은 바람결같이 스쳐 갈 뿐이죠. 그러니 24시간 동안에 즐거운 마음이 몇 초나 들까요?

(다음 호에 계속)

>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 남을 이익하게 하는 일은 하시고,
> 악한 마음이 나올 때는 근본에다 놓고 한번 굴려서
> 다시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끔
>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위 법문은 1991년 7월 14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66권의 저서 출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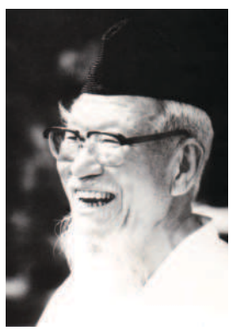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바른보인

하계 일주일 철야정진 안내



산청 보림선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계 일주일 철야정진을 실시코자 하옵니다.
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셨습니다. 재가자는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거사풍의 공부 방편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4년 7월 26일(토) 오후 9시부터
8월 1일(금) 오전 7시까지
■ 장 소 : 산청보림선원 (055-972-9555)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860번지
■ 교통편 : ❶ 서울남부터미널 – 원지시외버스터미널(3시간10분소요)
❷ 원지에서 중산리행승차 국동마을하차(20분소요)
❸ 진주시외버스터미널 – 중산리행승차 국동마을하차(40분소요)
■ 내 용 : 백봉선생님 CD설법 및 녹취집 교재 참선수행
■ 회 비 : 12만원
■ 신청 및 문의처 : 산청보림선원 (055-972-9555)
청봉 (010-6332-4096)

산청보림선원 청봉 합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불자 세상보기

고위공직 거부하는 이들의 속내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가대개조 프로젝트가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현 총리의 유임 결정 및 개각대상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속 터지는 인사난맥상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 대상자들의 일부가 인사청문회에 불려나가느니 차라리 제안 받은 직책을 반납하겠다는 인식과 태도이다. 그들에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고위공직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망신'을 자초할 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이자 사회적 명예보다는 사생활의 노출을 꺼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을 수행할만한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일반국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태의 한 단면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른바 압축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외면해온 것에 대한 필연적인 과보라는 생각도 든다.

후보자들의 중도하차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국무총리란 직책은 옛날로 말하자면 '만인지상(萬人之上) 일인지하(一人之下)'로 불리던 재상(宰相)에 해당할 것이다. 오직 임금 한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윗자리를 가리키는 말 그대로 최고위 관직이었다. 그런 만큼 재상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 뿐더러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꿈꾸던 모든 선비들에겐 선망의 대상 그 자체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처럼 높은 벼슬을 주저 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선 후보자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국무총리와 같은 고위직의 제안도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과 가족 및 주변 친지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한 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리를 권유받은 사람들이 직책의 수락을 고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리라고 본다. 실제로 사회적 명성이 높거나 학문적 위상이 높은 사람들도 알고 보니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조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다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는데 유독 고위공직자들에게만 현실에 맞지 않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 낭비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다고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고위공직자를 선택하는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사회적인 공동가치의 모색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출세의 욕구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발상의 전환은 곧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와 같은 우리들의 소박한 바람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도록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사청문회는 없어져야 할 제도가 아니라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장치로 거듭 나야 하리라고 본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달라이라마 방한 이뤄질 것인가?

불교계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으로 구성된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는 7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진회 발대식과 달라이라마 방한 선포식을 열고 2016년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서명운동과 대법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방한은 당위성의 문제



현각 스님
추진위 집행위원
(원주 성불원 주지)

지난해 10월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8차례 회의를 거쳐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가 결성됐다. 알다시피 8월에는 교황이 방한한다. 교황은 국빈대우를 받으며 관련 경비 등이 국고 지원된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종교지도자로서 누구는 방한할 수 있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종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중국 눈치를 보며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국이 한국의 내정간섭국인가? 국가는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때 내야하고 자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달라이라마는 평화주의자이며 노벨상 수상자다. 한평생을 평화와 자비의 화신으로 살아오신 분의 가르침을 생전에 듣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다. 그런 그가 갈등많은 한국에서 누구나 평화롭게 살면 그게 최고의 가치라며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교황은 제도로서 만들어 뽑힌 분이지만 달라이라마는 70년 넘게 끊임없이 수행해온 분이다. 그에게서 나온 메시지나 에너지는 대단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한이 성사될까 의문을 두는데 이는 당위성의 문제다.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다. 안 되더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면 하는 것이다.

달라이라마 역시 방한 고대



진옥 스님
추진위 집행위원
(여수 석천사 주지)

달라이라마는 신라시대 무상 스님이 티베트에 불교를 전해줬다면서 평소 한국을 형님 불교 국가로 칭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대승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한국에 자리잡고 있는지도 보고 싶어하신다.

예전에 고려대장경 판본을 보여드린적이 있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감탄하셨다. 이어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장경각을 꼭 참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중국과 티베트, 남한과 북한 등 정치적 이유로 민족 자주권 실현이 어렵다는 동병상련역시 존자께서 한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지난 20년간 수차례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역시 주변에서는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내주겠냐며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상황은 항상 변한다. 어떤 것도 똑같이 머물러있지 않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과 대화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책 역시 변하고 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방한 여론을 형성해가는 등 차근차근 이에 관련 준비를 해갈 것이다.

불자들 한마음 돼야 가능해



박광서 교수
2001년 방한준비위원장
(서강대)

당시에는 국내 불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거부감을 나타냈다. 내부의 역량이 부족한데다, 외부 압력을 못견뎠기 때문이다. 종단은 정부의 압력, 정부는 중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

이번 교황의 방한을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불교와 다르게 가톨릭은 전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불교는 나라마다 종단이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에 비해 응집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한국불교 발전에는 큰 자극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 스님들이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스님이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지언정, 한국불교 발전에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리적이다. '선승이면 어떻고 티베트 스님이면 어떤가. 올바른 스님이면 환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생에게 한 걸음 더 나와야겠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자극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다. 역대로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왔다. 이런 기조에서는 불교계가 하나로 뭉쳐야 방한이 가능할 것이다.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社說

다시 '1000호 결사' 시작한 현대불교

지령 1000호.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한 본지(本紙)가 지령 1000호를 맞았다.

본지는 지난 20년 동안 주간 신문으로는 드물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발행해 왔다. 매 호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그리고 중도적 시각과 중생교화 방편에 입각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창간호의 사설을 통해 '가르침으로 한마음 될 때까지' 매진할 것을 서원한 본지이기에 불자 개인의 신행과 삶에 대한 문제에서 사회와 국가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와 대안을 제공하며 독자들의 도반이 되어 왔다.

이러한 본지의 행보는 신문이라는 방편을 통해 정토구현 결사(結社)를 주도해 간다는 신념이었다. 매주 현대불교를 읽으며 신행을 가꾸어 온 수많은 독자들이 소중한 결사대중이다.

전법교화는 본지의 존재이유
1000호 발판삼아 새 언론 틀 구축
"독자 마음에 법등 밝히자" 재 다짐

지령 1000호를 맞는 본지의 소감은 '좋은 점을 살려 더욱 좋은 신문을 만들자'는 것이다.

수많은 현장 기사와 기획, 다양한 포교사업과 문화 이벤트, 다종교간 갈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과 인터넷 시장의 선구적 개척과 방향제시 등 '현대불교'의 이력 속에는 21세기 한국불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제 본지는 새로운 1000호의 역사를 장엄하기 위해 걸어 온 발자국 속에서 보석같은 경험을 찾아내 더욱 빛나게 세공하고, 변하는 시대상을 따라 새로운 언론의 틀을 구축해 갈 것이다. 이는 정토를 향한 결사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또 한 번의 약속이다.

불교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더 없이 많음'을 의미한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그렇고 '삼일 닦은 마음이 천년의 보배'라는 게송이 그렇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에 놓여 있듯이 언론의 변화도 빠르고 역동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 시대에 주간신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더구나 불교계의 언론 환경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열악하다. 불자들의 신문 구독률은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익구조 자체가 불안정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본지는 인쇄매체를 통한 소통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불교적 정서 속에서 그 장점을 잘 살리면 그야말로 '황금알'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기능을 뉴스 전달, 비판과 대안제시, 견제와 조정이라 말한다. 거기에 현대불교는 전법과 교화라는 기능을 더하고 있다. 전법과 교화의 사명은 매일 매일의 '전도선언'이고 본지의 존재 이유다. 부처님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펼치라"고 하셨듯이 본지도 매 호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읽을거리로 감동과 공감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급박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불교전문 신문은 마땅히 자각과 성찰 그리고 대승정신의 실천을 이끌어 가야한다. 중생계에 이롭지 않은 신문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감의 중요한 척도는 독자들의 호응이다. 좋은 기사를 격려하고 잘못된 기사를 질책하는 독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없이는 언론을 통한 정토실현 결사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시대가 바뀌지 않았는가? 쌍방향 소통이 없는 언론은 보살도 실천의 견인차가 될 수 없는 시대다. 독자들의 무한한 사랑이 본지의 1000호를 이끌어 준 힘이다. 따라서 앞으로 1000호를 1000번 만들어 일체중생이 성불의 문을 열 때까지 본지는 독자들의 마음자리에서 법등을 켤 것이다.

독자 제현이 우리의 언론 결사에 동참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백중 천도재

▶ 초재 : 7월 9일(음. 6. 13, 수), 쌍계사 방장 고산큰스님
▶ 2재 : 7월 14일(음. 6. 18, 월), 조계종 대종사 성우큰스님
▶ 3재 : 7월 19일(음. 6. 23, 토), 조계종 대종사 불심 도문큰스님
▶ 4재 : 7월 25일(음. 6. 29, 금), 조계종 대종사 현해큰스님
▶ 5재 : 7월 30일(음. 7. 4, 수), 봉선사 조실 월운큰스님
▶ 6재 : 8월 7일(음. 7. 12, 목), 조계종 대종사 암도큰스님
▶ 막재 : 8월 10일(음. 7. 15, 일),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밀허스님

※ 백중 천도재 동참하신 분께는 회주 無一 우학스님의 금강경 CD와 천도 법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 053-474-8228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정사
• 법 명 : 혜진(이상주), 혜관(심상용)
• 주 소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67-2 2층

위 사찰과 위 2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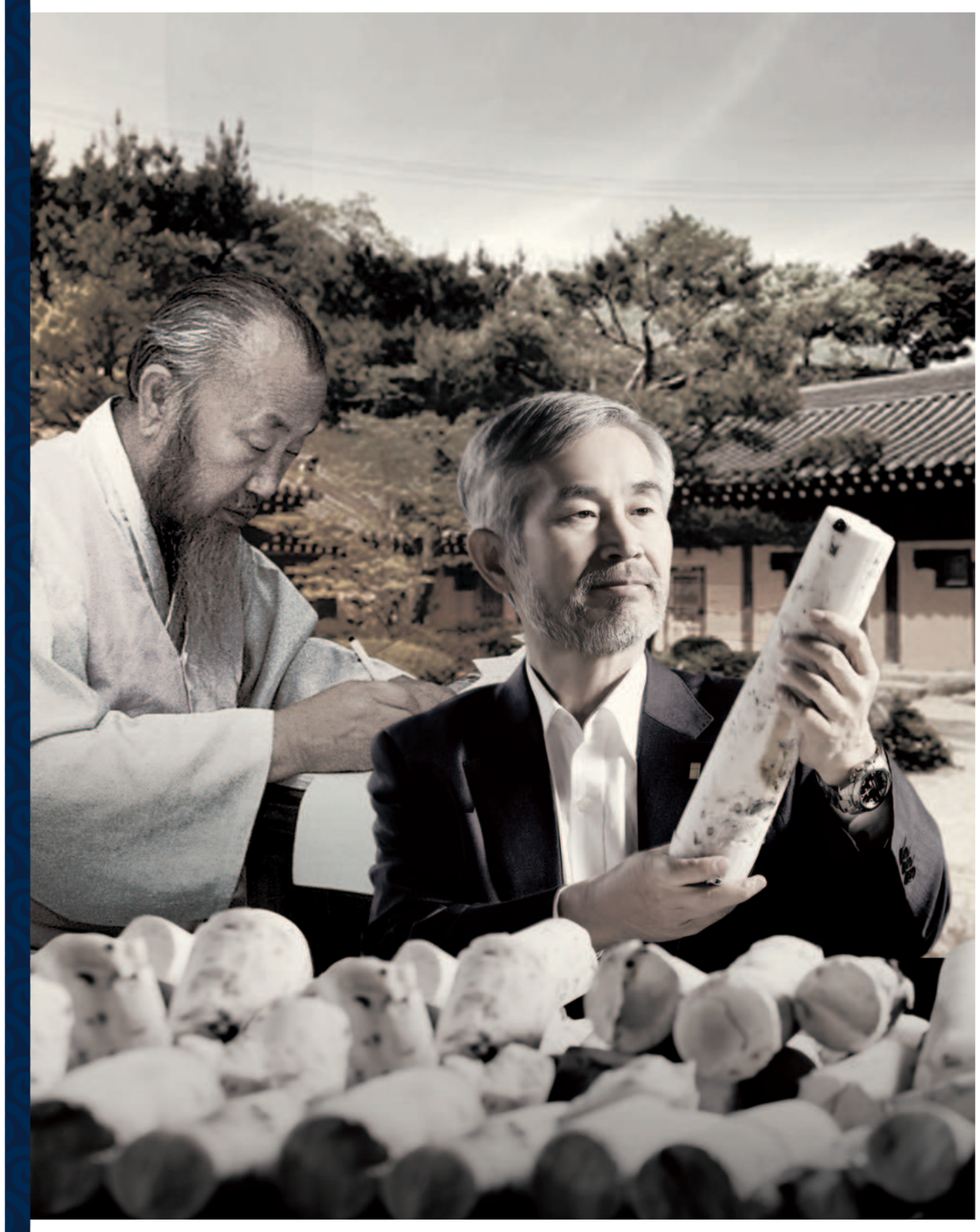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현대불교신문의 지령 1000호 발행을 祝賀드립니다.

인산家 INSANGA



代를 잇는 '참 의학' 이론 암·난치병 극복 묘방 인산의학 속에 있습니다

인산가는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암, 난치병 환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인술(仁術)을 베풀어 세인들로부터 '불세출의 신의(神醫)'라고 일컬어져온 인산(仁山) 김일훈(金一勳.1909~1992) 선생의 뜻을 받들어 차남 김윤세 교수(광주대학교 대체의학과)가 1987년 만든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죽염 제조를 산업화하며 인체 필수 미네랄을 골고루 함유한 질 좋은 소금인 죽염(竹鹽)을 개발한 인산가는 소금 섭취 문제의 본질은 섭취 분량이 아니라 인체 필수 미네랄 함유 여부와 환원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質)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명의 파수꾼인 소금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활용하여 누구나 천수(天壽)를 다 누리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그 숭고한 뜻을 인산의학 계승자 김윤세 교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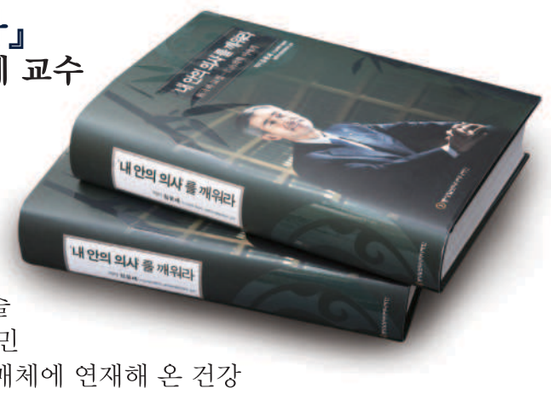


수많은 암·난치병 환자들의 목숨을 구한 인산의학 불멸의 대저술『神藥』

1986년 발간된 이래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지금껏 스테디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인산의학의 고전.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난치병에 신음하던 이들이 인산 선생의 초가문전에 줄을 이었고, 암·난치병에 시달리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 책을 잡았던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인산 선생이 밝힌 신약 신방의 비밀과 죽염, 쑥뜸, 오핵단 등 심오한 神藥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의학서적으로 드물게 지금까지 60만부나 팔린 무병장수의 비결이 담긴 책입니다.

김윤세(金侖世)
건강 칼럼니스트이며 대체의학자. 월간 <인산의학> 발행인 겸 편집인, 광주대 대체의학과 교수. 불세출의 신의(神醫)로 추앙받는 인산 김일훈(仁山 金一勳. 1909~1992) 선생의 차남으로서, 선친의 독특한 의학의 맥을 이어받은 '인산의맥(仁山醫脈)' 계승자. 불교신문사 편집부 기자·차장 역임(1981~1989). 가친의 의학이론을 집대성하여 1986년 6월 <神藥>을 간행한 이후 1987년 8월 가업을 기업화하여 세계 최초의 죽염제조업체인 '인산식품' 설립. 인산식품은 현 주식회사 인산가의 전신. 저서로 <神醫 김일훈>(1990), <神藥本草>(1992) <죽염요법>(1993), <소설 神藥-病 주는 별, 藥 주는 별>(1995), <心身건강천자문>(1997), <인산쑥뜸요법>(1998),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2012)등이 있음.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참 의학'의 길 집대성한 김윤세 교수 30년 강연록



죽염 종가 ㈜인산가 김윤세 회장은 우리나라 죽염산업을 일궈낸, 건강 소금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인산 선생의 아들이자 인산의학의 계승자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인산의 의술을 계승해 널리 알릴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가 30여 년이 넘게 여러 매체에 연재해 온 건강 칼럼을 정리해 엮어낸 책이『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입니다. 1101쪽에 달하는 광대한 분량의 이 책은 말 그대로 인산의학의 전범(典範)입니다. 내 몸 안의 자연치유력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의 병을 고치는 '참 의학'의 비결, 이 책 안에 있습니다.



7월 15일(화) 인산의학 부산 강연안내!

- **일시 :** 2014년 7월 15일(화) 오후 2시~
- **장소 :** 임페리얼 웨딩홀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센텀 임페리얼 타워
- **문의 :** 051)747-3149 I 1577-9585 (인산家 고객 서비스센터)
- **대중교통 이용 :**
  지하철 – 부산2호선 센텀시티역(BEXCO) 11번 출구 앞 센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문의 1577-9585

www.insanga.co.kr



대행 스님

禪 따로 있는게 아니라 늘 주인공에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선

‘길을 묻는 이에게’ 최장기(1000호) 연재 비결은?

‘현대불교’가 지령 1000호를 맞았다. 그 1000호 속에는 1994년 10월 15일자 창간호부터 1000호까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독자들과 함께 호흡한 1000회의 연재물이 있다. 대행 스님(1927~2012)의 법문 ‘길을 묻는 이에게’ 이다. 어느 매체에서도 보기드문 최장수 연재물이다. 그 이유와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를 쉽고도 명쾌하게 일러주기 때문은 아닐가. 19년 9개월 동안 쌓아온 ‘현대불교’ 1000호의 공든탑 속에 봉안된 말씀의 사리, 마음공부의 새 지평을 연 ‘길을 묻는 이에게’를 다시 읽으며 살펴본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불자입니다. 작년부터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나 경을 읽을 때 까닭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 전엔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 지면을 보는 순간 그만 소리를 낼 정도로 흐느끼게 됐습니다. 무언가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에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에 절을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매주 마음에 와 닿는 칼럼을 스크랩하는데 그 중 특히 대행 스님의 강설이 제게 유난히 강하고 울림이 느껴져 평소 따로 노트하고 밑줄 치는 등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대불교 독자가 보내온 편지 中〉

‘길을 묻는 이에게’가 ‘장수 코너’인 만큼 독자의 반응도 가장 많다. 편지나 전화로 ‘덕분에 대행 스님 법문 잘 읽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전해주는 독자들, ‘대행 스님의 법문을 많은 이웃들이 읽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단체 등 1290곳에 ‘현대불교’를 보내는 법보시에 동참하고 있는 독자가 600여 명이나 있다. 이밖에 독자들은 ‘길을 묻는 이에게’를 스크랩하고 사경하거나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모임을 갖기도 한다.

이처럼 ‘길을 묻는 이에게’ 애독자들의 신문 활용은 염불, 참선, 절 수행, 보시 등 다양한 불교 신행 · 수행활동과 견주어도 될 만큼 신행의 길잡이 몫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행 선사의 법문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하고 또 공부하는 것일까.

신문 스크랩 · 사경 · 공부모임 교재

창간호에 선보인 ‘길을 묻는 이에게’는 작은 코너였다. 대중이 질문하고 대행 스님이 고민의 해법을 간단히 그러나 명쾌하게 답해줬다.

독자의 호응도에 따라 지면은 점점 커져 1997년 10월 8일자 (145호)부터 전면 2페이지로 확대됐다. 그러면서 삽화도 등장했다. 최주현 화백이 한결같이 삽화그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인터뷰 B7면)**



“주인공에 놓고 맡겨라”

현대식 방하착, 대중용 방하착

법보시 동참 독자 600여명

일부 독자들은 “스님의 법문을 누가 대필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대행 스님의 법문은 정기법회, 담선 법회의 법문을 녹취해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고 마음공부를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수행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법어를 대중 법회에서 활용하는 이들도 있고, 글 쓰기에 출처 없이 인용하기도 했다.

인기 비결은 ‘삶이 곧 불법’

“지금 처한 당장의 경계부터 푹 쉬어 보십시오.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에서 벗어나 푹 쉬어보세요. 지난날의 모든 업도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 실려 있으니 지금 한 생각에 크게 놓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셈이 됩니다. 그러다가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놓아버리면 당신의 잠재 컴퓨터는 점점 짐이 가벼워져 결국은 텅 빈 듯 홀가분하게 될 것입니다.”

- 대행 선사 법문 中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어려운 한문 경전의 말씀이 아니다. 십수 년 산중고행을 겪으며 스스로 체득한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리고 학식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쉽게 듣고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 중에서 실참하고 실수(實修)해 봄으로써 바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살아있는 법설이다.

‘길을 묻는 이에게’에 게재되는 질문들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해요’ ‘집안에 유전되는 병이 있어 걱정입니다’ ‘습을 녹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진실하게 살면 되지 꼭 관(觀)을 해야 하나요’ 등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겪어봤을 만한 고민들이다.

이러한 병고와 액난, 가족 간 불화 등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대행 선사는 고(苦)를 고가 아니라 자신을 한 단계 진화 발전시키는 수행의 계기로 삼아 마음공부를 해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을 펼쳤다.

즉 대행 선사의 법문은 종교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 있는 이 자체가 지극한 가르침이며 깨우침이어서 ‘삶이 곧 불법’임을 강조했다.

외국인들도 주인공 관법으로 힐링

21세기 현대인들은 삶의 방향과 좌표를 잃고 방황하며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한다. 이 같은 이유로 상담심리와 명상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했고, 틱 낫한 스님, 마티유 리카르 스님, 아잔 브람 스님, 텐진 팔모 스님,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 존 카밧진 박사 등 스님과 서구의 명상전문가들이 대거 방한해 ‘힐링’과 ‘치유’에 동참할 때마다 대중이 몰렸다. 서양의 불교 명상책이 최근 몇 년간 쏟아지듯 우리말로 번역됐다. 힐링 바람을 타고 서양 명상이 역수입 된 것이다.

이런 현상 속에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들은 그 가르침에 또 한 번 감탄하며 감사의 합장을 하고 있다. 세계에 일고 있는 서양의 명상보다 대행 스님의 한마음 관법 수행은 더 깊고 간단명료하다.

“자성불인 주인공(空)에 놓아라, 맡겨라.”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법을 쉽게 전할까, 고심한 대행 스님의 전법은 사성제 · 팔정도 · 자비실천(공생) 등을 ‘놓고 맡겨라’로 압축한다. 현대식 방하착(放下着), 선방 전용이 아닌 대중용 방하착이었다.

외국에서도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들이 많다.

‘길을 묻는 이에게’와 맥을 같이하는 법어집이 각국에 번역 소개되고 있다. **(기사 B5면)** 또 세계 곳곳의 한마음선원 지원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들이 서적을 통해 공부한다.

‘현대불교’는 대행 스님의 ‘말씀의 사리’가 법계에서 두루 ‘천수천안’으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다시 ‘길을 묻는 이에게’ 1000호의 탑을 쌓는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에서 –

마음꽃 펴어라,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 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스크랩하며 읽고 공부…"이것이 수행이죠"

'길을 묻는 이에게' 나는 이렇게 읽고 있다

본지는 '길을 묻는 이에게'를 애독하는 독자들을 인터뷰 했다. 이들은 '길을 묻는 이에게'를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메시지로 공유를 하고, 개인 수행의 공부재료로 활용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법문을 해주는 것은 대중이 마음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현장감 넘치는 가르침에 대중 매료"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최근 어린이 ·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포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길을 묻는 이에게'를 종종 읽으며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참조한다.

"대행 스님은 한마음 주인공이 둘 아닌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법문을 통해 대중에게 설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고대 조사선을 대중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선원은 조사선을 현대에 선양하고 포교하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봅니다."

법상 스님은 현실적인 내용의 법문은 대중이 마음공부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스님은 "대행 스님의 법문은 마음공부에 곧 바로 들어가는 길을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가자라면 대부분 이 마음공부에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소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것에 대해 법상 스님은 "대행 스님의 법문은 현실감이 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무애자재하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라며 "마음공부라고 해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현장감이 넘쳐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며 뛰는 마음공부 내용이다. 그래서 아마도 대중에게 어필되고 사랑받는 것 같다. 한마디로 생활과 마음공부가 둘이 아닌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상 스님은 "때문에 한국불교에 있어서 대행 스님의 불교 대중화 공헌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사와 불교역사에 있어서 비구니 스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스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 삶의 지침 일러줄때 활용"
염준근 동국대 교수

염준근 교수(동국대 통계학과 · 65)는 매주 교수연구실로 발송되는 '현대불교'를 챙겨 읽는다. 특히 '길을 묻는 이에게'를 즐겨 읽는 염 교수는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종종 들려준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문과학 분야입니다. 삶에 대한 통찰과 철학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행 스님의 법문에는 삶에 대한 고뇌를 해소해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직업상 학생들에게 삶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조언을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럴 때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염 교수는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침이 될 만한 내용들을 챙겨 수업 때 들려준다. 이러한 덕분에 염 교수는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 평가 점수를 받는 편이다.

"단 5분만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줘서 고맙고 좋았다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동국대 교직원 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신행활동을 하는 염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불교 담론을 나눌 때 불교의 기복적 측면만 보는 이들의 시각을 바꿔놓기도 한다.

"대다수가 불교를 기복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대행 스님은 기복적인 것을 금기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복적으로 매달리기 보다는 공부재료로 삼고 해결함으로써 점점 차원을 높이는 그런 마음공부를 강조하셨죠. 이와 관련된 가르침을 이야기 해주면 '불교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기복적인 측면과는 다르구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신문을 읽으면서 공부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법어 보면서 관(觀) 하는 시간 가져요"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쉽 센터장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쉽센터장은 '현대불교'가 창간할 당시부터 함께해 온 애독자다. 황 센터장은 교도소 재소자를 비롯해 주변 지인들에게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어보라고 권해왔다.

그는 "특히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만 떼어서 며칠 동안 갖고 다니며 읽어보기도 하고, 주위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한다"며 "매번 중요한 법어가 가운데 삽입 돼 있는데 그 법어를 보며 가만히 관(觀)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하면 때로는 마음에 힘이 생기고 참회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황 센터장은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항상 근본을 가리키는 정법의 나침반과 같다고 말했다. "'길을 묻는 이에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항상 주인공에 놓고 관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를 둘 아니게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두 가지 방향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당장 눈 앞의 일이 해결된다 해도 '나'라는 망상에 집착하는 한, 근본적인 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임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인생의 네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황 센터장은 불교 포교의 힘은 실천에 있다며 '현대불교'가 독자들에게 구체적 문제와 해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법회나 청소년 법회에서 아이들이 실제 겪는 문제들을 그들의 목소리로 다루고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SNS로 스님 법문 발췌해 도반과 공유"
박상섭 독자

박상섭 (54)씨는 '길을 묻는 이에게'를 따로 보관해 왔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읽지 못할 경우를 위해서다. 그렇게 몇 년을 모았더니 분량이 꽤 된다. 작년부터는 가방에 몇 편씩 넣고 다니며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읽는다.

박상섭 씨는 "휴대하기가 편리해서 언제 어디서나 대행 스님 법문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 카카오톡으로 대행 스님 법문 중에 일부를 발췌해 가족이나 공부하는 도반들, 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고 있다"며 "한마음선원 신도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그것을 사경하고 반복해 읽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길을 묻는 이에게'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으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고, 헤쳐나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또 인내심을 갖고 수행정진 할 수 있는 믿음을 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섭 씨는 "대행 스님 법문집이 국내 · 해외편으로 계속해 출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 계속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걸림 없는 삶 살게 해주는 안내서"
김영해 독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인 김영해 (62)씨는 '현대불교'를 받으면 제일 먼저 '길을 묻는 이에게'를 펼쳐본다.

김 씨는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경계나 의증을 귀한 가르침으로 알려주시기에 주변 지인들에게 '현대불교'를 주면서 감로수와 같은 귀한 법문이 있으니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길을 묻는 이에게'를 꾸준히 읽으면서 걸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모든 경계에서 내가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유인으로 걸림 없이 살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었고 잘되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회향하고 안 되는 것은 공부의 재료로, 어느 누구도 미워할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생각해 차원을 높이고 큰 스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아 마음을 바르게 쓰는 도리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김영해 씨는 '길을 묻는 이에게'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 받는 이유에 대해 "기복에서 벗어나 부처님 말씀처럼, '자등명 법등명' 내가 바로 주인공이고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 바른 법의 길로 가도록 안내 해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늘 곁에 두고 싶은 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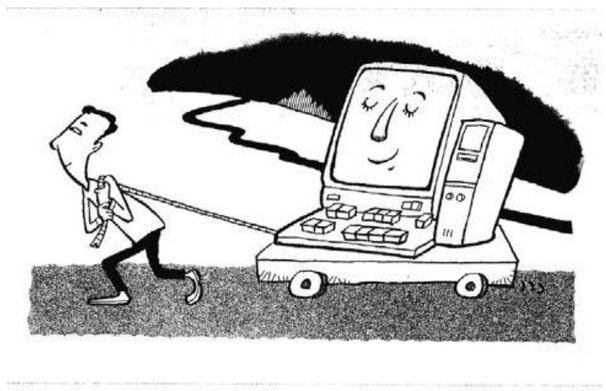
한마음저널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의 도반입니다.
수행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대행 큰스님 법문,
스님들의 진솔한 수행담과 불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은
여러분의 내면을 밝혀 주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이 발행하는
격월간 신행포교지 「한마음」

인터넷에서 한마음저널 보기 • 카페 www.hanmaum.org/cafe/journal • 블로그 www.blog.daum.net/hanjournal •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nmaumjournal

〈정기 구독 신청〉 • 정기 구독료 : 15,000원 (1년 6권, 포장 및 발송 비용) • 입금 계좌 : 농협 356-0453-1811-33 (예금주 : 이영숙) • 이메일 접수 : hannews2@empas.com • 구독 신청 및 문의 : 한마음저널 편집실 (031)470-3180, 3181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용광로에 모든 것 맡겨놓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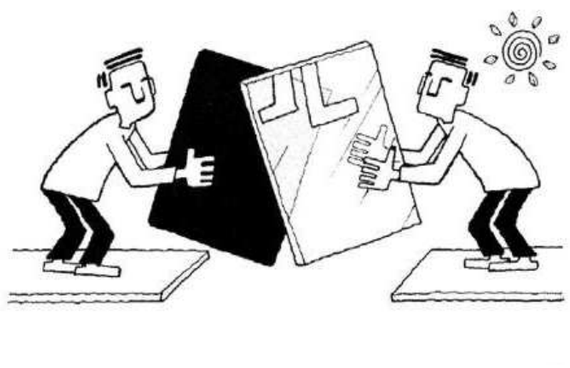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팔만사천의 법입니다.
번뇌가 아니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까?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런 악한 것이 닥칠까?
이런다면 점점 더합니다.
그냥 불난 데 기름 갖다가 퍼붓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담요로다가 탁 덮으시면 불은 잔잔하게
꺼지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절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죽는 것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요.
절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써 하신다면
어떠한 거든지 풀리지 않을 게 없고
자유스럽지 않을 게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인등을 켠다고 하시죠?
그것은 인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인등
입니다.
몸뚱이는 등이요
마음 중심은 촛대요
마음내는 것은
불이라는 얘깁니다.
촛불!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항상 불은
켜져 있는 것이고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고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고
아무리 우리 도량에 누가 소 한 마리를
잡아왔다 하더라도
공손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멋쟁이로 삽시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간으로서 진실하게 산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말로써 몸뚱이를 잡으려 해서는 잡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용광로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으세요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가 많다고 생각지도 말고
죄가 많아서 이렇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 집어넣듯 다 놔버리세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길 수도 없고
맡기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니까 일이 잘 안되고 이런 거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우리가 한생각을 잘 굴려서 내면은
일체 모든 게 생기고 구해지고
한생각을 쉬게 되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가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대신 먹어주고 살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대신 아파주는 것도, 대신 죽어주는 것도 없어요.
단, 내 힘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게 법이에
요, 그냥. 그게 공법이에요

스마트 폰으로 만나는 한마음선원

1999년 사찰 홈페이지의 새 장을 열었던 한마음선원이
2014년 2월 새 홈페이지를 선보인 이후,
2014년 6월에는 모바일 전자책 '한마음 eBook'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마음선원 공식 페이스 북'과 '한마음선원 공식 트위터'를 개설,
드디어 2014년 여름에는 사찰의 본격 뉴미디어 시대를 여는
한마음선원 모바일 웹을 선보입니다.

한마음선원이 선보이는 뉴미디어 컨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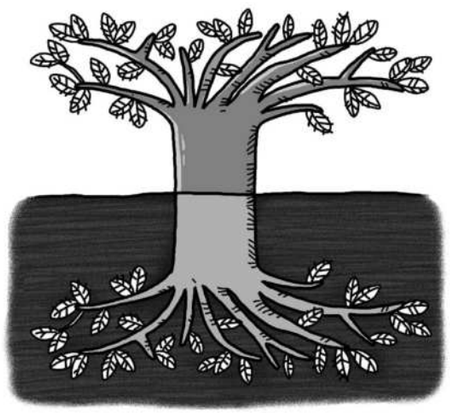
모바일 홈페이지 2014년 7월 말 ~ 8월 초 개통 예정
PC용 홈페이지 www.hanmaum.org
한마음 E-Book 앱
• 안드로이드 폰 : '구글 플레이(PLAY)'에서 '한마음' 혹은 '한마음 eBook'으로 검색
• 아이폰 : '애플 스토어'에서 '한마음' 혹은 '한마음 eBook'으로 검색
공식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nmaum.net
공식 트 위 터 https://twitter.com/HanmaumTweet

모바일 QR 코드
스마트폰의 코드 스캔 앱으로 QR 코드를 비춰보세요.



◀ 한마음선원 모바일 웹
한마음 E-Book 앱 ▶

꼭 마음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진짜로 믿으세요



앉아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 한 발짝 떼어 놓으라는데도 못 떼어 놓습니까?

"마음으로 무한량 주고받는 통신을 해보세요"
내 전화부터 개통해야 모든 이웃과 통화 가능

자기의 진화를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의 내부모 내자식
내형제 내모습 내도량 아닌게 없어

여러분은 꼭 마음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로 믿으십시오.
마음으로는 그 몸을 다스리면서 행동하셔야 되고
안으로는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둘이 아닌 도리로 마음 쓸때
견성성불도 포함돼 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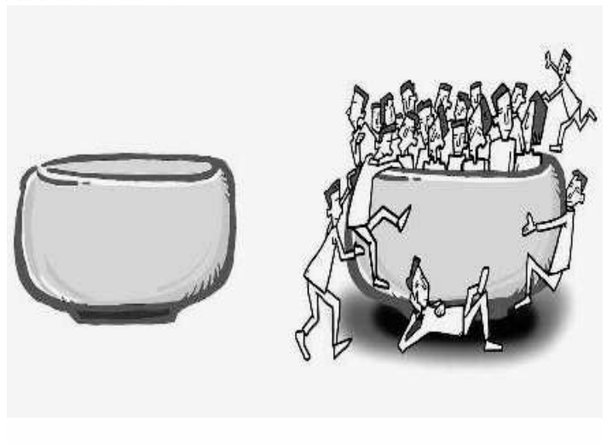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발자취 불잡지 않고 그냥 걸어갈 뿐
말과 행을 함이 없이 해야하고
내고 들이는 것 철두철미해야
인의롭고 슬기롭게 대치하면서
용기와 믿음으로 공부한다면
어떤 병고도 대처할 힘 생겨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심력을 길러야
모자라고 잘못하는 사람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보면
분기 사라지고 인의로워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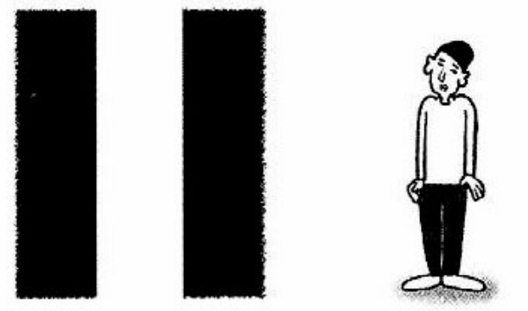
믿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이 마음도리를 이론이나 학술로다
대단하게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내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시면서 항상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부모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아리따운 마음이
바로 사랑보다 더 진한 자비입니다.

"수박을 쪼개서 맛을 보지 않고
'이게 뭣 일꼬' 들여다만 보면
20년 50년을 해도 맛을 모릅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게 관
어떤 경계든 사랑에 끄달리지 말고
남을 믿고 관하십시오"







발자취 짊어지고 온사람 없듯

발자취 짊어지고 온사람 없듯이
함이없이 했기에 내가 한것 없어
모두가 空 합니다

생명을 나와같이 생각하고
모습을 나와같이 생각하고
아픔을 나와같이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갔는데

길을 가다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듯

자기가 땅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다 말겨 놔라!
이 생각 저 생각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 있어
속지 말고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야

진실하게 자기 자성을



한마음과학원 031)470-3200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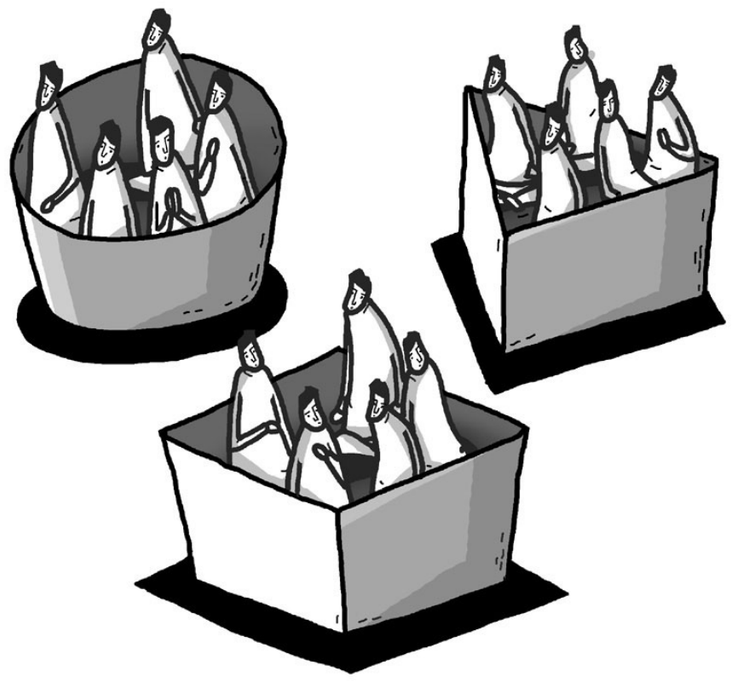


자기가 결정 짓지 말고 모든 걸 주처에 맡겨놓으세요

평상시에 모든 걸 놓고 편안하게,
와선이나 입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이나
이런 거를 모두 한데 합쳐서
그냥 생활 자체를 참선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내마음의 용광로에다 다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갈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관법이 별나게 다른 게 아닙니다.
수박을 갖다 놓고 '이게 뭣고?' 하고
매사 걸 '뭣고'로 돌아가기보다는
두려움 없이 그냥 짜개서 드세요.
그러면 수박 맛이 어떠한가 알게 되고
또 수박 속에 씨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세세생생 먹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 전부 나 아님 없고 내 스승 아님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좋게 생각을 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쁜 건 하지 말고 좋은 건 하고
내가 조금 밑지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하면서 폭넓게 마음을 쓴다면
그대로 선지식이요, 부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앞뒤가 막힘이 없이
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세상의 물질이 오로지 다 공(空)했다고 하는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모습과 우리들
모습이 둘이 아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다. 마음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보지도 말고 내려다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너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죽일 수 없고 자기가 자기 나쁘게 할 수 없으니
모든 게 평화롭고 즐겁고 자유롭다.

책으로 만나는 대행 스님 가르침… 각국 언어로 번역돼

대행 스님은 1982년 한마음선원을 개원한 이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많은 국내외 법회와 주석했던 안양 본원에서 거의 매일 담선 법석을 열어 법문을 펼쳤다.

대행 스님의 문서 포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불자들의 삶에 보탬을 주고 있다. '길을 묻는 이에게'도 대행 선사의 법문을 녹취·정리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대행 스님의 법어집들은 스님이 직접 기술하거나 저작한 것은 없고, 국내 국외에서 대중 법회 때나 비정기적인 모임에서 법문으로 설한 것을 승가와 재가 제자들이 엮어 책으로 편찬한 것들이다.

대행 스님의 저술형태로 간행된 출판물은 어려운 한문 구절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수가 영어·불어·스페인어 등 10여 외국어로 번역·출판 돼 세계 각국에 소개되고 있다. 다음은 대행 스님의 50여권 법문집 가운데 대표서적을 간추린 것이다. 이나은 기자

국내서적

허공을 걷는 길
30여년에 걸쳐 설하신 대행스님의 방대한 법문을 육성 그대로 담아낸 법문 전집이다.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대행 스님 추모집으로, △대행 스님의 행장 △가신 바 없이 가신 님의 발자취 △49재 사진 모음 △국내 국외 불자들의 추모 메시지 등이 담겨있다.

한마음요전
대행 스님의 행적과 수행 이력 및 중생 교화를 위해 널리 방편을 펼친 법문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해 981쪽으로 정리한 책이다.

청소년을 위한 법요집 '꽃을 피우는 나무'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제각기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근본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그 성품이 자발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신행요전
불자들의 신행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부처님의 가르침,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 입문서.

삶은 고가 아니다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과 마음공부 초심자들에게 대행 스님은 우리 삶 속에 담겨있는 불법의 진수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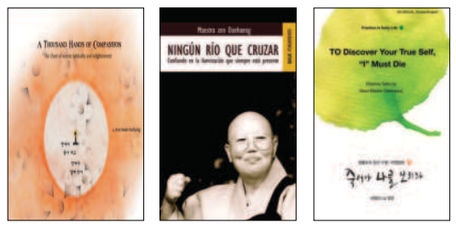
해외서적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한글 천수경〉을 영역한 한·영본 서적이다.
2010년,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의 iF(International Forum) 디자인 상을 수상한 수작이다. 책은 임효 화백의 그림과 함께 시화집 형태로 돼 있으며 천수경의 법향을 잘 전해주고 있다.

No River To Cross
〈한마음요전〉중에서 발췌·편집해 2005년 8월 한마음출판사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한 책이다.
미국의 위스덤 풀판사에서 〈No River to Cross(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로 2007년에 출판됐다. 2013년 2월 미국에 이어 스페인, 독일, 러시아출판사와는 이미 계약돼 현지에서 출판됐다.
중국 육조사와 베트남 불교사찰에서는 본사를 포함해 말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스님들의 수행서로 사용하기를 요청해 현지사찰에서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 출간했다.

내 마음은 금부처
2009년 10월 출간된 것으로, 선사의 지혜와 유머가 가득 담겨 있는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솝 우화나 불교 자카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짧은 이야기들 속에서, 선사는 어떻게 해야 내면에 지니고 있는 무한량의 에너지를 꺼내 쓰고, 즐겁고 보람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알려준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1~5권)
일상을 떠나지 않고서도 불법을 실천하는 묘리를 일러주는 대행큰스님의 설법집이다. 대행스님이 법회 때 설한 법문을 있는 그대로 원문으로 영역해 한글과 영역본이 합본으로 출간되는 시리즈다.
한글 영어 병용이므로 독자들은 마음공부와 영어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주식회사 화성건설
– 토목건축,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포장유지공사 –
대표 손화식
임직원 일동
경남 통영시 정량동 1077-13번지
TEL 055)641-2211

주은폴리머
– 재활용 전문 업체 –
대표 황재권
직원 일동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147-3
TEL 055)634-0077

서울플러스치과의원
원장 김상철 박기용 이광훈
직원 일동
경남 거제시 옥포동 오션플라자
하모니센터 1층 TEL 055)687-480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은
생활 속 마음공부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 본래로 지니고 있는 佛性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여
불법이 곧 생활인 진리를 실천해가는 도량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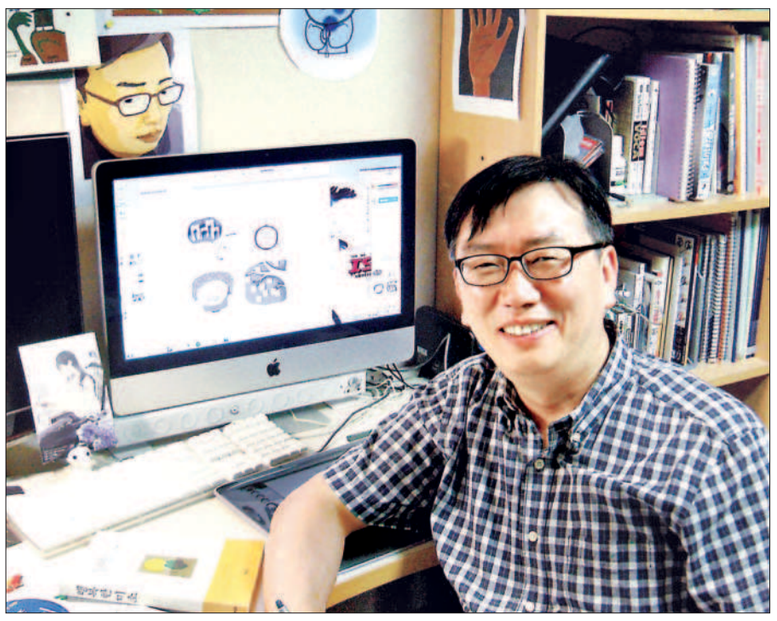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신도회
법형제회
지역 신행회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한마음 선법합창단
한마음 봉사단(한마음선원 자원 봉사단 · E.M 환경사랑팀)
(재) 불교문화강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www.hanmaum.org T:031-470-3100

‘길을 묻는…’ 읽으며 그림 그리면 치유가 되죠

최주현 ‘길을 묻는 이에게’ 화백



“이제는 ‘길을 묻는 이에게’ 삽화를 그려야지만 일주일을 제대로 마무리 한 느낌이 들어요.”

최주현 화백(55)은 1997년 10월 8일 ‘길을 묻는 이에게’가 전면 2페이지로 확대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현대불교’와 인연을 맺고 1500여 점이 넘는 삽화를 그려왔다.

불교계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길을 묻는 이에게’ 삽화 작업은 최 화백에게는 삶의 일부가 됐다.

모친이 불교여서 불교와는 친숙했지만, 처음 대행 스님의 법문을 접했을 때는 적잖은 고충을 겪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법문을 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법문을 제대로 이해해서 함축적으로 잘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죠.”

‘길을 묻는 이에게’에 실리는 대행 스님 법문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 화백은 이에 착안점을 두고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삽화를 그려나갔다. 일반인들도 삽화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대행 스님의 법문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이 많더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았어요. 또 개인의 성향과 고민에 맞게 조언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아 정말 큰 스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법문의 주제가 달라지니까 그 주제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최주현 화백의 작품 특징은 인물의 얼굴이 모두 작다는 것이다. 최 화백은 “모델이 패션쇼 런웨이에서 웃으면 옷은 보이지 않고 얼굴에만 시선이 가게 된다. 그래서 나도 될 수 있는 한 얼굴을 부각시키지 않고 그림의 행위 자체나 몸짓, 배경으로 법문을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잠재의식과 내면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최주현 화백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읽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없이 좋은 수행이라고 말한다.

“글을 읽으면 가끔 힘들고 지쳐있던 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걸 느껴요. 또 가끔은 대행 스님의 아리송한 법문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잠자리채로 구름을 잡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요.”

‘현대불교’의 ‘길을 묻는 이에게’와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최주현 화백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편하게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대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그림이 이걸 뜻하는구나’ 라는 식의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각자 느끼신 대로 그림을 봐주고 ‘씨익’ 한번 웃는 다면 그만큼 저에게 기쁘고 보람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나은 기자





1000호를 기념해 최주현 삽화가가 보내온 그림들. 왼쪽 그림은 오랫동안 ‘길을 묻는 이에게’ 삽화를 연재해온 작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표현한 것으로, 최 화백은 “설명을 듣기보다 각자 개인이 그림을 보며 느낌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쉽게 일러줘

재소자들의 편지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에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현대불교’ 법보시에 6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1290여 곳에 ‘현대불교’가 전달되고 있다. 교도소 및 교정교화 기관에는 425부가 발송되는데, 재소자들에게 ‘현대불교’는 어둠속에 새어나오는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다.

재소자들은 ‘현대불교’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현대불교’ 보내오는 편지를 통해 “스님의 법문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밝아진다”고 한다. 또 때로는 가슴이 저리면서 눈물이 난다고 한다.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쉽 센터장은 “재소자들이 애독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대행 스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주기 때문일 것”이라며 “스님의 법문은 직접 고행을 겪으며 실천한 것이기에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자비심이 피어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수경 센터장은 “아마도 대행 스님은 대중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그 자신보다 더 아파하는 자비심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비롭게 무엇이나 받아주는 엄마 같은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소자들이 보내온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이나은 기자

“비록 늦게 알아차린 잘못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에 비해 현대불교신문 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대불교 신문을 편하게 매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구교도소

“제가 이번에 심사에 합격해서 퇴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훌륭한 기사와 좋은 내용의 현대불교신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글을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을 2년간 읽으면서 불교의 지식이 한층 깊어졌고 특히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으면서 불교수행의 길을 찾은 것이 제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2년 동안 신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나가서 새사람이 되어 불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신문에 게재된 스님들의 말씀을 읽고 제가 살아온 것이 너무 허망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에게 희망을 안겨준 현대불교신문을 꼭 보내주세요.”

여주교도소



법보시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본 재소자들이 본사로 보내온 감사편지들. 이들에게 ‘현대불교’와 ‘길을 묻는 이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1000호를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세로의 마음이
통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대행선사법어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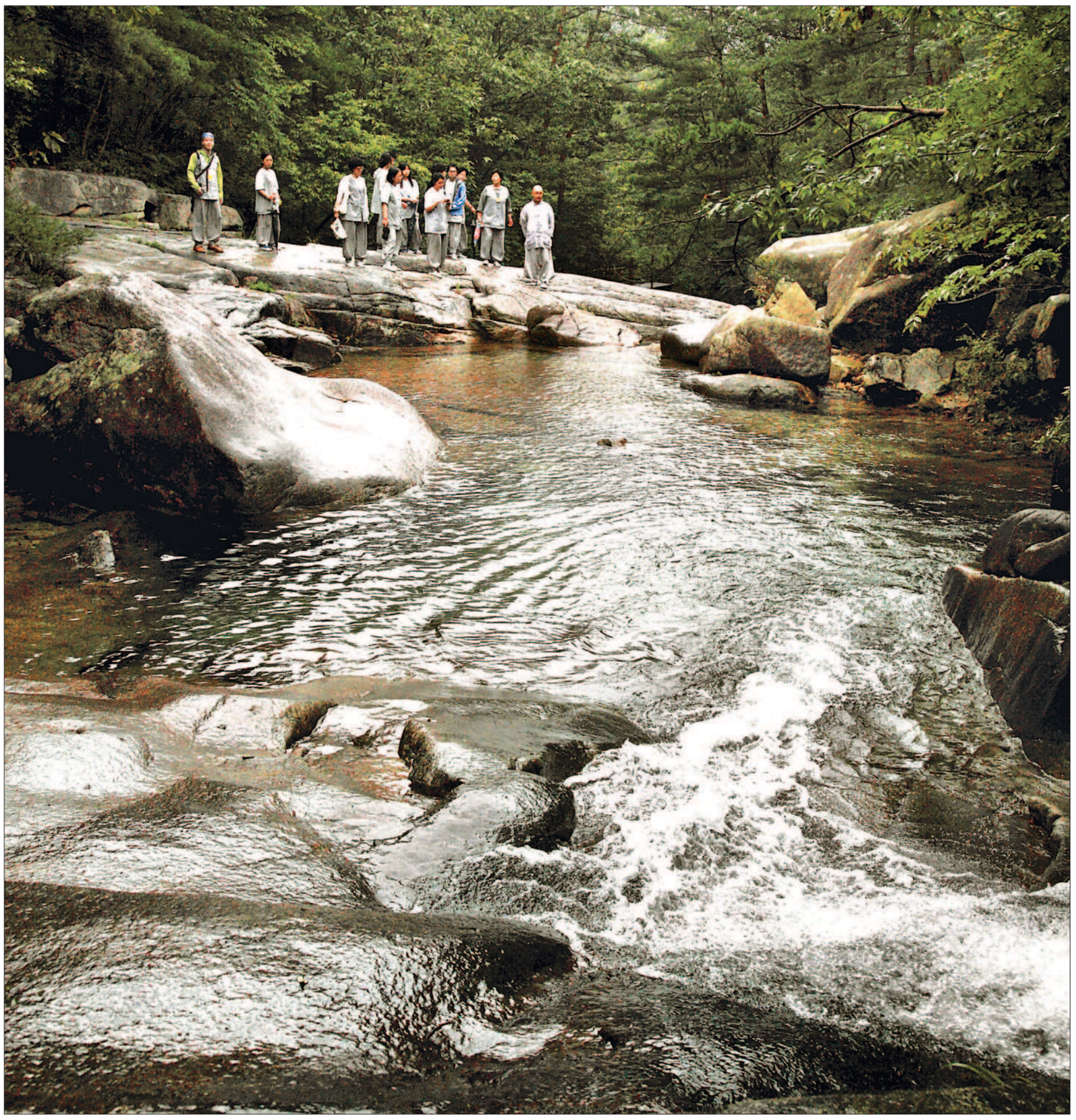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3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행복·위로·비움·꿈’ … 산사가 내게 던진 이야기





프롤로그– 지친 당신 ‘我生如堂’ 템플스테이로

안다 안다. 당신은 지쳤다. 지금 여기 한국에 산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지칠 법하다. 바람 잘 날 없는 사회를 보며 한번쯤은 좌절감을 느꼈을 테고 개인사 역시 마찬가지로 깔깔했을지도 모르겠다. 돈, 활자, 사람들에 이리저리 휩쓸리던 일상은 무거웠을 것이며 열에 아홉은 내 뜻과 역주행하는 세상에 스스로 마모되어 갔을 테다. 그것이 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알게 모르게 생긴 스크래치를 당신은 돌볼 틈도 없었고, 아물게 하는 법도 몰랐다. ‘괜찮아 다 잘될거야’ 같은 위로보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라는 말에 안심이 된다면 정말이지 당신, 수고했다.

그런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나를 챙기기 위한 여행을 제안한다. 지난 12년간 250만명(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3년 기준)이 검증했다. 그 중 대다수가 ‘나를 찾고 싶다’ 며 두 발을 뗐다. 그리고 한결 가벼워진 웃음을 안고 세상 속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지친 이들을 도닥이며 따스하게 끌어안은 곳. 템플스테이다.

자연이 힐링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산사가 힐링하지 못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천년 넘게 산에 몸을 누이고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산사. 고요, 아늑, 온순함이 세월의 더께만큼 깃든 고찰의 품 안에서 세상사에 달뜬 우리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이른 새벽 서늘한 공기에 실려 울리는 범종의 은은한 소리는 마음의 불안을 씻어낸다. 범종소리에 이끌려 바깥으로 나왔다면 아슴아슴 떠오른 초승달을 바라볼 일이다. 운 좋게 노란빛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는 유성우는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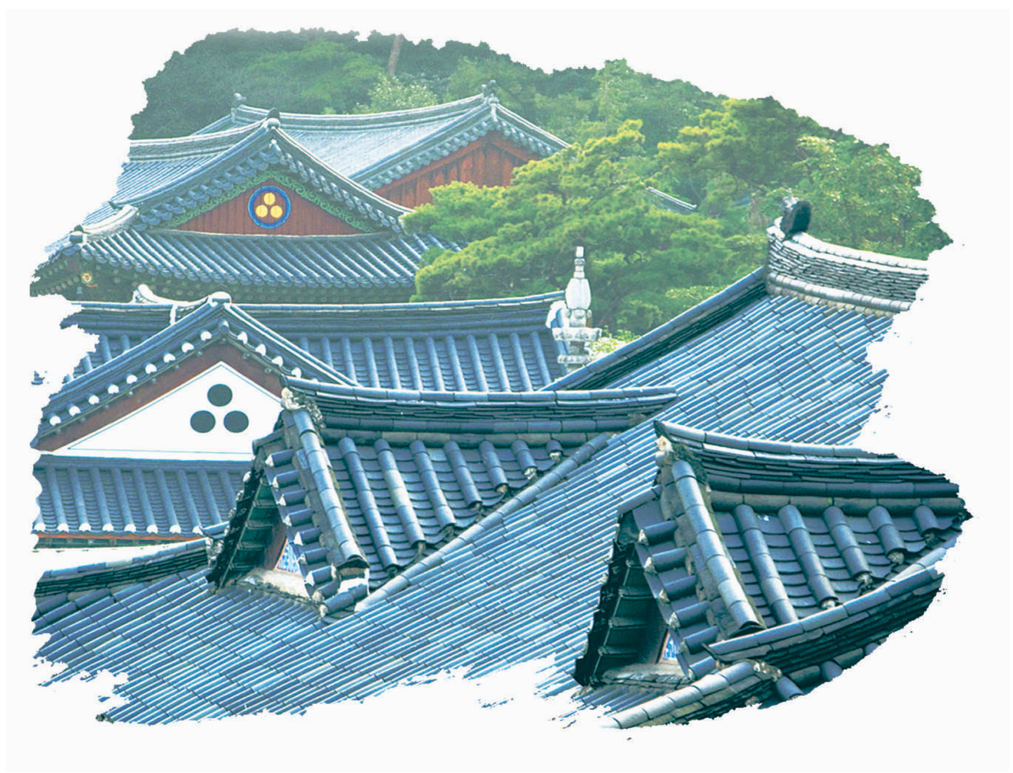
아집과 욕심을 접으며 108배를 해본다. 끊임없이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아상을 누르며 나를 낮추다보면 누군가는 까닭모를 설움에 눈물을 뚝뚝 떨구기도 한다. 나와 화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들이 쏟아내는, 수줍고 어설프지만 진솔한 몸짓이다. 이처럼 현대인의 치유테라피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에는 생명을 재생시키는 힘이 들어있다.

그리고 다시, 템플스테이가 다시 새로워졌다. 동시대인들의 행복, 위로, 비움,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가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바탕이 됐다. 기존의 수련회 이미지 역시 벗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부처님 품안에서 쉬다 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참가자들이 산사를 찾으며 스스로에게 던진 간절하고 치열한 물음에 부응하고자 공감형 템플스테이로 거듭났다. 템플스테이 시즌2를 맞아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我生如堂)’ 이 탄생한 것이다.

위로받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아아(我我), 생명의 건강과 자연과의 동화를 이야기하는 생생(生生), 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것을 권하는 여여(如如), 꿈을 위한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는 당당(堂堂) 템플스테이로 탈바꿈했다. 기존 템플스테이가 기본, 휴식, 문화체험, 수행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아생여당은 위로, 건강, 비움, 꿈이라는 카테고리로 재구성됐다. 세상 모든 이들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산사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라고 새롭게 태어난 템플스테이는 말한다. 다시 한번 격려받고 자유롭게 꿈꾸고 싶다면, 아생여당 템플스테이로 떠날 일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 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회주 덕민 주지 원학

총무국장 종민 기획국장 정문
교무국장 혜찬 포교·사회국장 정진
교육국장 일진 원주국장 성륜

신도회 회장 최정수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괜찮아 잘될거야" 산사서 위로를 얻다

我我 아 아

나를 위한 위로여행 아아 템플스테이

지치고 외로운 순간에 다시 힘을 얻는 위로의 여행.

거북이도 쉬어간다는 성주 심원사, '다 잘 될 거야' 어깨를 두드리는 보은 법주사, '그 마음 내비 두고 쉬라' 는 김제 금산사, 별빛달빛 가득한 호숫가에서 나에게 말 걸어보는 영동 반야사가 함께 합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가야산 여유로움 만끽하고 싶다면

거북이도 쉬어가는 곳 성주 심원사

가야산국립공원 백운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새로 지은 사칠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성주 심원사(深源寺)다. 임진왜란 이후 폐사된 심원사는 10년 전에는 폐사지를 복원한 초라한 시골절이었다. 하지만 현재 심원사는 거북이도 자고 쉬어간다는 '구수헌(龜睡軒) 템플스테이' 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제는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 의 '아아 템플스테이' 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가야산을 한 몸에 안은 심원사의 템플스테이는 '여유로움' 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제도 '푹 쉬다 가이소' 로 정감이 넘친다. 심원사의 '푹 쉬다 가이소'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진행되며, 상시 운영된다. 주로 휴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본 습의와 예불 참석을 제외하고는 일정에 여유가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탑돌이를 하며 자신에게 감사하는 '탑돌이 감사 명상' 과 만물상 트레킹이 진행된다.

탑돌이 감사 명상에서는 연등을 개개인이 만들고 불을 밝힌 후 탑돌이를 하며 지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 왕복 90분 코스의 만물상 트레킹은 가벼운 산행을 통해 몸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여름마다 진행되는 동심 프로그램 '검정 고무신' 템플스테이도 빼놓을 수 없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검정고무신' 템플스테이는 가야산 트레킹과 야생화 식물원 탐방 등 자연에서 뛰어노는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5분 명상과 장래희망을 생각하며 꿈등만들기, 소금만다라명상, 108배, 발우공양이 진행된다. http://simwonsa.kr, 054)931-6887

팔상전 그늘 아래서 위안을 얻다

긍정의 힘을 배우자 보은 법주사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는 최근 템플스테이 사찰 중 소위 가장 '핫' 한 콘텐츠를 보유한 곳이다.

바로 '울화통' 템플스테이 때문이다. 법주사의 독자 브랜드인 '울화통' 템플스테이는 '우울함, 화를 통쾌하게 날려 버리자'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존감 형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중학생 이상 참가가 가능하며 월 1회 진행된다. 일정은 매월 초에 법주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특히 '울화통' 템플스테이는 학교 폭력과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안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법주사는 충북교육청 및 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몸 숨 알아차리기(요가 명상, 천연 염색, 전통차 명상,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와 MBSR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는 청소년의 폭력성 조절은 물론, 자기개발을 위한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1박2일 캠프 동안 사찰 음식으로 우주의 이치를 배우는 '함께' 와 '비움' 을 테마로 채식 웰빙(wellbeing) 음식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스스로를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프로그램 '다 잘 될거야' 는 365일 운영되는 상시프로그램이다. '다 잘 될거야' 는 예불과 '나를 깨우는 108배' 스님과의 차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http://www.beopjusa.org, 043)544-5656

지치고 힘든 나를 내버려두세요

힐링의 대표 콘텐츠 김제 금산사

네덜란드 역사가 요한 호이징가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로 정의했다. 직역하자면 '놀이하는 인간' 정도 되겠다. 호이징가는 인간은 놀이로서 문화를 발전시키며 진화해왔다고 풀이한다.

전북 김제 금산사의 템플스테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놀이' 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상의 미사여구는 불필요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모토는 '놀면서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산사는 1년 365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나는 쉬고싶다' 는 주제의 템플스테이는 여러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나' 를 1년에 한 번쯤은 편안하게 놓아주자는 의미를 가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평일에는 소리명상과 숲 속 걷기명상, 스님과의 만남 등으로 간소하게 운영되며, 주말에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명상과 108염주 꿰기 등을 병행한다.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명물은 격월 마지막 주말에 진행되는 '내비둬 콘서트' 다, 이 프로그램은 분별을 두지 않고 나부터 내려놓아 스스로 평화로움을 찾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6월 28~29일에는 '아파하지 말고 다시 희망을' 이란 주제로 내비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게스트로는 지난 4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홀로 가야금을 연주 1인 시위를 벌인 정민아씨와 함께 지난 아픔을 털어내고 함께 서로 위로하며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내비둬 콘서트는 그동안 김용택(시인), 안도현(시인), 김병만(개그맨), 김남훈(프로레슬러), 서천석(의사), 임동창(피아니스트)등이 출연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 격월로 진행되고 있는 내비둬 콘서트는 약 6개월간의 내부정비를 마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ttp://www.geumsansa.org, 063-542-0048

나를 비워 'RE-START' 하다

원기 100% 충전소 영동 반야사

충북 영동 반야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수성지 중 한 곳이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의 말사이며 720년(신라 성덕왕 19) 의상 스님의 십대제자 중 한 명인 상원 스님이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설에는 원효 스님이 세웠다고도 한다.

반야사에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와 마찬가지로 세조와 문수동자 설화가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 반야사를 대중에 알린 것은 문수 설화가 아닌 템플스테이다. 13개 사찰로 구성된 '아생여당' 템플스테이에 이름을 올린 것도 뛰어난 템플스테이 운영에 있다. 실제 지난 5월 20일 열린 '2013년도 템플스테이 총 결산 어워즈' 에서 △참가자 최고 만족도상 △우수운영사찰상 △최고협력상(지자체부문) 등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반야사 템플스테이 주제는 '또 하나의 시작' 이다. 반야사의 템플스테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막막함에 지쳐가는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새로운 나를 만나도록 유도한다.

'또 하나의 시작' 은 상시 운영 템플스테이로 20~40대와 가족이 대상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야 호수가를 걸으며 나에게 말 걸기, 별빛 달빛 투어, 스님과의 만남 등으로 이뤄진다. '또 하나의 시작 다짐하기' 코너의 경우 시기에 따라 운영의 묘를 달리한다. 야외 활동이 가능한 5~10월에는 나뭇잎 손수건 물들이기를, 동절기에는 108염주, 연꽃 인연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반야사는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하다. 봄, 가을, 신년 등 3회에 걸쳐 개최하는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억을 나눈다.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사전 공지를 통해 이뤄진다.

http://www.banyasa.com, 043)742-7722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인간관계의 고민을 가진, 삶이 왜 이따위냐고 소리치고 싶은, 번뇌 만발의 사람들에게 빙긋이 웃음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까칠한 손바닥이야기!!

신간 부처 마을의 손바닥 이야기



말로는 모든 게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힘들면 쉬웠던 말들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이 얼마나 무서운 살덩이인지, 또 조복받기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법당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60년을 넘게 절에서만 일꾼 노릇을 했기에 공양물은 물론 절집 일에 관한한 달인이라고 불러도 좋았다. 심지어는 스님들의 얼굴만 보아도 공부가 된 스님인지 아닌, 머지않아 여신도와 스캔들이 날 스님인지 아닌지도 척 궤고 있었다.

번뇌하는 인간들의 유쾌한 아이러니가 가득한 40가지 이야기!!

이형순 지음 | A5 신국판 349쪽 | 값 15,000원 | 클리어마인드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클리어마인드
문의 02)2198-5153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힐링사찰 삼광사가 중생들의 마음행복을 위해 정진합니다.

36만명 신도가 수행하는 한국불교의 자랑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힐링사찰' 의 원력을 세워
삼광사 발전과 종단의 삼대지표인 애국 · 생활 · 대중불교를 통해
천태일승묘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 정진합니다.



주지 김무원 스님
총무 박거홍 스님 | 교무 손형선 스님
재무 손무성 스님 | 노전 김탄성 스님
신도회장 이헌승
신도부회장 최주덕 | 총무위원 권길용 | 교무위원 정일태
재무위원 윤태용 안승진 신명옥 | 사업위원 김성춘
복지위원 이정복 | 문화위원 김영수 | 홍보위원 김규옥 | 교육위원 정재위
고문 · 지도위원 · 지회 · 신행단체 간부 및 사부대중일동 합장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북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 (051)808-7111~6 FAX (051)803-1332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자연 들이마시며 심신 튼튼하게



生生 생생

나를 위한 건강여행 생생 템플스테이

자연을 들이마시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 여행.

숲·계곡·바다가 어우러진 동해 삼화사, 월출산의 기운 가득한 영암 도갑사, 황금빛 천년 세월이 물든 은행나무의 사찰 양평 용문사, 지리산 약초향기 물소리 가득한 산청 대원사가 함께 합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바다 내음 맡으며 명상하기

당신도 자연 동해 삼화사

시간에 쫓기고 먹는 것에 빠져 허둥지둥 하루를 보내왔다면 동해 삼화사에서의 템플스테이를 추천한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청량한 동해 바람을 한껏 들이마시고 싱그러워질 것이다.

강원도 동해 삼화사는 '당신도 자연입니다' 라는 주제로 숲과 계곡, 하늘과 바다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쉬어보기를 권한다. 일출명소로 유명한 촛대바위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명상을 한다. 이어 추암해변을 걸으며 눈과 마음을 맑힌다.

삼화사가 진행하는 '아침이온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어제와는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용추폭포, 하늘문, 신선바위 등 인근 두타산을 트레킹하며 여름 숲이 뿜어내는 녹색 기운을 만끽할 수도 있다.

삼화사가 건네는 힐링 메시지는 이곳에서는 힘들이거나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 자연에 있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다시 보듬어지고 그동안 수고하며 애써왔던 나를 헤아려 보고 걱정, 불안을 잠시 내려놓는다.

스님과의 차담역시 심신 건강 찾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강원도 명물 곤드레 밥으로 건강한 기분을 즐길 수도 있다.

참가자들은 삼화사의 주변 절경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도 빈둥거려도 불안해지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로 받고 돌아간다고 말한다. 평일, 주말로 상시 운영되며 주말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이다.

http://www.samhwasa.org, 033)534-7676

월출산 기(氣)를 찾아 떠나라

노세노세 영암 도갑사

'잘 먹고 잘 놀아보자.' 신선하다 못해 발칙한 템플스테이가 나타났다.

전남 영암군 도갑사에서는 놀 줄 모르는 대한민국에게 '노올자~' 자고 천진난만하게 말을 건넨다. 잘 놀아야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며 월출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 기차게 땀 흘리며 놀아보자고 한다.

도갑사의 놀기 시리즈는 세 버전이 준비되어 있다. 매일 운영되는 '노는게 제일 좋아' 는 스님과 한담하며 여유로움을 즐기고 월출산에서 산새와 대화를 나누며 혼자놀기의 정점을 찍어본다.

매월 넷째주말에 진행되는 '행복충전놀이' 는 솜으로 만든 공으로 놀이도 해보고 둥글게둥글게, 꽃이 피었습니다 등 어렸을 때 하던 놀이를 재현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본다.

'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은 월출산을 제대로 등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월출산 온천에서 몸도 풀어보는 등 반나절을 산에서 보내며 월출산의 기운을 듬뿍 받아온다. 참가자들 역시 딱딱하고 엄할 것으로 지레 생각했던 산사가 뜻밖에 유연해서 마음 편하게 지내다 왔다고 했을 정도다.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아 놀고 싶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도 운영된다. '너, 나, 우리 함께 놀자!' 는 기존 놀이 프로그램 외에도 자연계곡에서 물놀이와 캠프파이어도 즐길 수 있다. 야영을 온 듯 조별 장기자랑도 준비됐다.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함께라서 좋은' 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도갑사에서 날려보자. 신문지 두 장으로 할 수 있는 뜻깊고 재미난 놀이가 궁금하다면 도갑사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http://dogapsa.org, 061)473-5122

요가와 자연요리로 건강을

나를 챙기기 양평 용문사

숲에 파묻혀 오롯이 사찰의 고즈넉함을 안고 오고 싶다면 용문사가 제격이다. 유명한 용문사 은행나무 밑에서의 참선이 준비돼 있다.

1,100년이나 된 경기도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호. 60m의 높이에 둘레는 4m나 된다.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다. 영화, 드라마 등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을 만큼 분위기가 수려하다. 은행나무는 중국에서 불교가 전해질때 같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문사 은행나무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옛날 이 나무를 베고자 톱을 대었을 때 톱자리에서 피가 나오고 맑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이 쳤기 때문에 중지하였다는 이야기와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절을 불살라버렸으나 나무만은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나라에 큰 이변이 생길 때마다 큰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종이 승하했을 때 커다란 가지 한 개가 부러졌고, 8·15광복, 6·25사변, 4·19혁명, 5·16군사정변 때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용문사 템플스테이는 예불에 이어 108배, 타종체험, 산길명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성넘치는 여타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담백한 맛이 있다. 새로운 것 특별한 것만 찾는 세상에서 오래되고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건강한 나를 챙기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주지스님이하 사찰의 모든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불에서 참가자들은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용문사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뽕잎밥과 발효식품 체험을 하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안목 또한 기른다.

주말에는 은행나무 밑에서 참선, 바른 요가 산길명상, 뽕잎밥과 발효식품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요리 연구소가 운영된다.

http://www.yongmunsa.org, 031)775-5797

체질에 맞는 섭생법 배우자

몸생생 마음생생 산청 대원사

지리산이 품고 있는 경남 산청 대원사에서 몸, 마음 치유 처방전을 내놓았다. 명상상담으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약초를 이용해 음식조리, 찜질을 하며 몸을 건강하게 한다.

몸생생 프로그램은 지리산 계곡을 포행하고 최근 자연관찰로가 만들어진 맹세이골의 생태탐방을 나선다.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맑은 계곡물이 소리내며 흐르고 있다. 약 800m 정도의 관찰로는 계곡을 따라 길이나 있고 징검다리를 건너기도 한다. 지리산 둘레길도 걸으며 한껏 피톤치드를 들이마신다.

이어 마음생생 프로그램은 108 애니어그램 성격검사 후 호흡법, 오감명상 등의 명상법을 배운다. 명상일지를 쓰며 삶의 습관을 돌아다보고 다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명상일지도 쓴다. 그 외 푸드테라피, 사진, 영화치료, 글쓰기치료 등을 할 수도 있다.

내 체질에 맞는 음식과 운동법을 알려주는 것은 생생 템플스테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수시로 휴식시간에 대원사내 약초찜질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꽃향기에 취해 대원사를 찾았다는 참가자는 마음의 지옥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명상을 하며 존재 하나만으로 충만해 질 수 있다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다고 했다.

대원사 특별 운영프로그램으로 사찰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마련돼 있다. 4~15명 등 단체 참가자가 사찰음식을 만들어보는 요리강좌형 템플스테이다.

http://www.daewonsa.net, 055)974-1112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수좌 중봉 성파
주지 원산 도명

유나 천진 보탑 부주지 일해 재원 총무국장 동진
율주 중산 혜남 기획국장 영랑 교무국장 진응
강주 현진 지형 재무국장 문수 사회국장 보원
율원장 우설 덕문 포교국장 선본 호법국장 현중
박물관장 무애 무애 원주 마벽 농감 도훈
도감 용담 현기

총림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낙가산 보문사

주지 등목

사부대중일동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전화 : 032)933-8271~3 / 팩스 : 032)933-8270
홈페이지 : http://www.bomunsa.me / 이메일 : bomunsa8270@hanmail.net


▲예산 수덕사




▲해남 미황사

'나' 로부터 자유로워진다

如如 여 여

나를 위한 비움여행
여여(如如) 템플스테이

성냄과 욕심,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행.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예산 수덕사와 남해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가 고단한 '나' 를 받아준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선, 명상 통해 나를 내려놓는다

한국불교의 선맥이 살아 숨쉬는 예산 수덕사

북으로는 가야산, 서로는 오서산, 동남간으로는 용봉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덕숭산은 호서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덕숭산의 정기를 받은 수덕사는 경허, 만공, 혜월, 수월, 보월 등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은 선사들이 다녀간 선지종찰이다.

수덕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예불은 특별하다. 700년 된 대웅전에서 촛불만 올리는 예불의식의 경건함과 장엄함 속에 서있으면 평소 경험할 수 없었던 '나' 와 마주하게 된다. 108개의 염주에 마음을 담으며 108배를 하고 나면 낮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생명의 '치유' 인 숲을 걸으면 비움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채움' 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 의 '여여' 템플스테이인 '비움'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 수덕사의 비움 템플스테이는 1박2일~3박4일(누구나) 일정의 '일 없는 일' 과 1박2일(중고생 이상) 일정의 '길 없는 길' 로 나뉜다.

'일 없는 일' 은 숲길 걷기, 108염주 꿰며 마음 비우기, 스님과의 차담 순으로 진행되며, '길없는 길' 은 집중수행, 선지식과의 만남, 경허, 만공 선사 발자취순례 순으로 진행된다.

선맥의 도량인 수덕사의 템플스테이는 선의 '체험' 을 통한 '비움' 의 시간이고, 기회이다. '나' 를 비운다는 것은 내 안의 '나' 를 찾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쁜 일상에 쫓기고 욕망에 사로잡혀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나' 를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우고 내려놓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고 여여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선과 명상이 며칠 동안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의 기운이 가득한 선지도량에 머무는 것만으로 참가자들은 마음에 새 옷을 입고 몸은 고단함에서 나올 수 있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젖듯이 도량의 기운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허, 만공, 혜월, 수월, 보월, 모습없이 우리 불교의 마당을 여전히 걷고 있는 선지식의 숨결 속에서 원초의 '나' 로 돌아가 보는 것이며, 단순히 머무는(템플스테이)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 비움을 체험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불교의 수행자들은 선 수행을 통해 해탈의 길을 걸었다. 선의 어원은 '고요한 사유', '종교적 명상', '직관' 을 뜻하는 범어 '드야나(dhyana)'로서, 음역하여 선나(禪那)라 했고 줄여서 선이라 했다. 드야나는 원래 인도에서 정신통일을 통해 마음을 제어하는 수행의 방법이었다. 불교에서는 선정이라 하여 부처님께서도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셨다고 한다. '정' 은 마음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범어 '삼마디(samadhi)' 를 음역하여 삼매(三昧)라고도 한다. 참선은 '선정에 참입한다' 라는 뜻으로 곧 '본마음', '참나' 를 밝히는 수행이다.

http://www.sudeoksa.com, 041-330-7789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수덕사 내에는 문화공간이 많다. (미술관, 박물관, 수덕여관, 전통찻집과 원두커피점)
- **주변지역 명소:**
  고건축박물관, 추사고택, 충의사(윤봉길 의사 기념관), 남연군묘(가야사터), 만해 생가,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미술관, 덕산온천지구, 예당저수지, 간월암, 안면도 해수욕장 등이 한 시간 내 거리에 위치하여 보다 풍성한 여행길을 만들어 준다.
- 내포문화숲길(원효깨달음의 길, 백제부흥군길, 내포천주교순례의 길, 역사인물동학길)과 백제의 미소길 등의 트레일과 용봉산, 가야산, 수암산, 덕숭산 등 산행코스도 이용하실 수 있다.

땅 끝에 서서 '나' 를 본다

남해의 아름다운 절 해남 미황사

전남 땅끝 마을 해남 달마산 기슭에는 단청도 없이 빛깔 고운 대웅보전이 저녁마다 붉은 노을 젖는 절이 있다. 미황사다.

고단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다. 해결해야 할 일들과 이뤄야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늘 고단할 수밖에 없다. 늘 붙들고 있어야 하는 '나' 때문에 몸과 마음은 원초의 '나' 를 만날 수 없다. 잠시라도 묶인 끈을 풀고 그 힘든 일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면 우리 땅의 가장 끝으로 가볼 일이다. 비움을 위한 미황사의 여여 템플스테이 '참사람의 향기' 가 있기 때문이다. 긴 여행을 마치면 "더 이상의 길은 없으니 여기서 쉬세요"라고 말하듯 미황사가 중생을 맞이한다.

철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변화무쌍한 바닷바람과 '땅 끝' 이 주는 알 수 없는 위안과 위로가 있는 도량에서 펼쳐지는 템플스테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길 끝에서 바라보는 '나' 의 모습을 통해 '비움' 의 절실함을 들게 되고, 그 비움을 통해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미황사 '나를 위한 여여템플스테이' 는 1박2일(누구나) 일정의 '고요한 소리' 와 7박8일(20~65세) 일정의 '참사람의 향기' 가 있다. 매일 시작되는 '고요한 소리' 는 예불, 공양, 운력, 스님과의 차담 순으로 진행된다.

매월 셋 째 주마다 시작되는 '참사람의 향기' 는 참선 집중수행, 묵언, 좌선, 법문, 예불, 다도 운력, 참선요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수행문답 외에는 7박8일 동안 묵언을 하며 매일 6시간 동안 참선 수행을 한다.

또한 구참자를 위한 '참사람의 향기', '해넘이해맞이', '동백꽃 맞이', '부처님오신날' 등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고통과 갈등이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고통과 갈등을 어떻게 비우고 자유로워지는지를 미황사 템플스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매일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1박 2일의 프로그램과 매월 셋째 주 7박 8일 동안 진행되는 집중수행프로그램이 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가만히 앉아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미황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비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http://www.mihwansa.com, 061-533-3521

미황사 특별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설명	대상	개최시기	참가비
참사람의 향기 (구참자)	참사람의 향기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수행프로그램 좌선, 법문, 운력	참사람의 향기 경험자	매년2회 (8박9일)	500,000원
해넘이해맞이 템플스테이	해넘이와 해맞이를 보며 일 년 동안의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출발	일반인	매년1회	50,000원
동백꽃 맞이 템플스테이	동백꽃 명상, 사찰음식, 걷기수행	일반인	3월 셋째주 (1박2일)	50,000원
봄맞이 템플스테이	화전놀이, 다담, 봄길 걷기명상	일반인	4월 둘째주 (1박2일)	50,000원
부처님오신 날 템플스테이	연꽃등 만들기, 단청문양 그리기, 등불달기	일반인	5월 부처님오신날 (1박2일)	50,000원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송편만들기, 차례지내기, 보름달 맞이 명상	일반인	9월 추석 (1박2일)	50,000원
괘불재 템플스테이	괘불재 참석, 도솔암 숲길 걷기, 사찰문화 체험	일반인	10월 넷째주 (1박2일)	50,000원
달마산 트레킹 템플스테이	달마산 숲길 걷기, 땅끝 바닷길 걷기	일반인	11월 둘째주 (1박2일)	50,000원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자긍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한영불교사전!

한국불교백과사전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문으로 된 최초의 한국불교 백과사전!
- 570개의 표제어와 180여 컷의 컬러 사진을 통해 보는 한국의 불교문화!
-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설명,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혜원 • Mason 공저/국판양장컬러/656쪽/값 35,000원

한영불교대사전
A Kore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m

- 12,00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표제어!
- 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상세한 설명!
- 표제어의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본의미Basic meaning 표기!
- 주요 개념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표기!

A. Charles Muller • 전옥배 공저/국판 가죽양장/1808쪽/값 9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용인 법륜사

꿈과 희망을 찾아…

동해의 푸른 바람 속에서 희망 찾자

'파랑새를 찾아서' 양양 낙산사

금강산, 설악산과 함께 관동 3대 명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오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낙산사는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항상 머무는 곳을 이르는 보타낙가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역대로 지위와 신분을 떠나 관음진신을 친견하려는 참배객들의 발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특히 동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풍광과 부처님 진신사리가 출현한 보물 제1723호 공중사리탑, 보물 제1362호 건칠관음보살좌상, 보물 제499호 칠층석탑, 해수관음상, 천수관음상 칠관음상 등 모든 관음상이 봉안된 보타전, 창건주 의상대사의 유물이 봉안된 의상기념관 등 숱한 성보문화재를 갖추고 있어 관음성지이자 천년고찰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낙산사는 지난 2005년 4월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당우가 소실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불자들의 힘으로 도량을 회복했다.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양양 낙산사. 관음성지는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곳' 이란 뜻으로, 이곳에서 기도발원을 하게 되면 그 어느 곳보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잘 받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관음보살의 대자비 정신에 의탁하면 끝없는 질곡의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지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에서는 "일심으로 부르면 즉시 해탈의 세계로 인도해주실 것이다" 고 했다. 관음성지에서의 기도발원이 그 어느 곳보다 간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당 템플스테이 '파랑새를 찾아서' 는 '간절함' 이 있는, '간절함' 이 있어야 하는 도량 낙산사가 간절한 희망을 위해 준비한 템플스테이다. 끌리는 대로, 되는 대로 걸어온 막막한 삶을 살아왔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낙산사 템플스테이 '파랑새를 찾아서' 는 1박2일 일정의 '꿈, 길 따라서(20~40대 · 상시)' 와 같은 1박2일 일정의 '길에서 꿈을 묻다(20~40 · 매월1,3주말)' , 2박3일 일정의 '꿈꾸는 만다라여행(누구나, 가족 · 분기 1회)' 세 가지가 있다.

'꿈, 길 따라서' 는 예불, 꿈길 따라 걷기, 희망의 씨앗을 품기(일출) 순으로 진행되고, '길에서 꿈을 묻다' 는 사찰탐방, 꿈길 따라 걷기, 스님과의 차담, 희망의 씨앗 품기(일출), 해수관음상요불(명상, 108배), 새벽예불, 명상 순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 '꿈꾸는 만다라여행' 은 해수욕장 모래를 이용한 만다라 그리기, 걷기명상, 희망의 씨앗 품기(일출), 마음나누기, 국수공양 순으로 진행된다.

아침예불 후 일출 시간에 맞춰 해수관음상이나 의상대로 나아가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낙산사 템플스테이는 잃었던 도량을 다시 찾은 낙산사의 '회생' 을 보듯 스스로의 지친 심신을 회생시키는 시간이다.

http: //www.nsksansas.or.kr 033-672-2417

'님의 침묵' 들으며 당당해진다

진정한 번뇌 만해의 마음 인제 백담사

백담사는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절로 백담계곡 위에 있어 내설악을 오르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한용운의 〈백담사 사적기〉에 의하면 서기 647년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한계사로 창건하고 아미타삼존불을 조성 봉안 했다. 전설에 의하면 백담사라는 사찰의 이름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서 사찰을 세운 데에서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운수납자들이 계곡의 맑은 물에 객진번뇌를 털어내고 설악영봉의 푸른 벗을 삼아 출격장부의 기상을 다듬던 선불장, 백담사. 만해 한용운 선사는 1905년 이 곳 백담사에서 머리를 깎고 입산수도하여 깨달음을 얻고, 〈조선불교유신론〉과 〈십현담주해〉를 를 집필하고 '님의 침묵' 이라는 시를 발표하는 등 불교유신론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일제의 민족 침탈에 항거하여 민족독립운동을 구상했던 독립운동의 유적지로도 유명하다.

당당 템플스테이 '꿈! 알림 · 다림 · 누림' 은 번뇌를 털어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 원력을 세우는 백담사의 템플스테이다. 나를 마주보고 바라보며 꿈을 설계하는 시간, 빈 곳을 채워가며 꿈을 꾸는 시간, 꿈에 다가가서 그 꿈을 누려보는 시간의 경험들이 행복에 이르게 한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 퍼뜨리고 함께 가꾸어가는 삶, 백담사 템플스테이가 제시하는 행복의 씨앗이다.

백담사 템플스테이는 1박2일 일정의 '평일 상시프로그램(누구나 · 평일)' 과 2박3일 일정의 '알림(누구나 · 월2회)' , 2박3일 일정의 '다림(누구나 · 분기2회)' , 1박3일 일정의 '누림(기체험자 · 년4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평일 상시프로그램' 은 서원 돌탑쌓기, 108배, 스님과 차담 순으로 진행되고, '알림' 은 서원 돌탑쌓기, 소금만다라, 자비명상, 차훈명상 순으로 진행된다. '다림' 은 서원 돌탑쌓기, 나눔 명상,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아차림 명상 순으로 진행되고, '누림' 은 서원 돌탑쌓기, 자!소원을 말해봐, 다반향초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중고생 대상으로 년 2회 진행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개발 템플스테이' 와 '청소년 단체' ,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사전 예약)되는 '기업단체' 프로그램이 있다.

http://www.baekdamsa. org 033-462-5565

내 꿈 펴뜨리는 종소리를 듣는다

자비와 행복 넘치는 용인 법륜사

법륜사는 상륜 스님이 승가사 제일선원에서 새벽 입선 정진 중에 관세음보살의 현몽 인연으로 창건한 비구니 수행도량이다. 선방에 앉아 고요히 정진하고 있는 스님 앞에 수백 그루 밤나무와 감나무 등이 우거진 아담한 산자락이 보였다.

스님께서 그 산기슭으로 들어가보니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커다란 청룡이 하늘로 높이 치솟으며 푸른 물을 뿜어내었다. 청룡이 사라진 자리에 관세음보살이 나투셔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곳에서 수행하라"

스님은 이 세상에 다시없는 특별하고 위풍당당한 비구니 수행 가람을 만들고자 불사를 시작했다. 위풍당당한 도량 법륜사의 당당 템플스테이 'Dream 드림' 은 가슴 설레는 꿈(희망)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간절하게 원을 세워 정직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템플스테이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이들과 함께 '나의 꿈' 저 세상 멀리 멀리 퍼지라는 외침을 간절함을 담았다. 무의식의 에너지에서 용기와 가능성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법륜사 템플스테이는 1박2일 일정의 '내 꿈을 펼쳐라(20~40 가족 · 매일 상시)' 와 1박2일 일정의 'Dream 드림(20~40 · 매월 4주말)' , 1박2일 일정의 '퍼져라 콘서트(기참가자 · 년2회)' 가 있다.

'내 꿈을 펼쳐라' 는 문수산 오솔길 걷기, 내 꿈 퍼뜨리는 종소리, 방긋 웃는 내 꿈 등 켜기 순으로 진행되고, 'Dream 드림' 은 내 꿈 밝히는 유등띄우기, 내 꿈 퍼뜨리는 종소리, 문수산 오솔길 걷기, 방긋 웃는 내 꿈 등 켜기 순으로 진행된다. '퍼져라 콘서트' 는 '내 꿈아 멀리 퍼져라' 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http://www.bubryunsa.co.kr 031-321-3155



堂堂 당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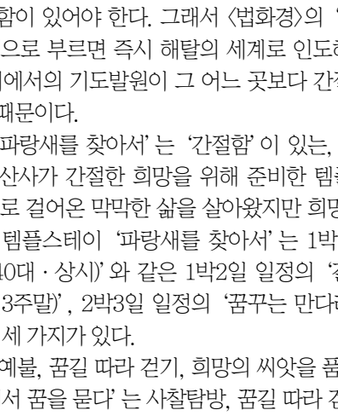
나를 위한 희망여행 당당(堂堂)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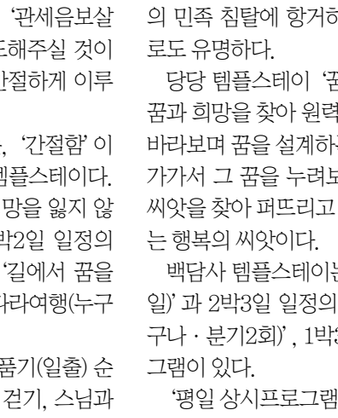
잃었던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기 위해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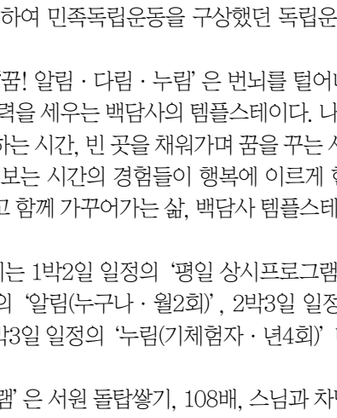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 낙산사, 강원도 인제 백담사,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 가면 당당함을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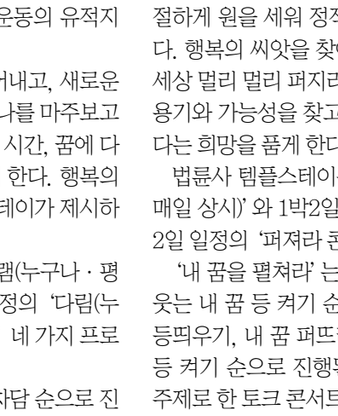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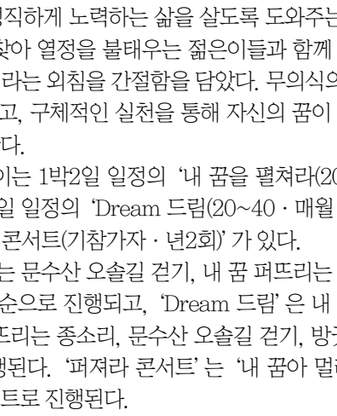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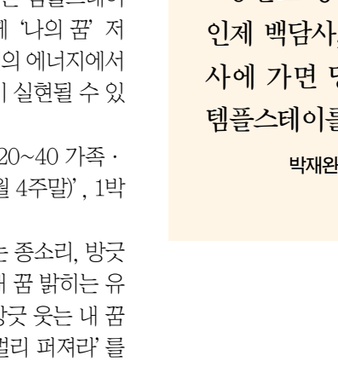

대승기신론 강설
이평래 지음 | 624쪽 | 값 29,500원
160×230㎜


붓다수업
법상 지음 | 372쪽 | 값 15,000원
152×220㎜


삶은 환타지이다
월호 지음 | 324쪽 | 값 13,500원
152×210㎜


선과 다도
정성본, 김명희 지음 | 292쪽 | 값 15,500원 | 152×225㎜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 | 376쪽 | 값 13,500원
152×223㎜


유마경과 이상향
화공 지음 | 630쪽 | 값 29,500원
152×225㎜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 윤재승)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대장부 템스는
지구촌 모든 생명들에게 드리는
마음의 쉼표입니다.
그 쉼표,
이제 당신의 삶에 찍을 때입니다.

삶의 결을 다채롭게 하는 문화와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교육이 있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대장부 템스'
멀리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입니다.

대장부 템스는
마음의 봄을 당기는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대장부 템스 프로그램

We are the 대장부

내 안의 무한 에너지, 주인공을 깨우고
그 능력을 믿고 활용하게 돕는 프로그램

대긍정의 말씨앗 / 마 음 체 인 지 / 행복 염주 꿰기 / 파도소리명상

마 음 의 불 – 촛불을 밝히며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

스님과의 차담 –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자연치유 명상 – 자연이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 속 보물을 찾아보는 시간

심화프로그램

수행중심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일상속 관법(觀法) 수행으로 이어져
365일 마음의 무한능력을 자재하게 쓰는 대장부로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대장부 템스 유형

- 휴식형 : 매월 셋째주 주말 정기 운영
- 체험형 : 매월 첫째, 넷째주 주말 정기 운영
- 특별형 : 대상자별 특화 프로그램, 매월 둘째주 운영

1월, 7월 – 어린이(보호자 동반) / 멋쟁이! 대장부
2월, 8월 – 청소년 / 최고야! 대장부
3월, 9월 – 대학생 / 깨어나 웃어라
4월 – 아버지 / 아버지 날다
10월 – 부 부 / 팔방미인 당신
5월, 11월 – 태 교 / 대장부를 품다(1일 체험형)
6월, 12월 – 가 족 / 한마음의 품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대장부템스"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사무국
전화 070-4650-5535~6 www.대장부템스.org



한 여름 산사서 모든 것 내려놓고 '夏夏 好好'

휴가철 갈만 한 아주 특별한 템플스테이

염천(炎天)의 시작, 벌써부터 몸과 마음은 더욱 지친다. 내 몸과 마음은 힐링을 원한다. 이제는 스스로를 추스러야 할 시기다. 그렇다면 번잡한 피서지 대신 청량한 산사로 떠나자.

앞서 소개한 '아생여당'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에서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

가족 함께하니 행복 '두 배'

번잡한 도시를 떠나 가족이 함께 힐링하고 싶다면 '가족형 템플스테이'가 제격이다. 먼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수리수리 여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수리수리 여름 콘서트'는 8월 2~3일 진행되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 만들기와 외치기, 숲 속의 콘서트, 군왕대 오르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한 8월 9~10일, 8월 16~17일, 8월 23~24일 세 차례에 걸쳐 '수리수리 여름 가족 캠프'가 열린다. 가족 캠프에서는 숲 속 명상체험, 소원등 만들기, 탑돌이 및 풍등 날리기, 징검다리 걷기 명상 등이 진행된다.

경기 화성 신흥사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명상 템플스테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명상 템플스테이를 7월 25~27일, 8월 16~17일 각각 개최한다.

놀고 배우니 여름이 즐거워라

한문학당을 비롯해 불교 특유의 여름 방학 교육 프로그램도 템플스테이의 주요 콘텐츠다. 최근에는 인근 역사 유적들을 함께 답사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서산 부석사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7일간 제16회 한문학당을 연다.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부석사 한문학당에서는 한문교육이외에 다도, 참선, 발우공양, 문화탐방, 포행, 단청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전남 해남 두륜산 일지암(암주 법인)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동안 '자전에세이 쓰기' 템플스테이를 연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선 참가자들이 암주 법인 스님과 글쓰기 코치 백승권 씨의 프로그램 지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과정을 한 편의 자전 에세이로 만든다. 글쓰기에 자신 없는 사람, 한 번도 에세이를 써보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 무술 선무도 총본산 경주 골굴사의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도 눈길을 끈다. 화랑수련회 여름캠프는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달동안 5차에 걸쳐 열리며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영어회화와 경주 남산 걷기, 경주 문화유산 및 박물관, 생태 코스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참선 수행 · 한문 학당 등
온 가족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지친 몸과 마음 '休' 위해
템플스테이 산사로 떠나요

무더위, 수행으로 극복하자

이열치열이라고 했던가. 치열한 수행으로 무더위와 나 자신을 이기는 수행형 템플스테이도 있다.

쌍계총림 쌍계사는 7월 한달 동안 여름수련회 템플스테이를 연다. 1차는 청소년(7월 14~17일)을 대상으로 열며 △2차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7월 19~20일) △3차 초등학생(7월 25~29일) △4차 성인(7월 31일~8월 3일)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절 수행을 통해 자신을 극기해보는 것도 여름을 나는 좋은 방법이다.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용맹정진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를 열고, 3000배 정진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에서는 만다라 명상을 주제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나는 참 예쁘다' 템플스테이(7월 17~20일, 8월 14~17일)와 금강경 집중 독송 수련회인 '다이아몬드 다이어트 템플스테이'를 각각 연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는 7월부터 8월초까지 '참나를 찾아서-짧은 출가, 큰 깨달음' 여름수련법회를 마련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좌선과 발우공양, 1080배와 다양한 불교 강의가 진행된다.

성주 자비선사는 자비선 명상을 주제로 '여름 마음디자인 캠프'를 연다. 8월 7~10일에는 자비선 명상 초심자를 대상으로, 8월 11~17일에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캠프가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다.

'BURN-OUT' 당신, 이제 쉬세요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은 치열한 만큼 힘들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휴식만이 그리울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휴식형 템플스테이'가 제격이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테마는 '여행'이다.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마들의 행복한(신나는) 여름여행'을 비롯해 가족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름 여행 템플스테이가 7월과 8월 동안 진행된다. '여름 여행' 이외에도 완전 휴식형 템플스테이도 함께 마련된다.

제2교구 용주사는 8월 2~3일 '쿨(COOL) 여름 휴(休)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용주사 역사탐방을 비롯해 머리가 맑아지는 피톤치드 명상, 108배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영암 도갑사에서는 제대로 노는 법을 배우자. 도갑사는 8월 한달 동안 △노는게 제일 좋아! 기차게 놀자(8월9~10일) △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8월 14~16일)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너, 나, 우리 같이 놀자'(8월 1~3일, 8월5~7일) 템플스테이가 진행한다. 각 템플스테이 별로 자연탐방, 물놀이, 숲 속 복권 만들기, 웃음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경기 양주 육지장사는 '마음을 맑게 몸은 건강하게'를 주제로 여름 템플스테이를 연다. 7월 3~6일에는 '설하 스님과 함께 하는 마음챙김'을 진행했으며 △부림 법사와 함께 하는 마음챙김(7월 11~13일) △설래스님과 함께 하는 마음 챙김(7월 18~20일) △명상음악 대가 최현규 교수와의 힐링(7월 24~27일) △부림 법사와 함께 하는 체질개선 다이어트(7월 30일~8월 3일)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4년 여름 템플스테이 일정

사찰	프로그램	일 정	대 상	프로그램 내용	문 의
금선사	오감통통 종횡무진	7.30~31/8.7~8	유아/초등생(부모동반)	유아가족명상캠프, 텐트 속 하룻밤	(02)395-9955
	아하당당 종횡무진	8.4~5	중고등학생	청소년 리더십 코칭 캠프	
	여여싱싱 종횡무진	8.15~16	성인	청장년 성인 상생 치유 캠프	
용주사	제7차 단기 하안거 참선 템플스테이	7.29~8.1	성인 (고등학생 이상)	새벽예불, 108배, 참선, 자비명상, 걷기명상.	(031)235-6886
	쿨 (Cool) 여름 "휴(休)" 템플스테이	8.2~3	유아(10세미만 부모동반/학생/성인)	용주사 역사탐방, 발우공양, 머리가 맑아지는 피톤치돈 명상, 새벽예불, 선선불봄해지는 108배, 차담 및 스님과의 대화	
육지장사	마음을 맑게 몸을 건강하게 템플스테이	1차:7.3~7.6/2차:7.11~13	-	1차: 설하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챙김 휴식형 /2차: 부림법사님과 함께하는 마음챙김	(031)871-0101
		3차:7.18~20/4차:7.24~27		3차: 설래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챙김 /4차: 명상음악 대가 최현규 교수와의 힐링	
		5차:7.30~8.3		5차: 부림법사님과 함께하는 체질개선 다이어트, 태교	
신륵사	신륵사 여름수련회 -더불어 함께하기	7.26~27 8.9~10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찾기, 108배& 108염주 만들기, 타종체험, 포행	(031)885-9024
화운사	놀아봐! 꿈꿔봐! 어린이 템플스테이	1차: 8.8~10/2차: 8.13~15	초등학생	새벽예불, 발우공양, 신나는물놀이, 캠프파이어	(031)337-2576
	청소년 Leadership 템플스테이	7.31~8.3	중고등학생	발우공양, 새벽예불, 야단법석, 꿈등만들기, 싸바이벌게임, 화 · 화 · 밤, 숲속포행	
화성신흥사	가족 명상 템플스테이	7.25~27	유아(부모동반)/학생/성인	교화공원 명상숲길 걷기명상,만다라자비명상,가족긍정명상,명상게임	(031)357-2695
	성인 여름 명상템플스테이	8.16~17	성인	교화공원 자연생태 황톳길 걷기명상,만다라자비명상,서로공경108배	
법륜사	Dream드림 캠프-내 꿈아 퍼져라	7.26~27/8.2~3	학생/성인	법륜사 둘러보기, 도량 산책, 내 꿈아 퍼져 나가라 타종체험, 예불,	(010)6766-8700
		8.9~10/8.16~17	(초중고생 부모동반시 할인)	내 꿈 만들기, 걷기명상, 호흡명상, 손으로 만들고 체험하기,	
월정사	'사람이 사람으로'	7.31~8.3/8.7~8.10 8.14~8.17/8.21~8.24	성인 (중고등학생 부모동반시 가능)	108배, 발우공양, 명상, 강연 및 포살, 삼보일배, 요가, 타종체험, 암자순례, 포행	(033)339-6606
백담사	가족과 함께하는 숲 명상 템플스테이	7.28~30	유아(10세미만 부모동반/학생/성인)	자비명상, 돌탑쌓기, 맥놀이, 마음나누기	(033)462-5035
	꿈,희망 찾아가는 숲명상	8.1~8.3	학생(청소년)/성인	52회: 요가 108배, 숲명상, 자비명상	
		8.4~8.6		53회: 숲명상, 걷기명상, 맥놀이, 시심즉불	
		8.8~10		54회: 마루명상, 소금만다라, 차명상, 호흡명상	
		8.11~13		55회: 숲명상, 돌탑쌓기, 차훈명상, 시심즉불	
		8.15~17		56회: 맥놀이, 시심즉불, 님의 침묵, 자비명상	
		8.18~8.20		57회: 님의 침묵, 자비명상, 소리명상, 요가 108배	
	꿈,희망 찾아가는 비움여행	8.22~24	학생(청소년)/성인	2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행복을 머금은 차훈명상, 행복한 자비명상, 시심즉불	
		8.29~31		3회: 소금만다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차명상, 맥놀이	
마곡사	수리수리 어린이 여름캠프	7.29~,31/8.5~,8/8.12~,14	초등학생	만다라 명상, 훈장선생님과 영어로,시원한 물놀이, 불꽃 레크레이션	(041)841-6626
	수리수리 여름 콘서트	8.2~3	유아(부모동반)/학생/성인	소원을 이뤄봐-주문만들기, 숲속의 콘서트, 소원을 말해봐-주문외치기, 군왕대 기운받기	
	수리수리 가족 여름캠프	8.9~.10/8.16~.17/8.23~24	유아(부모동반)/학생/성인	숲속명상체험, 소원등만들기, 탑돌이 및 풍등 날리기, 징검다리 걷기명상	
갑사	용솟음! 여름캠프 1차 가족 캠프	7.26~27	가족	108염주꿰기, 연등만들기, 탑돌이,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용문폭포포행	(041)587-8921
	2차 성인 참선 수련법회	7.31~8.3	성인(18세 이상)	참선, 묵언수행, 발우공양, 천진보탑산행, 스님과의 차담	
	3차,4차,5차 가족캠프	8.5~7 / 8.8~10/8.15~17	가족	마음 나누기, 스님과의 차담, 108염주꿰기, 참선, 발우공양, 계룡산 트레킹, 연등만들기, 탑돌이	
	6차 가족캠프	8.23~24	가족	108염주꿰기, 연등 만들기, 탑돌이,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용문폭포포행	
한국문화연수원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6.21~22/7.26~27 8.23~24	유아(부모동반)/학생/성인	태화산 명상 트래킹, 차훈명상, 공주문화투어	(041)841-5050
부석사	내과의사와 함께 하는 건강한 삶	7.19~20	학생/성인	내과의사 건강 바로알기 Q&A, 별밤 감상하기, 108배, 걷기명상	(070)8801-3824
	제16회 부석사 어린이 한문학당	7.27~8.2	초등학생/중학생 (초4~중2)	한문교실, 포행, 발우공양, 다도, 참선, 단청그리기 등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	8.23~24/8.30~31	학생/성인	참선, 스님과의 차담, 서로에게 108배 하기, 우리가족 자랑하기	
순천 송광사	(여름 수련법회) 참 나를 찾아서- 짧은 출가, 큰 깨달음	(일반수련)7.12~16/7.19~23 (선 수련)7.26~30 (어린이수련)8.2~4	학생/성인	좌선, 발우공양, 1080배, 강의 (기초교리, 보조사상, 계율, 선 강의 등등), 묵언	(061)755-0107
대흥사	디디고 체험형 템플스테이	8.4~6(초등학생) 8.8~10/8.15~17/8.22~24	학생/성인	사물전타, 저녁예불, 핵심감정 찾기, 두륜산 트레킹 외	(061)535-5775
화엄사	나는 참 예쁘다(내 삶의 자존감 형성을 위한~)	1차:7.17~20/2차:8.14 ~ 17	성인(고등학생 이상)	만다라 명상, 가족세우기, 사람명상	(061)-782-7600
	다다 템플스테이(다이아몬드 다이어트)	8.5 ~ 8.9	성인	금강경 집중 독송 수련회	
	나는 참 예쁘다 어린이 불교학교	7.26 ~ 7.28	초등학생(3~5학년)	예쁜 마음으로의 명상, 예쁜 내마음의 액자 만들기, 숲과 하나되어 마음도구 찾기	
	나는 참 예쁘다 청소년 여름 캠프	7.29 ~ 7.31	중고등학생	에니어그램, 내 마음 들여다보기, 예쁜 나를 찾아서…	
해남 일지암	자전 에세이 쓰기 템플스테이	8.2~6	성인(대학생 고등학생 적정 인원 포함)	자전 에세이 쓰기, 새벽예불, 명상, 김영랑 · 고정희 생가 문학기행	010-8840-2201
도갑사	너,나,우리 같이 놀자!	8.1~8.3	초등학생	예불,포행,발우공양,숲속놀이,자연탐방,물놀이,캠프파이어,스님과의대화	(061)473-5122
	너,나,우리 같이 놀자!	8.5~8.7	낙도어린이초청	예불,포행,발우공양,숲속놀이,자연탐방,물놀이,캠프파이어,스님과의대화	
	노는게 제일 좋아! 氣차게놀자!	8.9~8.10	성인 (20대~60대)	발우공양,포행,웃음꽃놀이,숲속복권만들기	
	'함께' 라서 좋은	8.11~8.13	가족 (초등학생 이상 자녀)	발우공양,포행,웃음꽃놀이,숲속놀이,아빠힘내세요	
	氣를 찾아 떠나는 여행	8.14~8.16		주먹밥만들기,월출산종주,마애여래부처님 뵙기,웃음꽃놀이,월출온천	
쌍봉사	여름수련회-나를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	8.1~3	초등학생	108염주꿰기, 단청 그리기 체험, 소원등만들기	(061)373-9041
범어사	용맹정진 템플스테이- 자기자신과의 싸움 (젤 어디까지 해봤니	8.15~17	성인(고등학생 이상)	새벽예불, 발우공양, 3000배, 스님과의 화, 소감문발표	(051)508-5726
동화사	청마들의 행복한 여름여행	7.19~21/7.28~30	학생(청소년)	전통활쏘기, 숲생태명상, 부채만들기, 가마솥 감자 삶기	(053)982-0223
	청마들의 신나는 여름여행	8.4~7	초등학생	전통활쏘기, 숲생태명상, 물놀이, 전통놀이, 가마솥 옥수수 삶기, 나무 찾기 게임	
	가족들의 소소한 행복여행	7.26~27	가족	숲치유명상, 말없는 대화, 감자 삶기, 가족등 만들기	
	우리의 행복한 여름여행	7.30~8.1/8.8~10/8.15~17	성인(대학생부터)	발우공양, 옛길명상, 3보1배, 참선, 다도체험, 잔탁만들기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7.20~8.23(1주~5주 선택가능)	학생(고등학생 제외)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외	(054)-775-1689
고운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6~28	초등학생	내바라보기 명상, 아침예불, 나를 찾아 떠나는 108배 명상, 발우습의, 공양,	(054)833-6933
	중고생 여름수련회	7.30~8.1	중고등학생	모둠북, 참나를 찾아서, 담마스쿨-법구경, 컬링체험, 캠프파이어, 퀴즈대장경,108배 등	
	일반인 여름수련회	1차: 8.2~8.4/2차: 8.7~8.9	성인(대학생부터)	불교기초교리, 명상요가, 다도명상, 발우습의, 공양, 자연염색, 나를 깨우는 108배 등	
하동 쌍계사	쌍계사 여름수련회 템플스테이	7.14~17/7.19~20 7.25~7.29/7.31~8.3	학생/성인	1차: 청소년 템플스테이/2차: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 템플스테이 3차: 초등학생 템플스테이/4차: 성인 템플스테이/5차: 선 수련회	(055)883-1901
자비선사	초심자 집중수련 "나를 사랑하고 새롭게 마음디자인 하는 자비선 명상기초 배우기"	8.7~8.10	학생/성인(초3 이상)	자비선 명상기초 배우기~ 자연과 나, 마음 거울 찾아 떠나는 걷기 명상 자비경선, 나를 사랑하며 자비를 배우는 자비수관, 일상에서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함께하는 차비다선	(054)931-8874
	경험자 집중수련 일상에서 수행으로 …	8.11~8.17	학생/성인 (초3 이상)	자연과 나, 마음 거울 찾아 떠나는 걷기 명상 자비경선,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보는 자비수관, 차(茶)로 몸과 마음치유 여행 떠나기 오색 차 명상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 02)2266-0263,2263-2638
구입문의 031)582-6235~6 / H·P 010-3630-7092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 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방수전구(정품) (법당용,오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탑돌이방생



■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시공

[아생여당]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시작 –
대한민국 여러분
템플스테이 하세요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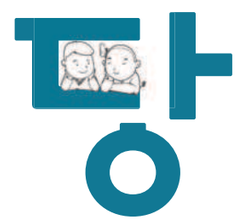
아아(我我) 템플스테이 _
마음의 위로가 되어 평화로움을 경험합니다



생생(生生) 템플스테이 _
뭇 생명들의 늘 푸른 건강을 선사합니다



여여(如如) 템플스테이 _
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제안합니다



당당(堂堂) 템플스테이 _
꿈을 찾아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 |

행복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산사 여행 템플스테이. 위로, 건강, 비움, 꿈을 전하는 템플스테이 '아생여당'을 만나보세요.

아아 我我 AaAa

나를 위한 위로 여행, '아아(我我)' 템플스테이

'아아' 템플스테이는 마음의 위로가 되어 평화로움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사 | '나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
충북 영동 반야사 | '또 하나의 시작' 템플스테이
충북 보은 법주사 | '다~ 잘 될 거야' 템플스테이
경북 성주 심원사 | '푹 쉬다 가이소' 템플스테이

여여 如如 Yeo Yeo

나를 위한 비움 여행, '여여(如如)' 템플스테이

'여여' 템플스테이는 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 해남 미황사 | '참사람의 향기' 템플스테이
충남 예산 수덕사 | '비움' 템플스테이

생생 生生 Saeng Saeng

나를 위한 건강 여행, '생생(生生)' 템플스테이

'생생' 템플스테이는 살아있는 뭇 생명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경남 산청 대원사 | '몸 생생, 마음 생생' 템플스테이
전남 영암 도갑사 | '노는 게 제일 좋아' 템플스테이
강원 동해 삼화사 | '당신도 자연입니다' 템플스테이
경기 양평 용문사 | '나를 챙기다' 템플스테이

당당 堂堂 Dang Dang

나를 위한 희망 여행, '당당(堂堂)' 템플스테이

'당당'템플스테이는 꿈과 희망을 찾아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강원 양양 낙산사 | '파랑새를 찾아서' 템플스테이
강원 인제 백담사 | '꿈! 알림 · 다림 · 누림' 템플스테이
경기 용인 법륜사 | 'Dream 드림' 템플스테이

blog blog.templestay.com | facebook facebook.com/templestay | Tel : 02 – 2031 – 2000~2 | www.templestay.com